

大韩建祭士協會誌 OCTOBER 1987.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3.1987.10.15 1985.12.31 第3種郵便物(斗)級 認可 郵便番號:135



문입니까?

건축자재중 흡유율이 개 음에 대한 흡유율이 X !을 만들어줍니다.

신뜻하고 아름다운 디자 내분위기를 깨끗하고 안

불연재 암면이 주인료로 선도율이 매우 낮이 냉동

올래의 철정편에 비해우 선물의 하중을 줄여수며!





목제품의 종합공급업체

튼튼한 合板

- ●콘크리트 거푸집용
- ●조립식 거푸집용 (TEGO 合板)
- ●차량용
- ●선박용
- ●방부처리 합판
- ●기타특수 합판



이건 목재 파렛트

- ●기계, 장비운반용
- ●선적용
- ●음료, 식품 수송용
- ●창고 보관용
- ◆수출포장대용
- ●산업용

원목·제재목

라왕, 아피통, 카폴, 미송, 타운, 칼로필름, 젤루통, 냐토, 아삼.

※고급특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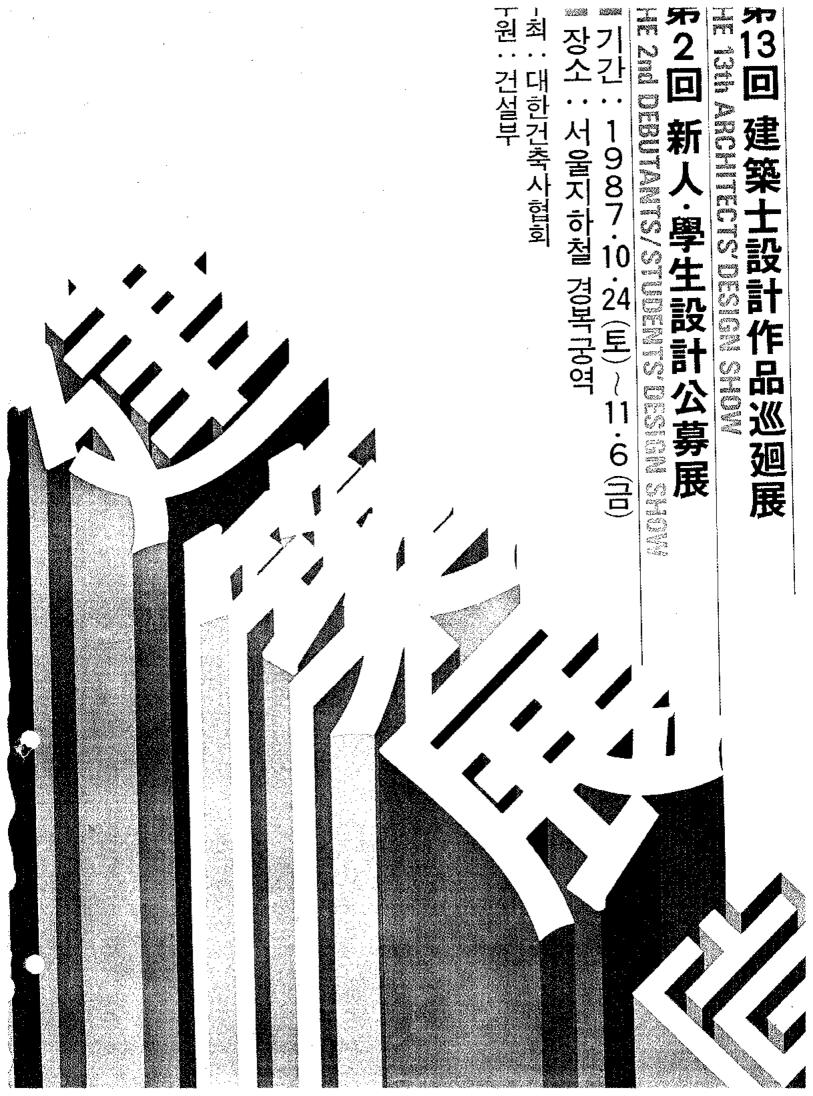
월낫, 오크, 비취, 스프루스, 메플, 앨더, 티크, 부빙가, 아가티스, 다오, 와 다종.



利建產業株式會社

분 사 : 인천직할시 남구 도화동 825 /전 화 : 762-7151~60 영업부 : 서울 765-2825, 2725 /서울사무소 : 서울 757-2541~5

TELEX : EAGON K28564 /FAX.No : 762-3555





표지사진: 石造殿, 1909 Miss Josephine Roberts(한국명 노정빈)의 소유사진(사진으로 보는 서울 100년에서)

발행인 안 기 태

편찬위원회

위원장 안 장 원 부위원장 김 린 변 김 기 석 원 박 영 호 원 김 정 동

집 출판사업부

행=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 – 55 무편번호 135

화 : 서울(02) 교 581 - 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 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 월23일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인) 쇄:광문정판사 인 쇄 인 : 천윤규

Publisher: An. Kic. Tac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Office

Korc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d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례

83 올림픽광장

1987년 10월호(통권 223호)

	會員作品
6	천주교 연안동 교회 金炯石
8	연희조형관
10) 방배동 H씨댁······ 金得洙
12	4-4-17-(A)
14	서울신탁은행 역촌동지점 金榮洙
16	11主人
18	한국체육대학 羅殷澤
	컬럼
22	民主化에 대한 우리의 視覚 俞景哲
	紀 行
24	유럽紀行 19일
	運 鼓
30	韓国近代建築의 再照明(6) 金品東
42	青銅器時代 및 初期鉄器時代의 住居 張慶浩
49	外国의 現代建築家 / 알도로시 成仁洙
	이달의 詩
48	등내 혹은 등대지기 원구식
	- . ·
	研究報告
62	特殊学校의 建築環境施設에 関한 研究・中元湜・劉永哲
66	중국전통건축의 이해(3)····· 朴舒弘
76	吐含山 石窟庵小考(1)崔富得
85	資 料
92	제13회 건축사 작품전 및 제 2회 신인·학생 건축설계전 수상작 발표
94	協会消息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당실 안내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064) 2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425-1/(0642)62-3920,3322

52-3248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통1603-55 / 581-5715~8 서부분소/서대문구연회동 169-16/333-1873 **남부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882-6744** 북부분소/도봉구수유동191-13/903-3425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484-6387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5/604-7168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 101-7/923-6213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446-5244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통광동1가1(부산데파트내) (051) 23-3584-5

CONTENTS	October	1987	177	222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함시수성구범어동3가1-8/
CONTENTS	October	190/	v or	223	(06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합시동구대인동323-11/(062) 521-7598
WORKS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합시남구간석1똥558 −1/ 《032》424 −0146、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Yeonan-Dong Church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0331) 42-6490 7072
Younhee Plastic Art CenterKim,li	n-Chul & Kwon,	Young- W	/ook	8	안양분소/안양서안양동719-9/(0343) 2-2698, 2-0012 무건분소/부천시원미동74-6/(032) 63-3144
Bangbae-Dong H's Residence		Kim,Deuk-	Soo	10	성남분소/성남시선홍동5512/(0342) 2-5445
					의정부분소/의정부시의정부동 182/(0351) 2 - 1083 송단분소/송단시선장동21/(0333) 4 - 6153
Han's Residence····		Han, Jac-1	Won	12	고양분소/고양군원당음주교리38보러16롯드/(034년 63-8902
Youkthon-Dong Branch Bank of Seoul	Ki	m,Young-	Soo	14	구리분소/구리시수백동409-2/(0346) 63-8112 이천분소/이천군여천읍중리216-8/(0336) 2~3396
Bears Town Ski Resort Youth Hostel					광명분소/광병시원산동464-7/682 - 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샤목천동39-5/(0361) 2 - 2442 원주분소/원주사일산동206/(0371) 42 - 3257
Korean National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Ra,Eun-T	cak	18	강릉분소/강릉시성대동6/(0391) 2-2262
COLUMN					속초분소/속초시충양동468-66/(0392) 2 - 5081 암석분소/삼석시남양동55 - 43/(0397) 2 - 3106
COLUMN					성원분소/영원군영원읍영홍1리959-35/(03732) 2659
Our Sense of Sight on the Administration Law of Construction				22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 - 168/
***************************************	Yo	o,Kyung-C	Chul	4.2	(0431) 2-2752 충주분소/충주시역전통673-1/(0441) 2-3082
					재천분소/재천시의림등8-8/(0443) 2-6253
TRAVELS					옥천분소/총북보온&삼산리 139-4/(0433) 2461 총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홍동487-1/
A Trip to Europe		Kang.Sun	ıg-[k	24	(042) 22-4088
A The to Eulope		0.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 160-14/(0417) 2 - 4551 홍성분소/홍성균홍성읍오관리239-1/(0451) 2 - 2853
SERIAL					부여분소/부여군부여 옵동문 리710-2/(0463) 2-2217
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V:	n Chuna I)	20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빌딩508) (0652) 3 - 3881
•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2/(0653) 52-3304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Ch	ang,Kyung	g-Ho	42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1가85/(0654) 2-4060 납원분소/납원시화정동106-2/(0671) 2-6002
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Aldo Rossi		Seong.In-	S00	49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
Overseas contemporary meaners made now		0,			(062) 364 - 7567 목포분소/목포시호남동1/(0631) 2 - 7280
POEM					순천문소/순천시장천동51~3/(0661) 2~7892
Lighthouse or Lighthouse-Keeper ·····		Wen Ken	ca.	40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35/(0662) 64 - 1144
Eighthouse of Eighthouse-Acceper			21 K	40	경상북도지부/대구적합시중구동인용1가285번지/ . (053) 45 - 4904
REPORT					포항분소/포항시축도동96~70/(0562) 74~9713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Facilities of Charact	regieria School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9 - 1/(0561) 2 - 2680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356 - 2/(0546) 52 - 7903
•					안동분소/안동시삼산동125 - 19/(0571) 2 - 3641
		-			김천분소/김천시남산동23-10/(0547) 2-2263 영주분소/영주시영주4동470-17/(0572) 2-4566
A Study on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hina	P	Park,Suh-f	Hong	66	문경분소/정촌시점촌동261 - 2/(0581) 2 - 2706
A Study of Scokulam Grott on Mountain Toham		Choi, Bu-l	Deuk	7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3 / (0551) 2-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봉585-6/(0522) 74-8836
					74 - 2555 전주분소/전주시본성동7-20/(0591) 2-6403, 42-3434-5
METERIALS				85	충무분소/충무시서호동177-101/(0557) 2-2504, 2-7420
KIRA NEWS				94	김해분소/김해샤부원동25B-17L/(0594) 2 - 3155 밀양분소/빌양군밀양읍내일동67-1/(0527) 53~2110
				02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0598) 2-3777
OLYMPIC PLAZA				83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 - 3/(0523) 4 - 2669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0558) 32 - 1086,
					7 _ 2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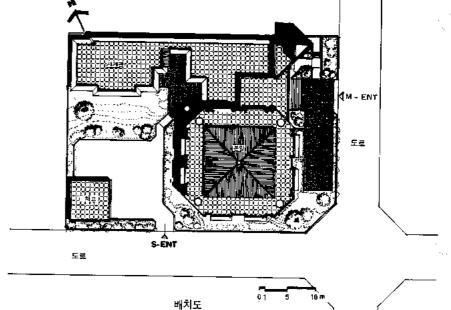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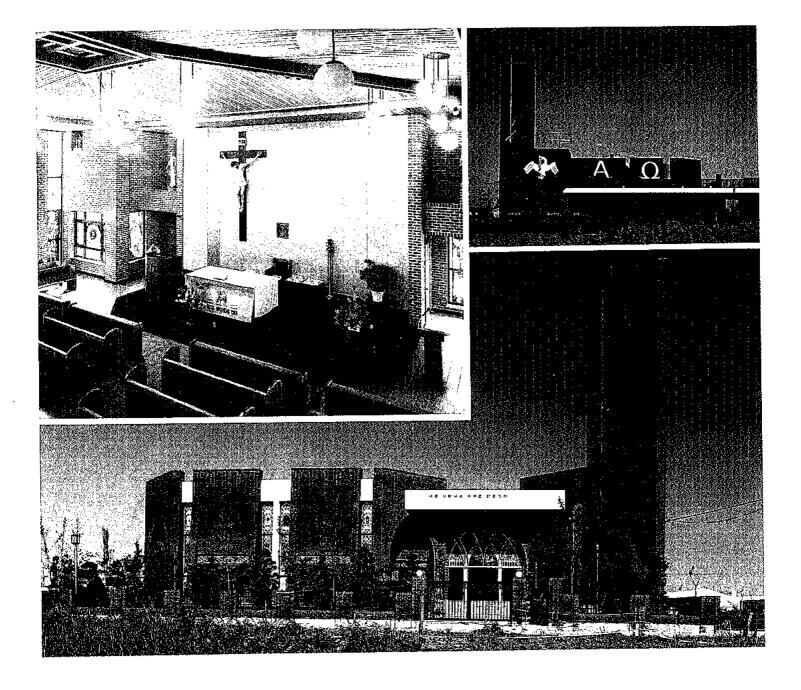
천주교 연안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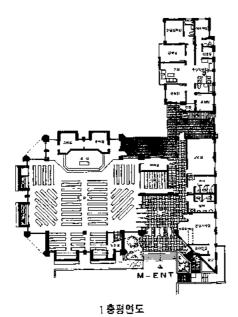
Yeonan-Dong Church Designed by Kim, Hyung-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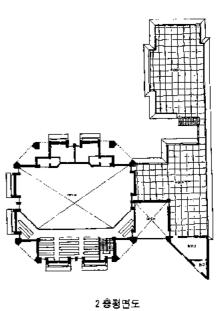
金炯石 / 명성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홍인동 116 / 252 - 7500, 253 - 0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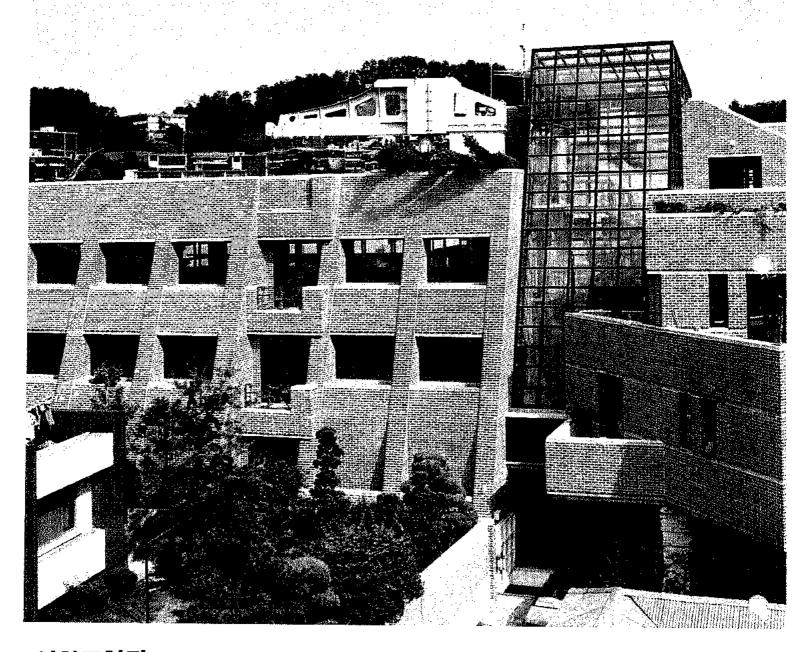
- □ 대지위치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58 60
- □ 대지면적 / 1,654.0㎡□ 건축면적 / 665.22㎡
- □ 연면적/926.66㎡ □ 건페율/40.22%
- □ 용 적 율 / 46.96%
- 모/지하1중, 지상2중 \square π
- □ 구 조/철근론크리트라인조 □ 주요외장재료/적벽돌치장쌓기
- 다창 호/스테인드그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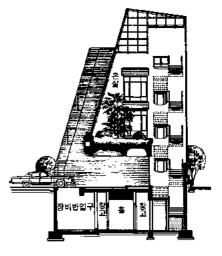
연회조형관

Younhee Plastic Art Center(Yonhee Dong) Designed by Kim,In-Chul & Kwon, Young-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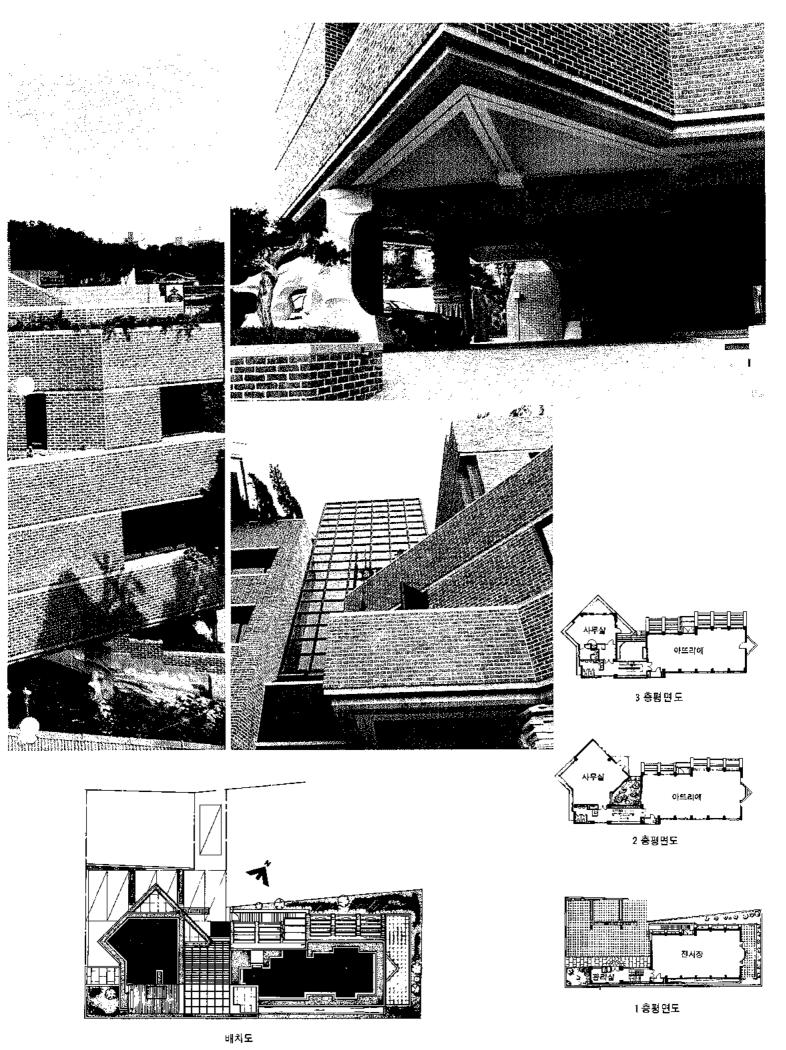
金仁喆+權寧郁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4-4/549-1104

- □ 대지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화동 92 26
- □ 대지면적 / 654m² □ 건축면적 / 324.8m²

- □ 연 면 적/1,159.09㎡ □ 구 조/R. C조 □ 외장재료/붉은벽돌+화강석+반사유리



종단면도





서울신탁은행 역촌동지점

Youk Chon Dong Branch Seoul of Bank Designed by Kim, Young-Soo

金榮洙 / 종합건축사사무소 建築國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811-1/591-1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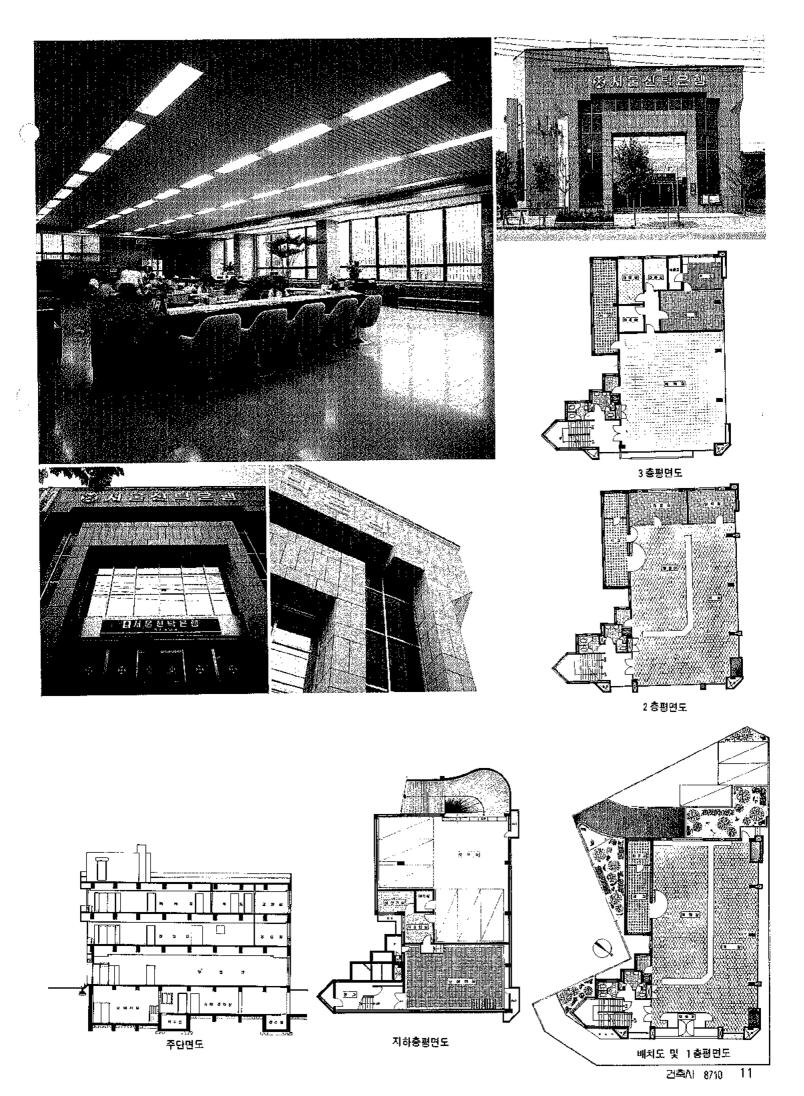
- □ 대지위치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 46
- □ 대지면적 / 725.2㎡
- 도/업무시설
- □ 건축면적 / 357, 96㎡
- □ 연 면 적 / 1, 412. 27㎡
- □ 건 폐율/49.36% □용적율/148.08%
- □ 외부미감/화강석바니구이(포천석) □ 구 조/철근콘크리트리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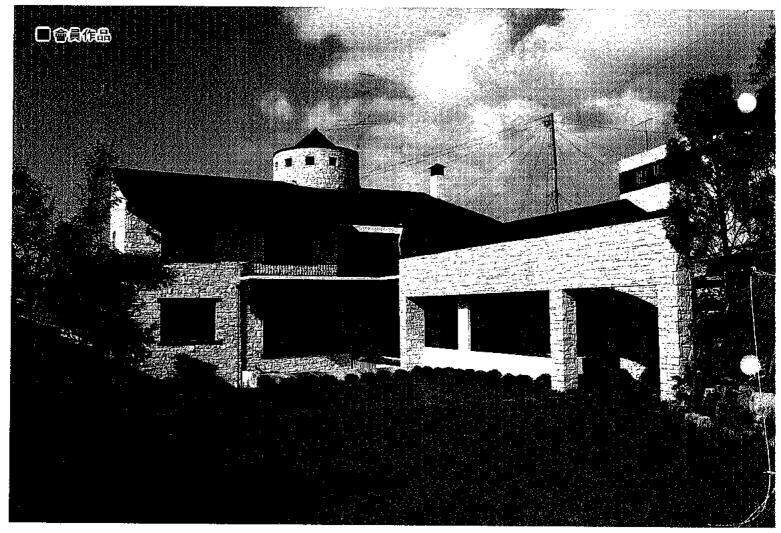
■ 설계소묘

배치에서는 전면 주 도로와 북측면 가로의 코너에 위치한 본지점의 대지 형상에 따라 전면 도로에 면하여 영업장과 객장을 두었고 남쪽방향에는 직원들의 후생시설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영업장 및 객장에는 대형창으로 처리하여 영구음영을 고려한 밀러그라스의 효과를 외장과의 조화로 연결해 보았다.

특이한 대지의 전면 코너부분엔 계단실의 삼각형 형태를 도입하여 코너창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연광의 효과와 Green 인테리어의 기능을 투사성 파사도로 형태와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외장 Covor는, 신탁은행의 지점 건물에 주로 사용하는 갈색계료에서 포천석으로 선택하고 종래의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Mass 를 추구함으로써 발전적 조형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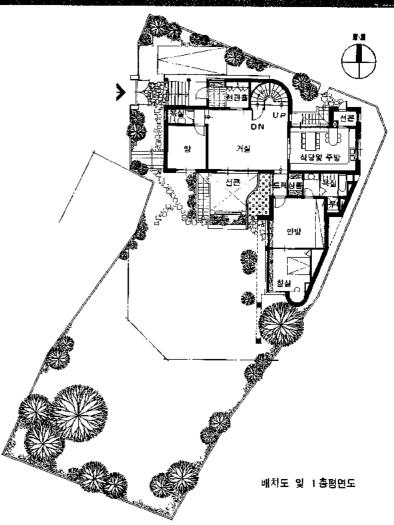
青岡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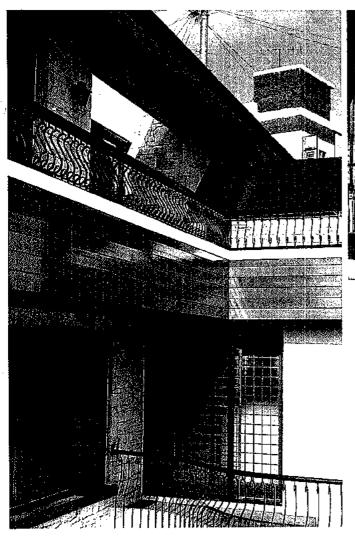
Han's Residence Designed by Han, Jae-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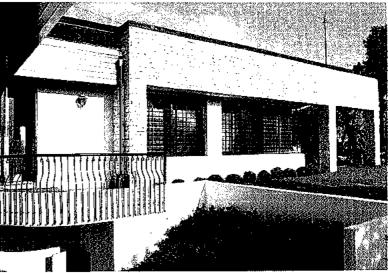
韓在源 /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427-3/585-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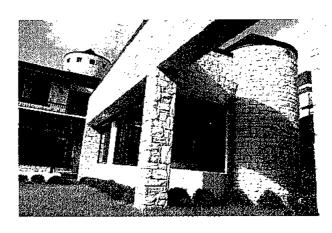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남 천안시 문화동
 지 역/상업지역
 대지면적 / 441.6㎡
 규 모/지하1 중, 지상 2 총
 건축면적 / 169.0㎡
 연 면 적 / 313.9㎡
 건 폐율 / 38.3%
 용 적 율 / 55.1%
 외 장 / 중주백석치장쌓기, 이스발트슁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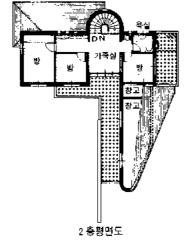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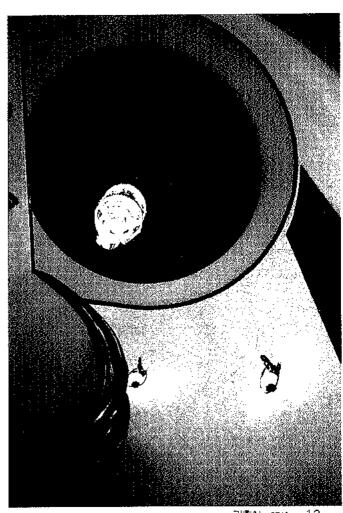












건축AF 87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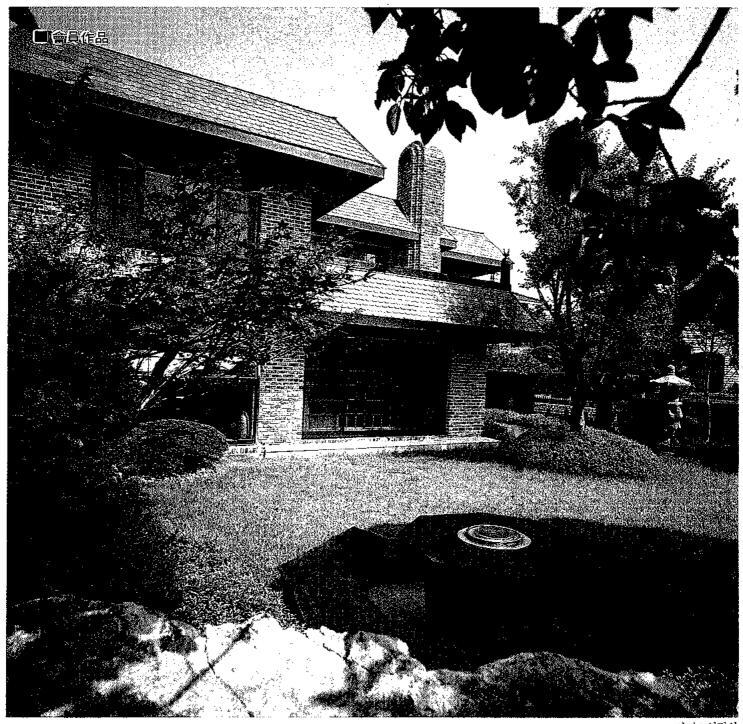


사진 : 임정의

방배동H씨댁

Pangbae-dong H's Residence Desined by Kim, Deuk-Soo

全得洙 /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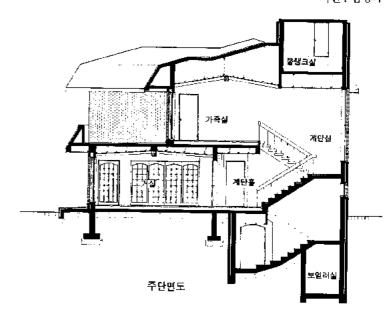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 1 가 302-2 / 633-9567

-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 □ 대지면적 / 461, 68㎡ □ 건축면적 / 지층 = 7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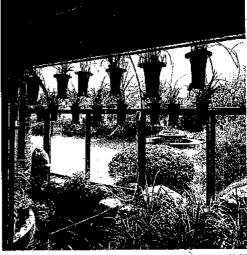
1층~135,25㎡

2층=119,29m

- □ 연 면 적 / 329, 69m²
- □ 건 폐울/31.38% □ 용적율/55.13% □ 구조/조적조
- □ 외장재료/외벽 = 파벽돌차장쌓기 지붕 = 전연스레이트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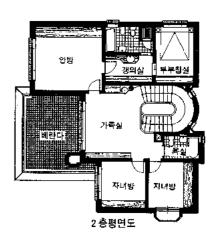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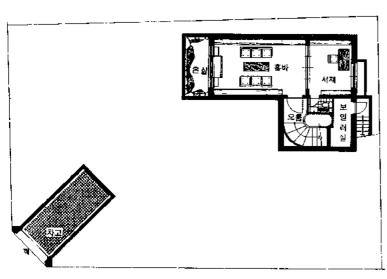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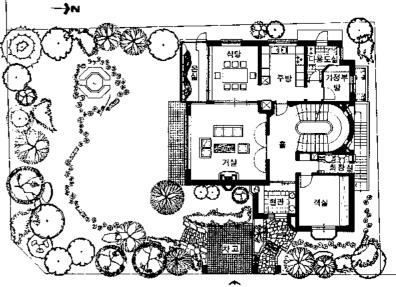














베어스타운 유스호스텔

Bears Town Ski Resort Youth Hostel Designed By Park, Kyu 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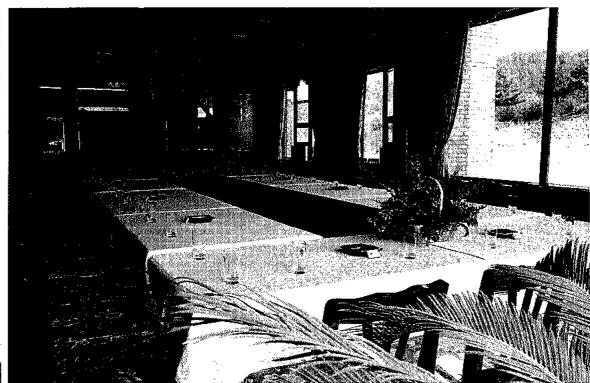
朴奎永 / 예건사 오성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 가 368 / 313 - 23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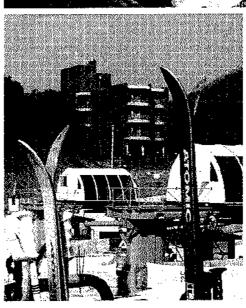
- □ 대지위치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소학리
- □ 대지면적 / 4, 927, 85㎡
- □ 건축면적 / 849. 33㎡
- □ 연면적/2,996.31㎡
- □ 건축규모/지상 4층
- □ 구 조/철근콘크리트라면조
- □ 외장재료/변색벽똘치장쌓기, THK18mm반사유리
- □ 건 폐율/17.53%
- □ 용 적 월 / 60,80%
- 🗀 시 공 차 / 일신진흥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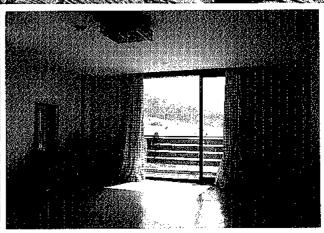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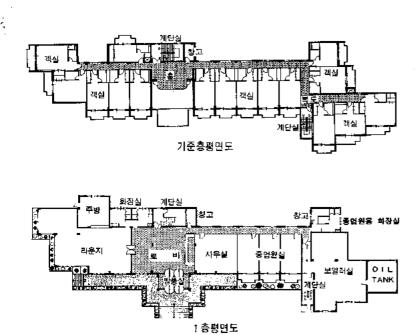
배어스타운 스키장 내에 자리잡고 있는 본 건물은 청소년 스키어들을 위한 유스호스텔로서 단지 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기준의 스키장 시설 (클럽하우스, 렌탈하우스) 과외 연관 관계를 고려, 배치하였다. 천연적인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에 순용하는 배치와 기존 건물과외 조화를 위해 외판 계획을 하였으며 자연 조경상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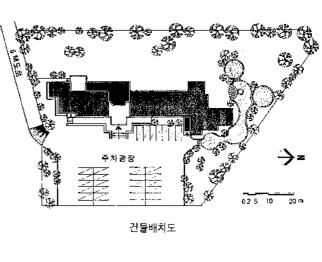
평면구성은 각층의 홀욜 중심으로 왼쪽을 여학생 Zone, 오른쪽은 남학생 Zone 으로 양분화시켰으며, 각 실의 배치는 실 내부에서 스키장의 슬로프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1층에는 청소년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와 넓은 로비를 두어 대화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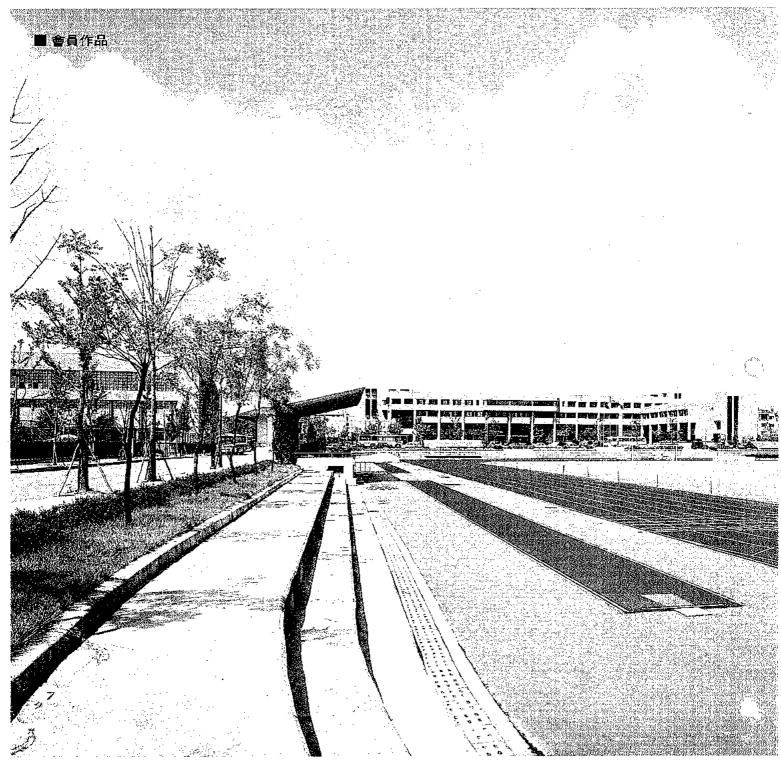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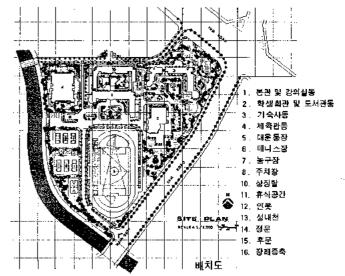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

Korean National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Designed by Ra,Eun-Taek

羅殷澤 / 세원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 가 89-27 / 735-0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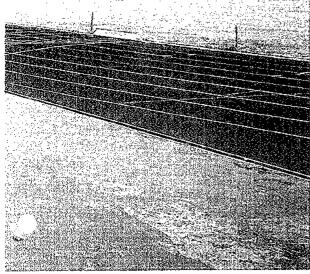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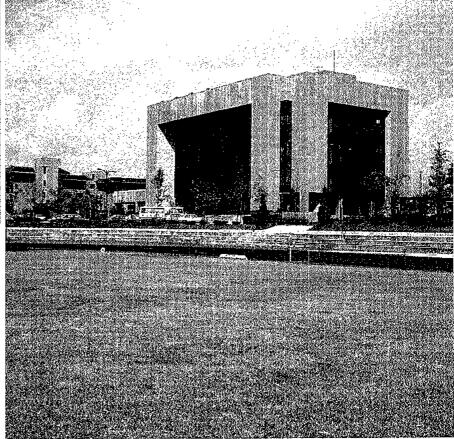
사진 : 임정의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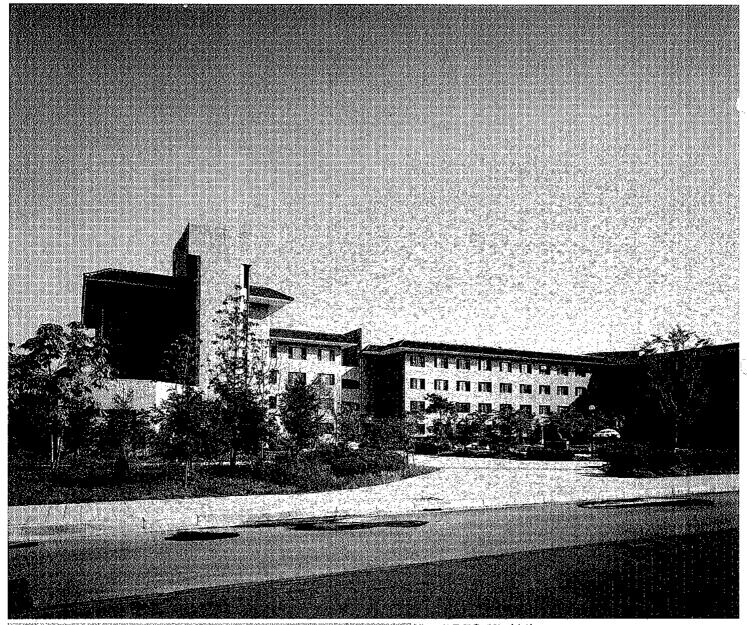
- 대지위치/서울시 경동구 가락토지구획정리지구 608-6 (올림픽공원단지내)

 대지면적 /99,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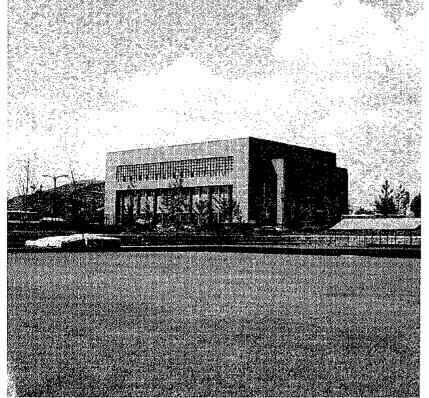
 기초대자 / 200㎡
- □ 건축면적 / 9, 966. 2m²
- □ 연면적/30, 227, 8㎡ □ 구 조/절근콘크리트라멘조및 절골트러스
- □ 외장타일/자기질외장타일□ 동병면적/본관 및 강의동=8,081,9㎡ 학생**화관** 및 도서관=5,308.9㎡ 기숙사=8,279.4㎡ 체육관=8, 433. 3㎡ 수위실 및 기타=124.3㎡



- 1. 한국체육대학 전경
- 2 . 본관 로비
 - 3. 학생회관 및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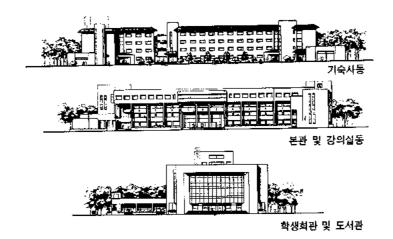


. ▲한국체육대학 기숙사 《세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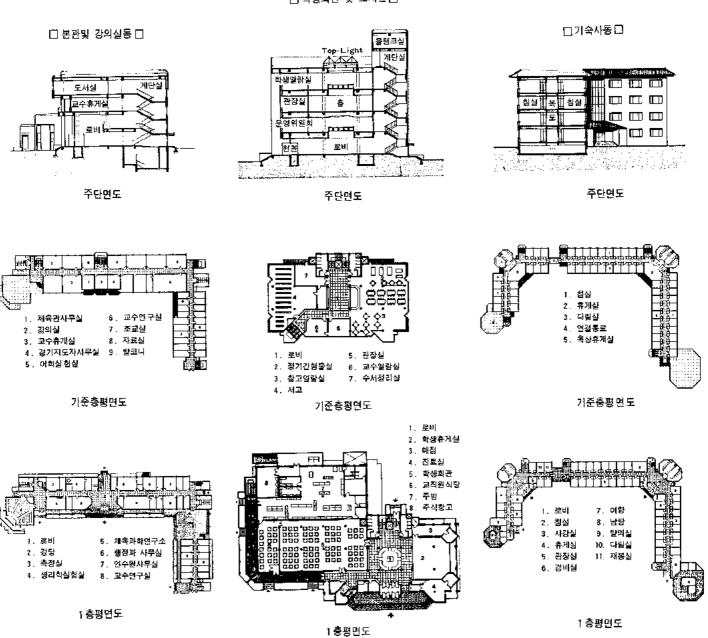


▲기숙사 출입구 상세



각동정면도

□ 학생회관 및 도서관□



民主化에 対한 우리의 視覺

— 建設技術管理法案은 廃棄되어야 한다 —

지금 國會에 상정되어 있는 建設技術 管理法案은 「6·29선언」이후의 전국민의 뜻인 社會의 민주화 그리고 自律化 흐름에 역행하고 民族文化発展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범이 原案대로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乱麻로 얽혀 있는 건설관련 法体係와 행정은 더욱 혼란상태에 빠져들 것이고 이 범이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건설기술의 水準向上과 建設工事의 適正施工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建築士들에게 있어서는 建築設計作業의 필요불가결한 과정인 工事監理를 단절시킴으로써 建築士의 역할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은 안일한 行政便宜主義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분석을 거치지 않고 皮相的인 觀察과 即興的 発想으로 問題해결을 추구하는 硬直된 관료적 자세의 産物이다 이 法의 출현경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法은 昨年에 불이나버린 獨立紀念館의 잿더미 속에서 잉태되었다. 독립기념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한 電氣技術者의 잘못때문인가 하더라도 그 근본원인은 拙速한 事業推進方式, 無理む 工期, 非合理的인 下都給制度, 不分明한 공사수주 過程등 社會全体가 또는 建設業界의 構造的 모순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대적 전체를 보기 두려워하는 자는 부분만을 물고 늘어진다. 정부는 구조적 実相을 덮어버리는 수단으로

기술적 측면인 건설공사의 불합리를 내세웠다. 짧은 기간내에 획기적인 "아이디어"제출을 宿題로 부여받은 관료들은 별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생색은 쉽게 나는 처방을 내렸다. 새로운 法과 새로운 機構가 그것이다. 정부의 技術審議를 거치면 설계가 완전해질 것이고 (案5조, 案23조) 技術人力을 정부시책으로 관리하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案6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建設技術용역의 수준을 높힐 수 있다. (案20조) 또 정부가 品質試験을 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이 향상되고 (案24조) 정부에 등록된 대형감리전문회사가 監理를 하면 공사의 품질이 보장되며(案27조) 政府가 설계 및 施工基準을 정하면 건설기술이 향상되고 先進化된 공사관리가 이루어진다(案34조) 이런식의 安易한 発想法은 경직된 관료기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作態 이다. "웃분"뜻을 그럴 듯하게 호도한 수만 있다면 결과가 藥이 될지 毒이 될지는 상관할 바가 없는 것이다. 대체로 그럴듯한 감언과 억지로 어지러운 때를 노리고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者때문에 일이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병을 고치는데 허둥지둥대며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는 의사는 환자름 만신창이로 만든다. 사회의 전반적 풍토가 專門家의 判断보다는 非專門家인 소위 "윗분"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하에서 "技術審議委員會"의 設計審議中"監理專門會社"의 監理監督이 무슨 의미가 있으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審議과정(무수한 審議委員會들이 있다)과 認許可節次만으로도 建築士나 技術者들이 관청을 쫓아 다니기 바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데다 빼앗기니, 어떻게 좋은 작품과 기술개발, 품질 향상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새로운 범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 기회에 기존의 복잡한 認許可節次와 심의절차를 과감히 간소화시킨다면 건축사, 기술자 등 여러 專門人들이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이 法은 建築設計의 建設技術用役의 本質的 差異를 간과하고 있다. 建設技術用役이 経済活動的性格이 강한 반면 建築設計는 文化活動的性格이 강하다. 建築設計는 한 나라의 文化的性格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建築士를 다른 建設技術者와 다르게 취급을 하며 一般 建設法수과는 別個의 다른 法体系下에서 設計行為를 하도록 배려를 한다.

불행히도 우리의 건축활동의 수준은 그 료에 있어서나 그 質에 있어서나 그 質에 있어서나 선진국의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그 원인은 日帝식민지강점과 해방후 혼란, 6·25 전쟁 등으로 건축가라는 전문 분야가 제대로 뿌리를 못내렸기 때문이다. 건축사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말이었고 당시 建築士의 숫자는 불과 몇십명에 불과하였다. 설계다운 설계가 발주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건축설계 일의 대부분은 관청 허가

이 法은 우리나라 建築設計의 轉換期的 狀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는 建築設計를 建設技術用役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案 2조) 뒤에 가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였다. (案40조) 이 혼동은 두가지 잘못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建築工事監理가 建築設計의 必須的인 過程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업무였으며 설계사무소종사자들에게 建築士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에는 그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 1963년 말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상당수는 書類銓衡등으로 면허를 받았다. 그후 7년이란 응시자격 연수를 5년으로 선심쓰듯하면서 기술사 (7년) 의 하위에 위치하게 하였으며 심자어 특별전형의 본 취지를 이탈하여 공무원에 편중하는 듯한 오해와 회원간 불협화의 소지를 양산하고 있다.

양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가피했던 歴史的 経過 또는 一時的 천상 때문에 건축사의 본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에서 몇백년간에 걸쳐 다듬어 진 건축활동의 세련성이 어찌 30년도 안되는 기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建築上法과 行政, 제도 기구를 수백번 바꿔본 둘, 소용이 없다. 그 바탕이 형성되고 자질을 갖출 建築士의 숫자가 늘어나면 건축설계 본연의 創浩的 기능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이 法은 우리나라 建築設計의 轉換期的 狀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는 建築設計를 建設技術用役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案2조) 뒤에 가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였 다. (案40조) 이 혼동은 두가지 잘못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建築工事 監理가 建築設計의 必須的인 過程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王宮을 짓거나 뒷간을 짓거나간에 상황변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것이 집주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릴 수도 있다. 어떤 종류의 상황변화건간에 가장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설계를 맡았던 建築士이다. 흔히 비유되듯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갈이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을 조정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建築士만이 그 建築物에 관한 가장 폭넓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전문기술자보다도 시행착오를 저지를 확율이 가장 낮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축사에게 工事監理者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美国建築家協會(AIA)가 발간한 指針書에는 "工事監理"란 말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말로 工事段階에서의 건축사의 업무. (Baisc Service Consturction Phase)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공사감리라고 부르는 과정은 建築士의 고유한 業務 (Basic Service)에 속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그러니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설계 자체의 성격이 그렇다는 애기다. 둘째는 용어를 잘못 선택하였다. 이 法에서 定義하고 있는 "施工監理"란 개념은 法의 전체문맥으로 보아 施工管理(Construction Management) 에 해당한다. (Supervision은 공사감리가 아니다.) 工事監理 (Inspection)란 용어가 建築法과 建築士法에서 이미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널리 通用되고 있는 마당에 질적으로 별개의 개념인 施工管理를 接頭語만 바꿔 끼워

施工監理란 용어로 부르게 되니

혼동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孔子가 이름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正名)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수천년전에 말한 바 있듯이 施工監理 대신에 施工管理(Construction Management)란 이름을 붙였으면 案40조와 같은 엉뚱한 條文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③ 이 法은 民族文化 보호자로서의 정부역할이 倒置되어 있다. 이 법은 建設技術用役業의 合作投資量 장려합으로써 (案22조) 국내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힌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語不成說이다. 마치 양담배를 수입함으로써 국산담배의 경쟁력을 높힌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외국에서 技術用役市場을 개발하도록 압력이 들어와도 이를 막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외국용역업체보고 국내에 들어오시라고 나서는 것은 이 提案者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어 갈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 건축물의 설계나 대형 건설사업의 技術用役이 외국업체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 국내 建築土나 技術者는 一個 심부름꾼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한 판국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장려한다는 것은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 따름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아 이 法案은 시대의 호름에 逆行하는 官主導, 行政便宜主義, 屋上屋의 節次, 為人設官, 論理의 취약, 예상되는 副作用, 비능률, 民族利益의 훼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全面 廃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7. 9. 26



大韓建築士協會의

國際交流事業계획의 일환으로 급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리는 국제건축가협회(U.I.A) 총회 참석 및 구라파 6개국과 홍콩, 마카오 등의 도시계획 및 유명 建築物 見學을 위하여 참판단을 구성해 서울지부회원 17명, 지방회원 14명, 도합 31명이 한달간의 짧은 준비기간에 제반 수속을 마치고 1987. 7.8 오후 8시 Paris 행 KE 901편 항공기에 탑승해 18박 19일 동안의 여행길에 장도에 올랐다. 이번 여행의 일정등은 정해진 기간동안에 많은 나라와 여러 도시를 다녀야 하는 제반 문제등을 감안하여 협회 安箕泰회장님과 여러 임원들과, 禹南龍 난장과 참가회원들 그리고 여행사 측이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세밀한 스케쥴을 작성하여 가급적 중도에서 일정을 변경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짜놓았다.

김포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어두운 밤하늘을 마치 정지해 있는듯한 느낌을 주면서 날고 있었다. 無限天空이 토해내기가 무섭게 삼켜버려서인지 宏音도 잘 둘리지 않는 것 같았다. 여행은 이미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출발하기 머칠전부터 우리가 가 볼 도시들의 유명한 곳과 풍물과 특징들에 대해서 간혹 메모도 하고, 가지고 잘 휴대품도 하나씩 준비를 하였으니 벌써 마음은 여행길에 나선 셈이다.

사실이지 복잡한 세상 雜事에서 단한시도 떠날 수가 없고 사무실 동료들과 가족의 생계가 매달린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게 요즈음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가끔흔들리는 기체내에서 몇시간 후면 눈앞에 펼쳐질 말로만 듣고 책에서만 보아오던 도시들을 그려보며 이왕지사 떠나왔으니 만사 다 잊고 자유를 만끽해 보자고 생각하자.

도중에 알라스카의 앵커리지 공항에 약 1시간 경유한 비행기는 북극항로를 따라 장장 18시간의 긴 비행 끝에 Paris 의 샤를르 드골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시각 새벽 6시 40분이었다.

Paris (1987, 7, 9)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대형 Bus 의 창가로 Paris 의 아침 햇살이 비추면서 덜리 시내의 建物들과 樹木이 눈에 들어왔다. 도로마다 물밀듯이 밀려왔다가 질서정연하게 사라지는 자동차의 행렬들, 프랑스의 인구가 5천5백만명인데 자동차 댓수가 2천만대라고 하니 성인은 모두 한사람이 한대씩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주차난, 공해문제, 교통사고 등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멀지않아 우리도 성인 1인당 자동차 1대씩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크게 놀란 것중의 하나는 도로주변이 너무나 지저분한 것이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Paris 외 길거리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으리라고는 차마 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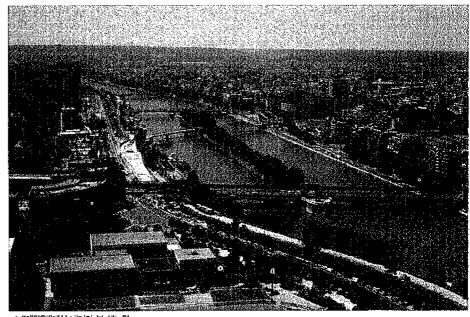
못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연유가 또한번 경탄 할 만하다. 서기 1860년에 오스만의 都市計劃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춘 파리시는 2천년의 역사와 함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처음 도시계획을 수립 할 당시에는 마차가 시민의 발이었는데 장래 많은 수의 마차를 소화시키기 위해 도로폭을 넓게 만들었으며 많은 말들로부터 나온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의 양편에 上水道를 연결하여 오물들을 청소하도록 하였으며 그 씻긴 오물 섞인 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도시계획은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한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난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강행군이 시작되었으며 우리 일행이 돌아 본 각각의 건물과 유적지를 간략히 기록해 본다.

፠ 베르사이유 궁전

보루봉 왕실에서 루이 14세, 15세, 16세 시대의 107년 동안 사용하였던 王宮으로 그 시대의 호화의 극치를 이루었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건물 한면의 길이가 680 m에 달하고 정원의 1면의 길이가 8km나 되며 동원된 인부가 3만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廣場 중앙에는 루이 14세의 기마상의 위용이 당당한 모습으로 Paris 시내쪽을 향해 있고 건물 내부에는 왕실 교회를 비롯하여 태양의 방, 머큐리 신의 방, 아폴로의 방, 전쟁의 방, 평화의 방, 왕비의 침실, 젠틀맨스 룸, 왕실 식당이 있는데 각 방마다에는 왕실의 역사는

물론 프랑스의 역사를 그린 벽화와 천정화 그리고 성화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 세느강

▲"에펠탑'에서 내려다 본 세느강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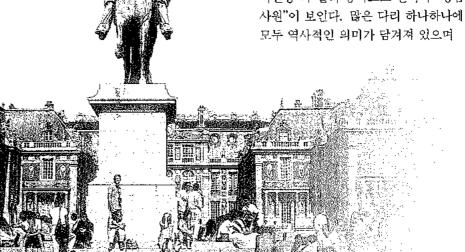
서기 1860년에 오스만의 都市計画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춘 파리시는 2천년의 역사와 함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99

▼베르사이유 궁전과 루이 14세기마상

갔다. 빠떠무슈라는 觀光船을 타기 위해 "협외회 강변로"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황금빛 찬란한 강물이 흐르고 영통한 구슬로 엮은 다리가 있으리라 상상하던 내 생각과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흡사 강남의 탄천의 물색깔보다 더 누런 물이 흘러 내리고 많은 다리들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프랑스인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세느강을 찾아와서 강물을 내려다 보고 詩롤 읊는 가를 알 것 같았다. 1시간 15분 남짓 유람선을 타고 오르쎄 강변로를 돌아오는 동안 30여개의 다리를 지나게 되고 강가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 예를 들면 "19세기 박물관", "프랑스 학사원", "노트르담 성당", "파리 시청", "에펠 탑", 그르넬 다리위의 "자유의 여신상"과 멀리 몽마르뜨 언덕과 "성심

우리 열행은 일정에 따라 세느강으로





▲ "라 데빵스"의 현대식 건물들

많은 예술가들의 혼신의 힘이 다 바쳐져 다리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때마침 우리 일행이 빠리에 있는 동안은 날씨가 쾌청하여 많은 파리장들이 세느강변에 나와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 라 데빵스

파리의 新市街地로서 기존의 시기지에는 현대식 건축양식을 거부함에 따라 새로운 시가지를 건설하기 시작 했는데 퐁피두 대통령이 호응하여 1976년도에 본격적인 사무실 들이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GA 시 보험회사, 백화점 등 많은 최신식 Office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적인 선을 자랑한다는 샹젤리제 거리와, 개선문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The Great Arch of La Défense" 는 지난 3월에 고인이 된 덴마크 건축가 I.O.Von Spreckelsen 이 설계를 맡았으며 1898년에 완성 될 거대한, 속이 빈 입방체로서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지만 파리의 명성을 굳건히 할 상징적인 건물중의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 건축가는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1982년 1월 어느날 아침 La Defénse 광장에 가서 "기능적,기계적, 도시적이고 특히 상징적인 차원에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하고 순수한 건축적인 방안의 스켓치를 했다"고 전해자며 그의 스켓치가 심사위원에

의하여 같은 느낌으로 받아 들여짐으로 현상설계에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

泰 몽 빠르나스 묘지

카토릭 공동묘지로서 Jean Paul Sartre (1905~1980)의 묘지 등이 있다.

※ 룩상브르 공원

앙리 4세의 부인 마리드 메리치가 건설하였으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생기기 전에는 이곳을 본초자오선으로 사용하였으며 역대 왕비의 동상이 일열로 정연하게 세워져 있다.

券 빵떼용 국립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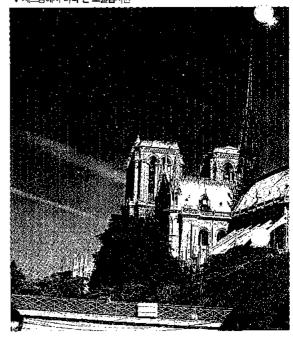
2백57명의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국립묘지 건물의 옥탑 Parapet 에는 "위대한 사람에게 조국은 감사한다"라고 쓰여있으며, 장자크 루소, 빅톨 위고, 장 몰렌 등 현재까지 53명의 고인이 잠들어 있다. 이곳에 묻히려면 일생의 허물이 없어야 하며 역사학자들이 진정으로 국기를 위하여 빛낸 사람이라고 추천하여 국회에 통과한 자만이 묻힐 수 있다.

※ 노톨담 시원

균형과 조화면에서 프랑스 고딕 예술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노트르담"성당은 서기1163년에 "모리스 드 쉴리"

대주교에 의하여 건축이 시작되어 1330년 완성되었다. 그후 프랑스 대혁명 때 경매에 붙여 포도주업자가 낙찰을 받아 한동안 술창고로 사용되는 등 많이 손상되어 나폴레옹의 대관식 때에는 회칠을 하여 폐가가 되다시피 하였다. 그 이후 19세기 말에 "비욜레 듀크"에 의하여 18년간의 보수공사 끝에 정식 복원이 되었다. 고도의 건축기술을 보여주는 이 성당은 종탑의 높이가 69m 이고 첨탑까지는 110m, 성전의 길이 129m, 폭은 44 m, 천정고 34 m, 전체 면적은 5,500㎡에 달하는 대규모일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버팀 기둥과 내부의 다발 기둥, 스테인드그라스 창과 종탑의 조각작품 등은 모두가 성당건축 전문가의 손에 이루어져, 각 부분이 종교적 의미를 해석, 상징하고 있는 바 "서양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번성할 시기에는 9천 여명의 신도까지 수용했던 이 성단은 또한 박해받는 사람의 피난처로 강가 철책 너머에는 2차대전 때 유태인 강재수용소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지가 있다. 그 수많은 조각 작품들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각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곳 Paris가 수억년전에 바다속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땅 속의 석회질 화강암은 막 캐내면 무척 연하여 조각하기가 쉬우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차츰 단단해져서 아주 강한 돌이 된다고 한다.

▼ 세느강에서 바라 본 노름답시원



緣 뽕삐두 예술문화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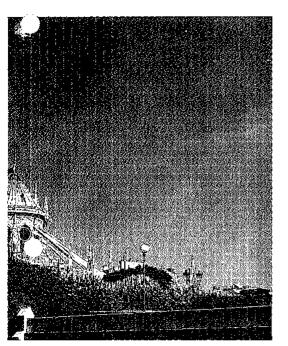
20세기가 낳은 10대 명물중의 하나로 꼽히는 건물로서 조립식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모든 중앙 집중식 기능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전시장과 도서관, 세미나실이 있으며 외부공간에는 사시사철 놀이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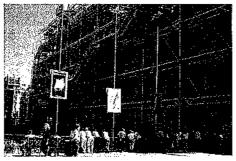
豫 몽마르뜨 언덕

도시 전체가 예술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 파리는 바람조차도 향기롭다. 마치 예술로 존재했다가 예술로 죽겠다는 운명적인 도시와 같다. 많은 무명 화가들이 관광객들에게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곳으로 유명한 화가촌이 있으며 많은 예술가들이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불후의 명작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상 최대의 예술의 나라가 되었고 인류의 영원한 영혼의 연인이 된 것이다. 언덕 꼭대기에 사크레-퀴르 성당이 있고 성당 앞에는 루이 9세 동상과 쟌다크의 동상이 좌우에 나란히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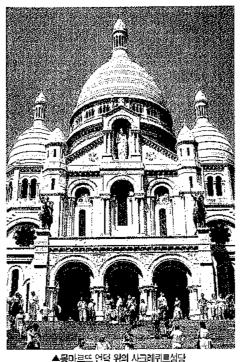
泰 Effel Tower

파리 시민들의 의혹과 반대속에 1887~89년 샤이 건축가 귀스따브 에펠에 의하여 세워진 "에펠탑"은 세계 최고의 구조물이었었다. 높이 318m, 970톤에 달하는 철골로 이루어진 이 철탑은 원래 7년 후 철거 할 예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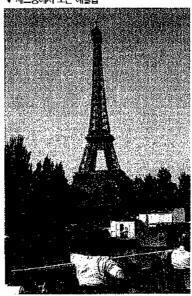


▲ 뿅삐두 예술 문화센타의 외관



▲몽마르뜨 언덕 위의 사크례퀴르성당

▼ 세느강에서 보는 예펠탑



1910년 헐려질 위기에 놓였었으나 탑의 안테나 구실을 감안하여 헤르쯔파의 조정을 위해 남아있게 되었다고 한다. 1910년에 국제무선통신이 이곳에서 최초로 실험되었으며 1921년에는 라디오 안테나, 그후 텔레비젼 안테나가 꼭대기에 설치되었다. 에펠탑은 바닥층이 3개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은 56 m, 2층은 113 m, 3층은 270 m 높이에 위치하며 각층은 대형 에레베이터가 운행되고 층마다 바와 식당과, 기념품 가게 등이 있다.

※ 루브로 박물관

Paris 여행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빼놓을 수는 없다. 소장품이 무려 26만 점에 이르며 건물의 한면의 길이가 1km가 넘는다. 처음에는 요새로 되어



있던 곳에 1500년부터 1870년까지 무려 370년 동안이나 공사를 하는 동안 여러명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고전주의에서부터 바로크양식, 로코코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건물은 중앙과 양끝부분에 3개의 Mass 를 두었고 기다란 쌍둥이 기둥이 인상적이며 대체로 단순미를 강조한 건축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이 박물관에 소장 된 작품 중 몇개만 소개한다. O 사모트라스의 승리 : 그리스 해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B.C. 190년 경의 작품으로 1863년도에 사모트라스에서 발굴했으며 머리와 팔이 없으며 매의 날개를 가진 여자모습의 조각 작품이다. ○ 밀로의 비너스 : 그리스 헬레니즘시대(B.C. 2세기 말경)의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한 조각으로

1820년에 밀로섬에서 발견되었다. 6피트 크기의 조각은 양팔이 떨어져서 없다. 이 위대한 조각은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섬세한 곡선과 유방은 공격적인 모습이고 얼굴은 강한 어머니상을 하고 있다. 이 모나리자 :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1503~1505년도 회화작품으로 모나리자라는 젊은 여인을 그린 것인데 자연을 배경으로 한 것은 인생의 여정을 나타내며 얼굴의 가냘픈 미소는 성녀 안나의 미소를 그렸고, 머리의 곡선은 시간의 영원성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 기타 "판도라의 상자", "자매", "예수의 가족" 등 많은 프랑스의 회화뿐 아니고 한정된 시간동안 우리가 돌아볼 수도 없었으며 그나마도 정해진 지면에 표기 할 수 없어 루브르 박물관은 여기에서 생략하겠다.

누가 뭐라해도 Paris 는 완벽한 도시였다. 공기 자체가 예술인 듯, 먹고 마시는 것 마저도 황홀하고 고귀했다. 참으로 그들은 생을 사랑하는 그만큼씩은 예술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 생존의 현장인 도시. 소중한 우리들의 이 공간을 시멘트나 퍼다 붓고 마구 버무려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도 잘만 만들면 이렇게 완벽한 예술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4박5일 동안의 파리 일정을 마치고 Air France 편으로 London 으로 향했다.

London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해양성 난류기후로 인해 1년중 2개월 반 정도만 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우리 일행이 런던 하드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아주 폐청했다. 신사의 나라, 전통을 먹고 사는 나라, 안개의 나라 영국.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했던 해가 지지않는 나라를 자랑하던 대영제국에 도착하니 맨먼저 대기하고 있던 판광 버스 기사가 까만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우리 일행을



▲영국 국회 의사당과 빅벤

맞이한다. 멀리서 오신 손님을 대하는데 정장을 차리고 맞이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고 한다.

길거리에 많이 눈에 띄는 까만색의 영업용 택시의 모델은 1930년부터 한번도 외형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라고 하니 여기에서부터 전통을 자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泰 ETON College

영국에서도 제일가는 신사 양성소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남학생만 있는 학교이다. 연미복 차림의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하며 학생 1인당 교수가 2명 정도이며 공부와 인생상담을 하는 방식의 특수 교육을 통하여 장래 국가의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학교이다. 넬슨 제독, 웰링론 장군, 윈스톤 처칠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작년에는 우리나라 학생이 이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단다.

券 윈저 성

심프슨 부인과의 사랑을 위하여 왕관을 버린 원저공의 이름을 딴 원저성은 영국에서 2번째의 성으로 1080년에 건립하여 역대 왕들이 900년 동안 중축하였고 30여개의 작은 성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현재는 여왕의 별궁으로 사용되고 있다.

豢 Barbican 센타

1977년에 음악과 연극학교인 길드 홀 스쿨이 완공이 된 후 예술과 문화 홀인 바비칸 센타는 1982년 3월 오픈이 되었는데, 이 역사적인 문화 예술 홀의 개관식에는 영국내에서만 3백만명 이상이 라디오와 T.V 를 통해 지켜 보았으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얄 쉐익스피어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센타내에는 2천석의 바비칸 홀과, 1,166석의 극장과 회화, 사진, 조각이 전시 되어있는 화랑이 있고 280석의 영화관이 3개 있으며 전시와 진열을 할 수 있는 작은 실내 광장이 있고 바비칸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과, 음악과 연극 학교인 길드 홀 스쿨이 있다.

恭 바오로 성당

3,0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성당으로 에델버트왕이 604년에 목조로 건립한 후 중세때에 다시 석조로 개조하였으나 1666년 런던 대화재 때 파괴되어 1675년부터 1710년 사이에 크리스토퍼 렌에 의하여 다시 복원되었으며 그는 일생동안 심혈을 기울여 이 성당을 완성하였다. 성당의 지하에는 크리스토퍼 렌의 무덤이 있으며 무덤을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싶으면 이 성당 구석 구석을 돌아다녀 보아라. 내 숨결이 쉬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곳에는 웰린튼 장군과 낼슨 제목의 무덖도 있으며 챨스 황태자의 결혼식도 이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성당의 남쪽 통로에는 홀만 헌트의 작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원본은 옥스포드대학에 기증하였고 다시 크게 그려서 이 성당에 전시해서 관광객에게 보여 주고 있다.

恭 웨스트 민스터 시원

영국의 국립묘지로서 3,000여명의 국가 유공자들의 무덤이 있으며 윈스턴 처칠, 에트리 수상, 뉴튼, 다윈, 월터 박사외 무덤이 있으며 기적을 일으킨 에드워드 성인의 무덤과 스콘스톤이라는 유명한 차돌이 보관되어 있다. 이 사원은 1245~1735년 사이 500여년 동안 공사를 하였으며 여왕의 대관식과 왕자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지냈다.

泰 대영 박물관

대영 박물관은 유일무이한 박물관이었다. 아마도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는 박물관일 것이다. 1년에 4백만명 이상이 온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 세계속의 하나의 세계였다. 영국 사람들이 아무리 신사의 나라라고 자랑하며 기증내지는 선물로 받은 물건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진귀한 보물들을 진짜로 선물동으로만 가져 왔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고대 이집트의 유물에서부터 그리스와 로마의 골동품들, 동양의 유물들 즉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고대 희귀한 유물까지 전시되어 있으며 미술뿐 아니라 서야시아의 유물과 인종학에 관한 전시실까지 갖추어 훌륭히 보관 전시하고 있었다. 과연 한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의 유산이라는 생각과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든다.

緣 London 타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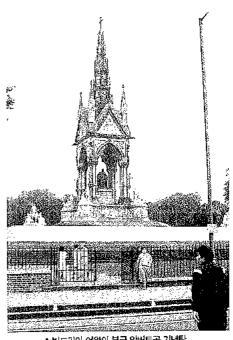
영국 최초의 성으로서 윈저 성과는 25마일 밖에 안떨어져 있으며 높이는 28m 밖에 되지 않으나 1078년 당시에는 가장 높은 성을 쌓으므로 해서 나라가 정립이 되었다고 한다.

器 Jewel House

"Star of Africa" 라는 3,106캐러트의 원석을 4개로 쪼개어 2개는 여왕의 목걸이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 중 530캐러트의 보석은 여왕의 지휘봉에 박혀있고 317캐러트의 보석은 여왕의 왕관에 박혀 있는데, 이 지휘봉과 왕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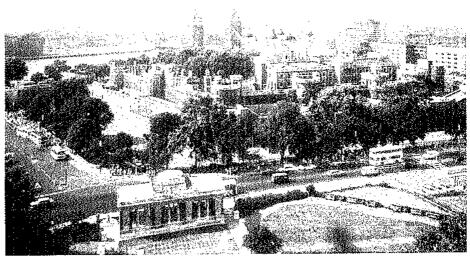
▼ 런던 타워와 타워브릿지

문전 성시를 이루며 잠시나마 감탄과 유혹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든다. 아직도 영국민은 왕실을 지극히 사랑하며 왕실은 한번도 국민을 배반하지도 않았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왕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절대왕권과 의회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아주 평화스러운 나라였다. 그러나 예전의 화려했던 역사는 차츰 쇠퇴하여 가고 무언가 침체되고 쇠퇴해 가는 인상을 받았다.



▲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알버트공 기념팁





韓国近代建築의 再照明(6)

金晶東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by Kim, Chung-Dong

34. YMCA 會館

위 치:종로2가

착공년월일:1907, 11, 7, 준공년월일:1908, 12, 3,

설 계 자:B.C.Donham

시 공 자:Harry Chang(中国人)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충별:지상3, 옥탑1 대지면적:960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600평

보존상태:1950년 소실

基督敎 靑年會는 미국인

P.L.Gillett 의 주도아래 貞洞 Union Club 에서 1903년 10월 28일 발족되었다. 이 때의 명칭은 「皇城 基督教 靑年會」였다.

청년회는 그 회관을 종로 한복판에 세우기로 하였다. 그 위치는 1900年 이미 신축된 「韓美電氣會社」의 右側邊 이었다."

YMCA회관은 1907년 착공하였다. 당시로는 서울의 최고층인 지상 3층의 英國式洋館으로 설계되었다.

이 건물에 대하여는 Hulbert, Gale, 梅泉(黃玹)에 의하여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Hulbert 는

『··· John Wanamaker ² 씨의 아낌없는 우정으로 YMCA 는 서울에 깔끔하고 넓찍한 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梅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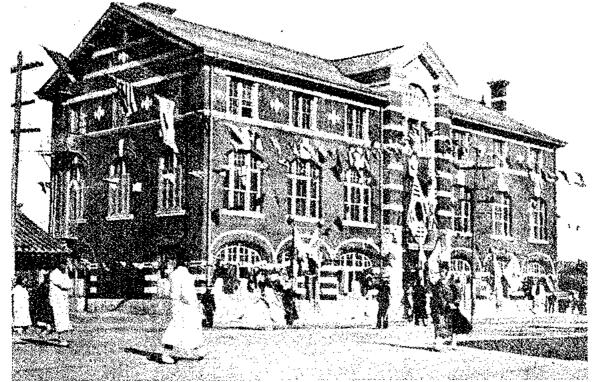
『…그리스도교 청년 회관이 낙성되었다.

회관을 상량하에 皇太子(李垠, 11세)가다니 갔으며 친히 상량한 年月을 쓰고 돈 1萬圓을 내렸다. 일본인 目賀田도 2萬圓을 기부하였고 美國정부도 10萬圓을 기부하였다." 회관이 낙성되니 집의 높이가 山과 같았으며 鍾峴의 敎堂(明洞聖堂)과 함께 우뚝 솟아 南北에 마주서니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이 되었으며 예로부터 公私 청사건물이나 집이 그만한 것이 없었더라…』⁵⁾ 또한 Gale 은 『…서울에 YMCA 의 새 건물이 방금

『…서울에 YMCA 의 새 건물이 방금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도시의 중심이자 나라의 중앙에 서 있다. 이 건물은 明洞聖堂과 新宮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YMCA는 대지 면적 약 960평에 연건평 약 600평을 차지하는 지상 3층의 벽돌조(石材 일부 혼용)건물이었다. 건축 설계의 감독은 B.C.Donram 이 했고 시공은 중국인 Harry Chang 이 맡아했다." (그는 후에 새문안교회도 시공했다.)

1908년 12월 3일 준공된 YMCA 회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층; 5個의 木工室과 鐵工室, 2個의 教室, 5個의 店舖, 食堂, 沐浴室 등 2층; 講堂과 體育室, 親交室, 事務室 등

3층 ; 一般教室, 敎職員室 등 난방은 증기 장치로 했고 건축 자재는 외국 수입품을 많이 썼다.



▲회관落成式무렵, 태극기가 걸려있다(Gale의 轉換期의 朝鮮,1909)

건물의 의장은 청면 Pavillion 부에 크게 관심을 쏟았다.

窓線들은 매우 다양하게 과장되어 표현됐는데 1층 창의 Arch 곡선은 戲畵的이기도 하다. 2・3층의 窓臺線은 불규칙하게 처리되었다. 이 회관의 강당은 「아스토하우스」"이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음악 공연장으로 쓰였고 그 외예도 계몽 강연회, 환등회, 도론회, 각종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뤘다.

1916년 會勢가 팽창하자 YMCA 는 건물을 중축했다.

중촉은 同型, 同規模로 도로변을 따라 수평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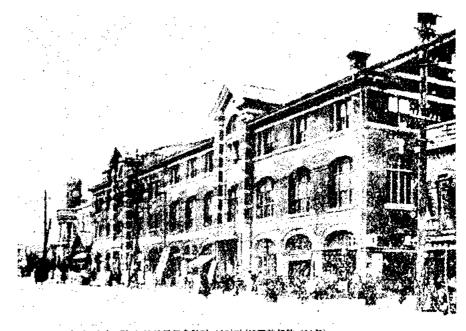
따라서 정면 Pavillion 은 2개로 늘어 났다. 工業部의 Space, 運動部의 Space 가 각각 확장되었다.

8. 15해방후에는 공개 집회장소로 사용되다가 1950년 6. 25동란을 만나 회관은 과뢰군의 방화로 완전 소실 되었다.

体戰후인 1953년에는 희관 再建운동을 추진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었다가 헐어버리고 1960년대에 세 회관을 세웠다(1960~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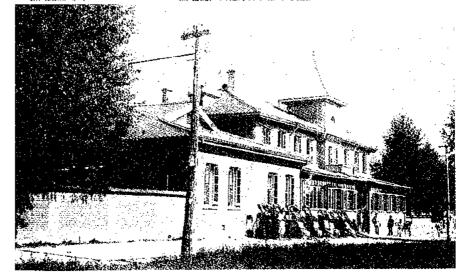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새 건물을 설계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image 繼承이 조금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鍾路의 歷史, 建築의 歷史를 모두 버리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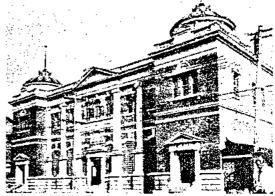
▲1916, 중축된 희관, 멀리 韓美電気會社가 보인다(韓国基督教 100年)

▼新門路소재의 Astor House Hotel(鄭晋錫,大韓毎日申報의 裴説)





▲1934년의 鎭路거리, 左端이 YMCA會館(高麗大 70年誌)



廣通舘 新築直後(尹一柱,80年史)

□註□

- I. 입시 회관은 仁寺洞 중앙 예배당에 두고(1903, 11, 11) 새 대지를 매입했다(1904.5), 그 곳이 현재의 YMCA 이다.
- 2. 美國의 前 체신장관이며 백화점의 王이었다.
- 3. H.B.Hurbert,「大韓帝國史序說」, 中福龍 역, 探究堂, 1979.2, p. 438.
- 4. 銀으로 만든 흙손 2자루도 내렸다(「YMCA 史」, p. 29. 日本人 財政顧問 目賀田種太郎(男爵)은 당시 재정관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 5. 黄玹의「梅泉野錄(1885~1910의 기록), 國史編纂委員會, 1971, p. 441.
- 6. J.S.Gale Korea in transition (1909), pp. 145~146.
- 7. 「韓國 YMCA 運動史(1895~1985)」, 대한 YMCA 언맹엮음. 1986.4, 路出版, p. 29.
- 8. 신축시의 건물 명은 「皇城基督教 靑年會 會館」이었다. 1913년 3월 日帝 경찰은 YMCA 건물 正面 위에 새긴 "皇城"이란 두 글자를 쪼아냈다. 이 때부터 우리는 "皇城"이란 두 글자를 쓸 수가 없었다.
- 9.「아스토하우스」는 法人(프랑스)旅館으로 Martin 이 강영했다. 서울 新門路에 위치하며 Europe 式 분위기를 떠고 있었다. 1910년대까지 上流層 開化人들이 주로 출입했다(李相萬、 「韓國音樂百年」。이 Hotel 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추출, 후술키로 한다. (Astor House Hotel)

35. 廣通館



火災幸 목구된 廣通館(朝鮮郵便般株25年史)

치 : 남대문로 1-19 착공년원일: 1907. 5. 4. 준공년월일:1909. 7. 3. 설 계 자:度支部 建築所 시 공 자:竹中工務局(?) 건축규모:구조:박돌+석조 대지면적 : 460평

충별:지상2, 옥답1. 건축면적 :

연 면 적:234평

보존 상 태 : 한국상업은행 종료지점

청계천 朝興銀行 본접 옆에 현존하고 있다."

관통관은 大韓天一銀行이 1907년(大韓帝國 隆熙 元年) 5월 4일 度支部 建築所로 부터 認許를 받아내 세워지게 되었고 이후 建築所의 설계, 감독하에 모든것이 이루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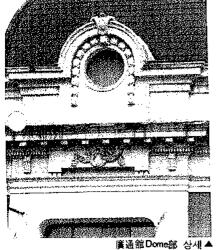
1908년 10월 14일에는 상량식이 거행되었고 신축 行舍는 1909년 7월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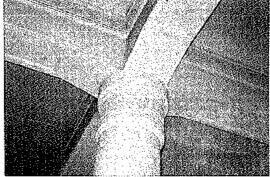
460평의 道路邊 대지에 正南向으로 立地하고 234평의 연면적을 갖고 있다.

이 곳에 廣通橋(瑞隣洞 12번지 부분)과 小廣通橋(南大門路 1가 23번지 南쪾)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이름은 「廣通館」이라 불리게 되었다.

광통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점포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財政顧問에 의해 은행관계 집회소의 용도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2층 건물로서 외부 벽체는 붉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마감했고 基壇部 현관(正面 1개, 側面 2개 설치) 및 창틀 등에도 石材를 사용했다. 특히 지붕 양 side 에는 높이는 낮으나 커보이는 바로크식 쌍 Dome 을 두어 작은 건물에 경제를 무시(?)한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당시의 기록대로라면





▲内部, 柱頭와 Haunch상세

▼現在의 銀行



5..·南大門에 의젓이 서 있는 가장 훌륭한 근대적 건물이었고 端雅한 고층 건물의 위용은 놀랍다…』"

고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Dome 에서 오

그것은 Dome 에서 오는 상징적 의미와 前面 4개의 花崗石村 Ionic Order 붙임기둥에서 풍기는 莊重함 때문이라 보여진다.

크고 작은 Pediment 의 조합이나 지붕면의 돌난간은 精巧함에 있어 다른 度支部 建築所의 건물보다 뛰어나다.

1914년 2월 9일 2층의 영업소에서 화재가 발생, 半燒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이후 화재 복구 공사로 원래의 건물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복구되었다(1914.12.27). 이때 Pediment 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창들은 투박해졌다. 기둥의 주요 부분도 古典的 Ionic Style 에서 折衰主義的 장식 柱頭로 대체되었다.

더욱 큰 변화는 쌍 Dome 부분에서 왔다.

Dome 온 오히려 더 커져 역비례적이다. 이 건물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의 이런 글이 있다.

『…이 屋舍는 당시의 사정으로는 輸興의 美를 과장한 魏然한 行舍이었다…』" 광통관은 이후로도 개축, 증축, 보수가 잇달았는데(1961, 11, 24), 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은 것도 아름답다"는 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주고 있다."

□註□

- 현재는 韓國商業銀行 종로지점이며, 당시 주소는 漢城 南部 太平坊 弘門洞 東行廊契 32統 5號,
- 2. 「韓國商業銀行 70年史」, p. 46.
- 3, 이 광통관에는 朝鮮郵便船(株),

- 韓一銀行(朝鮮信託)등이 입대하여 세들어 있었다.
- 4. 「村울 600年史」, 제3권, pp. 578~581, 松本茂威 "男爵目賀田種太郎", 1938, p. 422, 再引用,
- 5. 白南新, 「서울大觀」, 1955.
- 6. 拙稿,「韓國 近代 建築의 세로운 位相」, 1986, 7. 5.

36. 昌慶宮, 植物園大温室

위 치:창경궁 북단(종로구 와룡동)

착공년원일:1907. 준공년월일:1909. 9. 설 계 자:福羽逸人(日本)

시 공 자:France

건축 규모: 구조: 목골, 철재합성, 유리

충 별:지상1 대지면적: 평 전축면적: 평 연면적:178평

보존상태:改修후 현존

昌慶苑을 옛 王宮 昌慶宮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최근 완료되었다." 이 작업은 王宮을 복원하는 의미도 컸지만 日帝에 의해 그간 消滅된 우리 자신의 것을 소생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1930年代 初의 한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이 韓國의 王宮을 1907년 이후 계속 말살시켜 오면서 그것도 미흡하여 그 宮内에 유람시설, 유원지, 아동 운동장까지 만들려 했다. 그리고 "京城 少年 少女의 理想的 運動場 出現"이란 語不成說의 선전까지 하였다."

엄청난 발상이었던 것이다. 空地는 市內 도처에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우리의 王宮을 그들의 "有樂町"로 만들려 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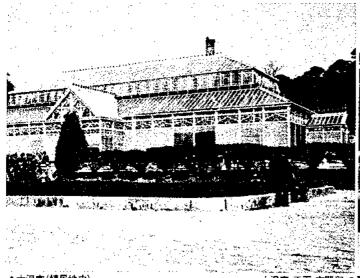
日帝 統監府는 1903년 3월(純宗 3년) 純宗을 昌慶宮에 幽閉시키면서 표을慰撫한다는 명분으로

動・植物園을 지었다. 그리고 1910년에는 朝鮮總督이 昌慶宮을 昌慶苑으로 격하시키는 횡포를 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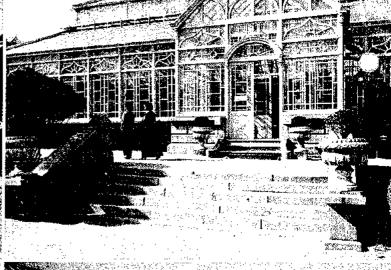
이에 의해 王宮은 歷史性과 尊戰性을 모두 상실한 채 하나의 위락 공간으로 전락되어 갔다.

밥빗꽃놀이, 어린이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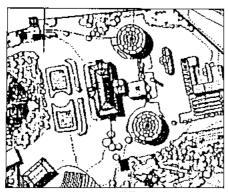
動・植物園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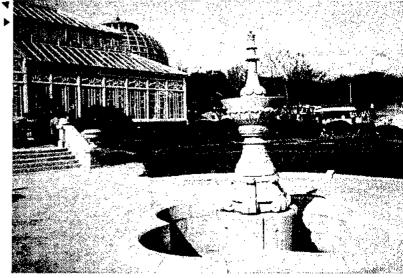
▲大温室(植民地史)



大温室과 Dome I



▲温室의 配置図



이 중 植物園의 造營 만은 건축적 의미가 남다른 것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西洋式 温室이었기 때문이다. 植物園은 昌慶宮의 北瑞에 자리잡았다." 大温室과 Dome 식 온실 2개가 群을 이루었다. 온실은 木骨과 鐵材 합성 그리고 유리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건물이다. 이미 英國에서는 鋼鐵과 유리로 세워진 건물이 1800年代에 세워지고 있었다.

1851년에는 Victoria 시대의 상징으로 大博覧會를 개최하며 그 박람회장으로 水晶宮(Crystal Palace)을 세웠다. 이 건물은 J.Paxton (1803~1865. 英)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鋼鐵과 유리로만 이뤄졌다. 수정궁의 형상은 세계 각국의 전시장, 온실 등에 한 Pattern 으로 재현되었다. 舊韓末 세워진 昌慶宮의 온실도 그

유형의 하나였다. 日本 皇室 植物園책임자였던 후꾸와(福羽逸人)는 1907년 178평의 大温室과 Dome 温室 2개를 설계했다. 당시로는 東洋 최대의 규모였었다.

시공은 France 회사가 맡았다. 1909년 9월 완공되었다. 평면은 十字型을 취하고 현관은 中央에 두고 4면에서 출입할 수 있게 小門을 냈다. 현관은 前面으로 돌출시켰고 Pediment 와 Arch 로의장 처리했다.

木材 창살은 mosque 형으로 연속배치 했다.

입면은 Clearstory 형식으로 하고 本廊 (nave) 부분은 철골 기둥으로 들어올렸다. 높이는 화강석 基壇을 포함 10. m로 했다.

이 지붕의 용마루에는 철재의 梨花(배꽃) 장식 70여개를 심었다. 대온실의 후면에는 圓形 평면을 갖는 Dome 식 온실 2개를 서로 對向하면서 세웠다. Dome 식 온실도 2단으로 처리했다. 식물원은 6. 25동란중 半破되었다. 1954년 昌慶苑 動・植物園 재건 위원회가 발족되어 이 건물을 修築했다.

補修後 植物園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Dome 식 온실 2동은 최근의 보수 공사시 철거되었다.

대온실도 이 때 철거 시비가 있었는데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존치되었다. Dome 식 온실도 대온실과 함게 보존되었어야 할 것이었는데 철거된 것이 유감스럽다.

이제 이 온실은 "勛草의 樂園"이 되었다.

□註□

- 1. $1983.12 \sim 1986.3$.
- 2. 「朝鮮と建築」, 1930.4.

- 北部 는 植物園, 中部 는 博物館, 南部 는 動物園으로 구분했다.
 (「京城便覧」, p.17). 植物園은 春塘臺의 일부를 차지했다.
- 4. 拙稿, "韓國의 西歐 建築 認識 段階", 「建築」, 1986, 5, pp. 40~43.

37. 石造殿

위 차: 정동 5-1 (덕수궁내)

착공년월일 : 1900. 준공년월일 : 1909

설 계 자:G.A. Harding

시 공 자:大倉組(完成)

沈宜錫+Sabatine+小川(初期)

건축규모:구 조:석조

총 별:지상3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I159평

보존상태: 사적 제124호

『…1년 9일을 머무르다가 高宗은 Russia 公使館을 떠나 새로이 지은 變運宮으로 돌아왔다.

慶運宮은 1896년에 지은 것으로 서울의 匹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外國의 公使館과 外國人들의 住宅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 건물들 중 어느 것은 매우 깔끔하고 건고하다…』" 德壽宮"의 가장 대표적인 洋館은 새시대의 통치수단의 하나로 세워진 石造殿이었다. "위치는 浚明堂 西쪽에 자리 잡았다. 石造殿은 1893년 이래 韓國정부의 總稅務司로 있다가 한 때 Russia 의 힘으로 거세된 후 다시 복직된 바 있는 Brown 卿의 발의에 의해 세워지게 된 것이다.

上海의 英國人 技師

G.R.Harding 에게 실계는 의뢰됐는데, 설계도 작성은 공사 착공 2,3년 전에 완성하였던 것 같다. 우선 1900년말에 기초 공사를 시작하여 1901년에 마쳤는데 이 때 감독은 韓國人으로 沈宜錫외에 Russia 인 Sabatine 이 관여하였고 日本에서 小川이란 技師도 참여했다.⁴⁾ 기초 공사에는 彰義門 부근(세검정)의 花崗石을 사용하였다. 1902년에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1903년 9월부터 大倉組의 도급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1905년 봄에는 2층 부분까지 대략 끝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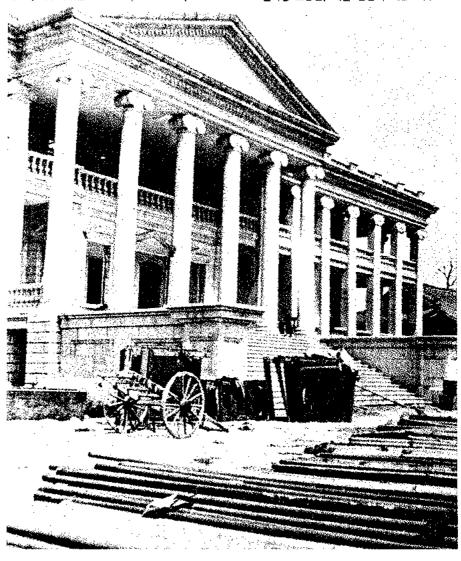
2,3층에는 東大門 밖 永風亭의 花崗石을 사용하였다.⁶ 1904년 11월 Brown 은 日本人 財政 顧問 目賀田 種太郎과 교채되고, 1905년부터는 英國人 M.H.Davidson 이 감독을 맡아 공사를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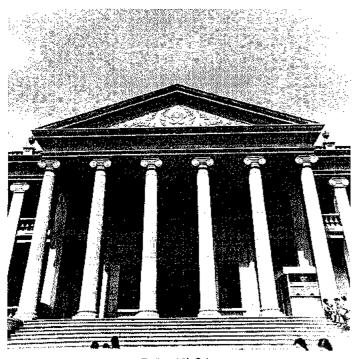
Balcony 의 옥상 난간돌은 日本 茨城縣筑 波山의 石材를 갖다셨다.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는 1910년 6월 마쳤다. 2층에 응접실 및 Hall, 3층에 皇帝, 皇后의 각 침실, 거실을 두었고 1층(半地下)에 待從人들의 거실을 두었다. 실내장식은 英國人 건축 技師 Lovell 의 설계(1907)로 이루어 졌으며™ 내부 배관 및 난방은 London 의 Crittall & Co. 가 맡고 내부 장치와 비품은 Messrs Maple & Co. 에서 맡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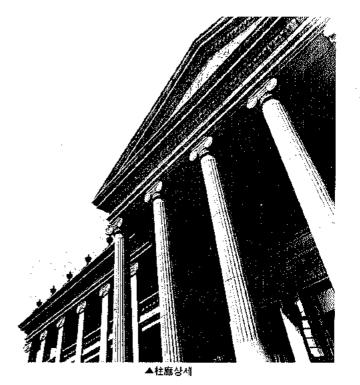
3개층의 면적 합계가 1, 200평 정도로서 韓日合併 前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유일한 純 石造 건물이었다.

石造殿의 樣式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佛, 獨, 英國에서 유행하 였고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英國의 영향으로 Colonial Style 의일종으로 유행하였던 古典主義的樣式을 재현한 것이다. 平面은 현관부를 중심으로 완전 대칭으로 하였고 진입부는 2층으로 직접 연결되었다. 입면은 6間+5間+6間으로 분할되었다. 중앙부 Pavillion 상부 Pediment 에 새겨져 있는 皇室 紋章 梨花(매꽃)가 나타내는 바와같이 舊韓國의 마지막 거대한 유물로 남아있는 이 石造殿의 細長한 Ionic Order의 colonnade 는 monumental 한 감을 준다." 기둥은 특히 円柱와 角柱를 병용 18개를 一列橫隊로 세웠다. 옥상 날간에는 石刻 꽃병, 처마빝 도리의

▼工事마무리무렵의 石造殿(Miss Josephine Roberts, 한국명 노정빈, 대한 성공회 대전교구)







▲Pediment의 Column

Dentil Ornament 등이 新古典主義的 색채를 더하고 있다." 石造殿의 또다른 특색은 窓門을 안쪽으로 밀어 넣고 늘어선 기둥을 따라 건물 앞면에 복도를 냄으로써 陰影에 의한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점이다. 특히 이 "首都에 있어서의 新宮殿"이었던 이 건물 (Gale) 은

『…호기 교회건축에 쓰인 長方形의 Basilica 樣式예다 건물의 긴 房에 主出入口를 배치하는 韓武 建築 원칙을 가미, 주변 宮殿 건물과 조화를 이루었다. [¹¹⁾

전체적으로는 英國의 大英博物館과 同種同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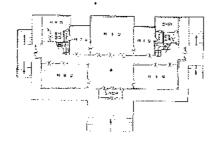
□註□

- 1. William,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J , 탐구당. 1976.p. 253.
- 2. 月山大君의 私邸였다. 西宮이라 불렀다.(1615). 1887년 慶運宮이라 했고 高宗이 거처했다. 1907년에 德壽宮이라 개칭했다. (金聲朝 "길 따라 발 따라 德壽宮,"朝鮮日報, 1983.2.18.)
- 3. 鄭寅國은 이에대해 "비록 外國人에 의해 설계되었으나 우리 정부 主管 下에 우리 예산으로 처음 시도된 진정한 의미의 近代여명기적 성격의 건물이다"라고 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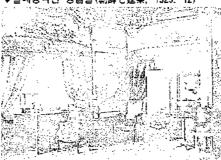
있다(「韓國의 現代建築」).

4. 發議者是 英國人 總稅務司 John Mclery Brown 卿(伯把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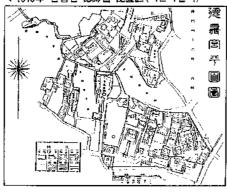
▼石造殿 2 층의 平面図



내장식된 응접실(朝鮮と建築, 1925. 12)



▼1910年 간행된 德壽宮 配置図(서울특별시)



(曾我逸이 吉木造 모델을 제작했다.)

- 5.「建築雜誌」、日本造家學會誌, 1910.12, p.624, 尹一柱再引用.
- 6. cement 와 유리는 英國商社 홈링거(咸陵加)에서 수입했다. 모래와 흙은 지금의 光化門우체국 뒤 서린 Hotel 앞 하천에서 파다 썼다. 그리고 서린 Hotel 에서 德壽宮까지는 공사용 Rail 을 깔았다(李鏞善,「建設」, 1976.7, p. 38).
- 7. 尹一柱(再引用), 1909년설도 있다.
- 8. 이 건물의 내부는 원래 17, 18世紀에 유행하던 Rococo 식으로 꾸며졌으나 6.25때 파괴되었다.
- 9. 保元平三郎, "徳壽宮 石造殿その 他",「朝鮮と 建築」.
- 10. 石造殿기록, 尹一柱의 자료 再引用,鄭寅國, 金正新의 資料豆 있다.
- 11. 지금은 束館으로 불린다. 西館과는 廻廊으로 연결되어 있다(1936.8~1938.3, 14, 1,016평 규모). 1922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다. 1938.10.1부터 近代 美術品을 수집 진열했다(주로 日本 작품), 한 때 美蘇共同委員會 사무실로도 쓰였다. 1953년 6월부터 國立美術館으로 사용되었다. 6. 25의 피해는 1954년 陸軍工兵團에서 수리했다.

38. 慶熙宮址、서울高校

위 치:신문로2가1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909 설 계 자 :

시 공 자:

건축규모:구 조:

층 변:

대지면적 : 78, 000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평

보존 상태 : 사적 제275호

慶熙宫이 다시 국민의 의식속에 자리잡게 된 것은 1980년 이후였다. 그간은, 너무 오랫동안 서울高等學校가 자리잡아 오면서 宫의 인식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었다." 韓國의 宮址중 원상회복이 가장 시급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 慶熙宮의 건물들은 純祖 29년(1829)에 燒失된 적이 있고 그후 2년만에 다시 重建되었었다. 慶熙宮은 德壽宮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高宗은 이 宮들 사이로 雲橋를 설치, 자주 왕래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日帝는 그 慶熙宮을 모두

왕래하기도 했었다. 3 그런데 日帝는 그 慶熙宮을 모두 파괴하고 日本人을 위한 中學校를 세우겠다는 戲畵的인 발상을 내놓았다. 隆熙 3년(1909) 京城公立中學校는 宮闕 西쪽 터에 세워졌다.

1911년 6월에는 궁궐 토지와 건물 전체를 王宮 재산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總督府의 재산으로 이관해 놓았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慶熙宮에는 崇政殿** 會祥殿, 興政堂, 龍飛泉*', 黃鶴亭**,

▼慶熙宮 位置図



與化門등과 각 廻廊등이 남아 있었는데 그 후 總督府의 放賣로 남은 王宮 建物마저도 모두 헐리고 基地도 分割,離脫되었다. 즉 1926년에는 崇正殿(現 東國大 正覺院)과 會祥殿이 헐리어 筆洞 3기에 있던 日本人 寺利 曹溪寺로 옮겨졌고, 興政堂은 獎忠洞 2街에 있던 光雲寺로 興化門은 獎忠洞의 博文社" 문간으로 각각 옮겨졌다. 宮바는 1925년에 真賣局 官舍등의

宮址는 1925년에 專賣局 官舍등의 대지로 東쪽의 21,500평이 잘려나가고 1927년에 다시 南쪽 도로에 면한 일부 대지가 分賣되었다."

6. 25동란 이후 1954년까지는 英國 軍隊가 駐屯하기도 했다. 그 이후부터 1980年代까지도 이 파괴된 「새문안대궐」의 역사는 거의 묻혀져 있었다.

서울高는 江南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서울市는 이 學校 부지를 1978년 現代建設에 메각했다.

▼旧、서울高校 校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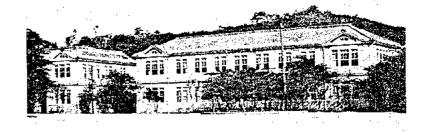
그 후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서울市는 다시 이 慶熙宮址를 再賣入했고 그후 일부에 「市民을 위한 街路公園」을 조성했다. 이 때 新門路촉의 담장도 헐어냈다.

서울市는 1986년 慶熙宮址를 公園化하기 위해 公園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서울高 舊 校舍와 體育館은 개조되어 서울 YMCA 靑少年會館(慶熙宮 靑少年會館)이 들어섰다(1986. 11. 25), 현재는 계획이 지지부진 境內가 모두

▼開校당시의 審祥殿(京城と仁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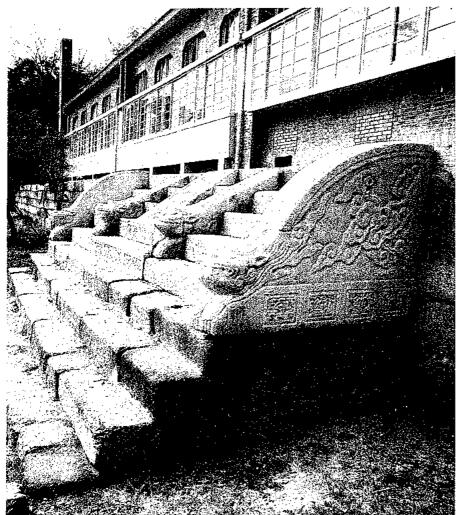
황폐된 모습이고 이곳 저곳 그





▼原,慶熙宮의 興化門(辛基秀)





▲옛 先人에게 부끄러운 오늘의 現実(서울特別市)

石物들이 나뒹굴고 있다. 서울高校의 혼적들은 하루 속히 없애고 본래의 慶熙 宮으로 原形復元되어지질 기대한다.

□註□

- 1. 원래는 整門洞 定遠書의 처소였는데 이 곳에 王氣가 있다고하여 光海君이 집을 빼앗고 새로운 王宮을 신축했다. 실제로 定遠者은 光海람의 뒤를 이어 王位(仁祖)에 올랐다. 日本人들이 이 곳을 日本人 學校로 바꾸어 버린 짓도 그 곳의 王氣가 무려웠기 때문이라 한다. 특히 體育館이 세워진 곳은 王氣가 모이는 곳이므로 日本 젊은이들이 매일 그 王氣를 뛰며 짓밟으려고 그 곳에 體育館을 지은 것이라 한다("慶熙宮의 復元과 市民公園", 李建榮,「建設」, 1985, 4, p. 28.)
- 2. 「開化百景」, 李圭泰, 新太陽社, 1973, p. 61. 학교 正門에서 도로 건너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 基壇과 階段石은 남아있다.
 崇政殿은 1988년 6월까지 원위치에 복원할 예정이다.
- 4. 現存.
- 5. 社稷公園 뒷편으로 移轉.
- 6. 興化門은 원래 중구 정동 경기여고 맞은면, 구세군사관학교 부근에 있었으나 후에 新門路 派出所옆 애주개로 옮거 세웠었다. 그 門 위에 쓴 글자가 밤이면 光彩를 발하므로 夜照峴(애조개)로 부르다가 "야주개"로 되었다. (「琮橋教會史」, p. 33).

伊藤博文이 죽은후 日本人들이 그를 기념하는 神社로 세웠다. (현재의 신라호텔 자리이다) 그 神社의 正門이 된것은 1926년 부터이다. 최근 日本에서 1916년에 찍은 興化門 사진이 辛基秀에 의해 공개되었다.

- 7. 「서울 600년사」, 제4권, p. 442.
- 전체면적 98,000㎡를
 文化財保存地域、公園施設地域、

완충 緑地 地域으로 나눠 조성할 예정이다(1986, 4, 11),

39. 새문안 교회

위 치:신문로 1가 42 착공년월일:1907

준공년월일: 1910. 5. 22. 설계 자: Harry Chang 시공자: Harry Chang 건축주:

> 층 별:지상1 대지면식: 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평

보존상태 : 1972년 헐림

長老敎 선교사

Underwood (원두우)는 그가 우리나라에 온 2년 후인 1887년 9월 27일, 貞洞 13번지 그의 丁字 한옥(기와집) 사랑채에서 첫 組織 教會로서의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信者가 늘어나자 그 이듬해(1888)에는 (前) 피어선 聖經學校 앞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있는 한 살림집"을 禮拜堂으로 사용했다. 1895년 봄에 들어서자 증가하는 教人들을 수용하고 또한 敎勢를 확장코자 첫 교회전축물을 계획하게 되었다.

美北長老教 선교부와 南長老教 선교부에서 설계를 하고 Underwood 목사와 Miss Gifford 가 위원이 되어 교회의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즈음 교회 건축에 있어서 Underwood 의 생각은 달라졌다. "그들 固有한 樣式으로 건물을 짖되 그들의 힘에 맞도록 짓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그 교회가 外國人의 교회로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Underwood家, 첫 예배당





1960년, 예장통합총회때의 교회前面部4

Underwood 부인은 이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教會 信者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 도배쟁이, 木手, 가게 점원, 農夫, 巡檢, 譯官, 軍人, 壽記, 筆生 심지어는 교군꾼 行商들이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여러분들이 손수 敎會물 지어 자기 것으로 할 때 그 때에는 여러분들이나 남들이나 모두 그것이 外國人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는 점을 깨달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기끼이 일하러 나왔고 교회는 아주 검소한 집으로서 土俗 材料만 써서 지었으니 벽에는 진흙을 바르고 지붕에는 기와를 이고 창에는 종이를 발랐다. 그러나 그 때에는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박돌이나 돌로 벽을 지어 으스대는 것은 아무도 몰랐으므로 그 교회는 가장 훌륭한 조선집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적고 있다."

교회는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朝鮮式 한一字의 긴 기와집이었는데 한 가운데는 기둥이 여러개 줄을 지어 있었고 男子班과 女子班을 구별하기 위하여 講臺床이 있는데까지 휘장을 쳐서 막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흙담집



▲1956年의 교회(새문안교회사)

교회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새로운 基地에 영구적인 큰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1904년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07년에 이르리「新門內」현 교회 基地를 구입하고³ 신축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예배당 建築者는 中國人 도급업자 Mr.Harry Chang 이었는데 그는 (YM CA회관을 시공한 경험을 살려) 당시로는 高價의 벽돌을 사용하여 단층으로 지었다. 교회의 様式은 1904년에 세워진 勝洞敎會와 유사했다.

다른점은 前面에 있어, 중앙 Arch 창을 3개로 나눠 변화를 주었을 뿐이었다.

교회는 3년 후인 1910년 5월 22일 主日에 준공되었고, 그 다음 주에 헌당식을 거행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세문안교회는 그후로도 增改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8.15해방 직후에 이루어졌다. 1946년 7월 1일 착공식을 거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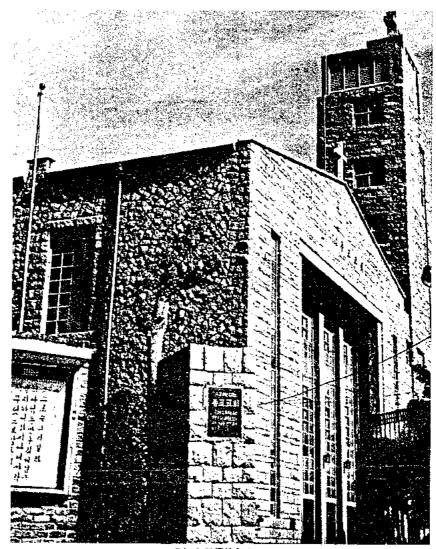
공사를 진행, 2층으로 내부를 개조했다. 연변적은 300평이 되었다. 그 후 1956年 새문안교회는 또 한번의 큰 증축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內部의 설비가 미비했고 敎勢 확장으로 면적확장은 불가피했다. 이 때 현관을 내어 물려 露臺 (Balcony) 를 만들고 conc 충계로 2층에 연결했으며 그 밑은 Arch 로 쌓인 Lobby 를 통하여 아랫총 각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부 설비에 있어서도 천정은 현대적인 색채의 Wall board 를 붙혔으며 형광등도 처음 달았다. 講壇은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식으로 했고 그 중앙에 十字架를 높이 세웠다. 그러나 이 교회는 1972년 세 교회당과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모두 헐려

오늘의 교회는 그 직후,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다.

버렸다.

□註□

- 가로×세로가 8 feet, 높이가 6 feet 인 사랑채였다.
 - (「서울 600年史」,第3卷, p. 924). 그 집은 원래 姜魯정승의 집이었다. 정원만 하여도 1, 000평 이상이었고, 또한 구내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다. Underwood 牧師는 그 집 안채에 살고 그 사랑채를 禮拜堂으로 사용했는데 그 사랑채 三間을 터서 약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거기에서 처음 禮拜를 시작했다 (1887. 10. 7, Underwood 기록, 「새문안교회사」, pp. 22~27, 再引用).
- 「새문안교회사」, p. 27.
- 3. Underwood,「韓國의 紹命」, pp. 109~110(「새문안교회사, p. 27, 再引用」. 이것은 이른바「Nevius 法」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었다. 언더우드는 1890년 中國지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John Nevius 목사를 초청, 한국 선교사들이 앞으로 명심하고 실천할 선교방법의 원칙을 제공받았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곽안전, 한국교회사 p. 74) 그중 4번째가 교회건축 방향으로 주목된다.
 - 1)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할 것. 각자 하나 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使役者)로 일하고,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게는 자기 스스로 담당하게 할 것.
 - 2) 토착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교회와 그 기관을 발전시킬 것.
 - 3) 교회 자체가 사람과 재정을 뒷반집할 수 있는 한에서 좀 더 나은 인물을 뽑아 이웃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할 것.
 - 4) 도착인이 자기들 교회 건물을 스스로 장만하게 하되, 교회 건축 양식은 토착적으로 하고 또 지방 교회가 넉넉히 꾸려 나갈 수 있는 스타일을 가자게 할 것.
- ① 「Underwood 부인의 조선생활」, pp. 125~126.
 - ② 이 일을 진행한 사람은 洪執事로서 그는 건축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 일에만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일했다고



▲現在의 琼橋教会(종교교회사)

했다⁽새문안교회사₎, pp. 30~31).

- ③ 韓國 古有의 기와 지붕 禮拜堂이었다.
- 5. 新門路 1가 42, 廉政丞의 집터(?). 새문안(新門路)의 유래는 西大門(敦義門)에서 시작됐다. 새문(新門)을 지었다고 해서 새문, 그리고 그 門안을 칭해서 이른바 "새문안"이라 했다. 新門路 2街의 西大門은 1915년 헐렀다. 이후 새문안의 의미도 사라졌다.
- 내부는 單層에 中層으로 3面을 둘러서 다락으로 사용케 했다.
 (「새문안 교회사」, p. 40).
- 7. 1948년 8월 28일 定廳式(70평 중축), 1949년 7월 31일 준공 (「새문안 교회사」, p. 112).
- 8. 앞책, p. 134.

위 치 : 도렴동 착공녀원임 :

준공년월일: 1910. 6. 9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규모:구 조:백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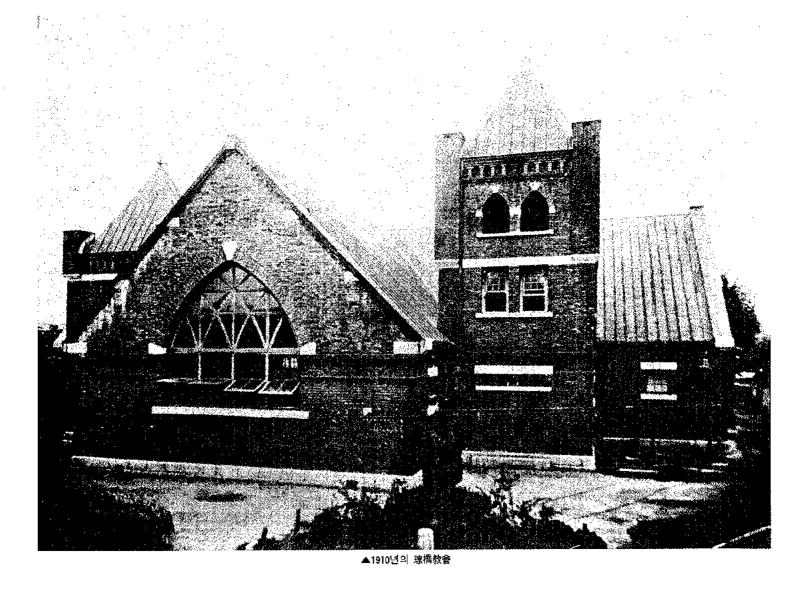
충 별:지상1, 종탑3.

대지면적 : 416평 건축면적 :

연면적: 80평

보존 상태: 1959년 혈림

현재 琮橋教會의 위치는 政府綜合廳舍의 南側에 있다." 이 곳은 도렴동이다. 이 교회 일대는 都梁署라는 朝鮮朝의 官衙가 있었다. 이 도렴서는 나라에서 모든 의상과 官服을 만들기 전에 천을 필로 들여다가 물감을 들이는 지금의 염색소와 같은 곳이었다." 琮橋교회라는 이름은 종교교회의 正門에 있었던 琮琛橋(종친교)라는 다리의 이름에서 따왔다. 종교교회는 1897년 未韓한 캠벨선교사"에 의해 세워졌다.



처음 세운 교회는 현재의 「내자호텔」 자리에 있었다." 교회는 1910년 6월 현재의 위치로 옮겨 자리를 잡고 새 교회 건물을 세웠다.

대지는 416평이었다.

교회 자체는 單層,붉은 벽돌조의 80평 규모로 세워졌다.

貞洞第一教會의 마찬가지로 十字型 平面을 갖었다.

鍾塔은 그 한 面에 붙여 세웠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지붕면을 지나치게 크게 강조했다. 따라서 지붕의 물매도 깊어졌다.

교회의 正面은 박공면이 거의 다 차지했다. 박공면은 그 半을 Arch 창으로 틀었다.

Arch 의 창틀은 유리를 끼우기 위해 Bracing 으로 분할 되었다.

Key Stone 은 붓으로 찍은 듯 박공 요소에 點描되었다. 이것이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그 종교교회는 1959년 새 교회를 지으면서 그 훌륭했던 교회건물을 헐어 버렸다. 『…벽돌로 아담하게 十字型으로 건축한 종교예배당 건물이 50년 후인 오늘에 와서는 너무나 퇴쇠되었으므로 이를 훼철하고 石造 2층으로 개축하여 1959년 11월 22일 하나님께 몽헌하였다···; 이 石造 교회는 그 후 다시 세워져 지금 남아 있으나 原 교회 건물의 모습은 찾을 길이

□註□

1. 原來と 漢城府 西部 仁達坊 都梁洞 32號.

없다(1958.6.9~1959.11.22).

- 2. 「琮橋敎會史」,pp. 32~33.
- 3. 培花,紫橋 敎會도 설립했다. 자교교회는 종교교회와 쌍동이 禮拜堂이었다.
- 4. 1901년에 세운 루이스왁키

紀念館禮拜堂, '고개 나무글 예배당'이라 불렀었다.

5. 梁柱三 總理士의 紀念禮拜堂으로 命名,「琮橋教會史」, p. 85.

青銅器時代 및 初期鉄器時代의 住居

張慶浩 문화재연구소소장

Report/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by Chang,Ky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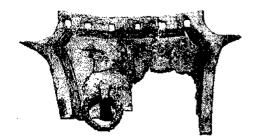
1. 青銅器 時代

○ 時代概要

신석기시대를 뒤이어 각종 도구나 儀器가 금속류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를 청동기시대라고 하며 이 시대에는 주로 純銅이나 청동제를 사용하였다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시대를 뒤이어 철을 사용하는 시대로 단계가 바뀌는데 이 시기를 철기시대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청동기를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B.C. 4,500에서 B.C. 4,000인데 그 예로서 Iran 의 Tepe Sialk 에서 銅을 두드려서 만든 (이것을 冷銅法이라 함) 도구가 쓰여졌음을 발견하였고 B.C. 4,000경에 鑄成된 도끼가 발견되었다"한다. 이러한 鑄銅術은서 Irag 의 Ubaid 純銅文化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가장 오랜 청동제품의 예로는 주석 합금제로서 B.C. 3,700년쯤의 이집트 피라밋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 대체로 B.C. 3,000 B.C. 2,000년 사이에는 세계의 고대 문화가 발상된 곳에서는 청동기가 널리 사용되게 되고 중국에서도 龍山文化말기(夏代)에 B.C. 2,000년 전후로 청동기를 사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는 과거 일제시의 학자들은 그 존재를 부인하고 신석기시대 이후 대륙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문명인들이 들여와서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日人들이 우리민족에게 열등의식을 넣기 위한 동기부여의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청동기문화에 대한 발표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남북한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있었다.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서는 북한의 咸北 會寧 五洞, 平北 江界市 公貴洞。同 의주군 美松里 및 영변군 細竹里, 平南 勝湖郡 金灘里, 황해도 봉산군 智塔里 上層 등지가 있고 남한에는 경기도 여주군 欣岩里, 同 파주군 交河里 및 玉石里, 서울시 강동구 可樂洞, 충남 부여군 松菊里, 강롱시 浦南洞 등이 있다. 이 시대의 문화 특성을 概述 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압록강 이남에서 최초로 청동기를 사용한 것은 고구려족의 전신인 濊貊族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遼東以東 지역의 주인이었으며 이들은 채색토기와 紅陶, 그리고 청동점, 청동도까, 반달 돌칼을 동반하는 농경구와 돼지등의 가축을 키웠음을 출토된 유물로서 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유적은 북한의 新岩里 2층 유적인데 여기서 청동기와 같이 출토되는 유물의 탄소 측정 년대는 B.C. 1,28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든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의開始를 지금

청동기시대가 없이 바로 철기시대로



박물관소장 農耕文 靑銅器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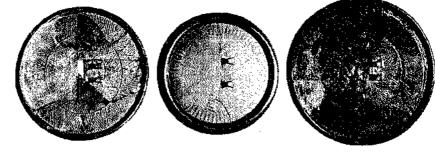


학계에서는 대체로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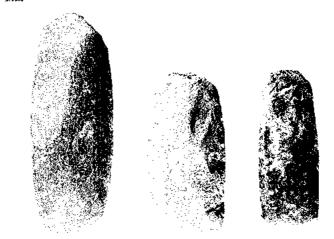
1,00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上記한 예맥족의 사용시기 上限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널리 발달되는 시대는 B.C. 300년 즉 초기 철기 시대로 보고 있다.⁹ 이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는 하천이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낮은 구룽지대의 경사면에 몇동이나 몇십동의 취락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충납 海美나 扶餘 송국리에서 노출된 유구와 같이 평면이 원형으로 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방형 또는 장방형의 반움집이며 경기도 파주군에서 발견 조사된 것과같이 길이가 9.5 m에서 15.7 m되는 긴 집자리도 있었다. 또 爐址도 前代에 중앙 1개에서 2개로 된다. 이 시기의 생활은 유물이나 집자리의 평면형태 그리고 규모로 보아서 농경, 어로, 가축기르기 등을 발전시켰던 때로 추측되며 경작된 곡식은 벼, 보리, 조, 피, 수수, 콩 등의 다양한 종류이고 벼도 여주 혼암리와 부여 송국리, 북한의 평양 근처 호남리 등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국에서 쌀이 생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농경무늬 청동기片에는 이 시대의 농경모습을 잘 나타낸다. 이 시대에 사용한 용기의 특징으로는 多鈕細文鏡이라는 청동제 거울, 단추형장식구, 동검, 銅斧등의 청동기와 석기로서 도끼, 화살촉, 돌칼, 반달형칼 그리고 碾石(갈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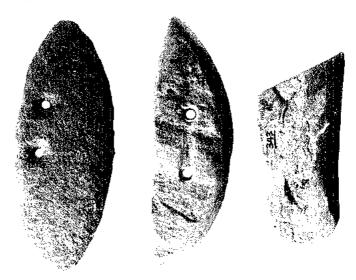
▲ 無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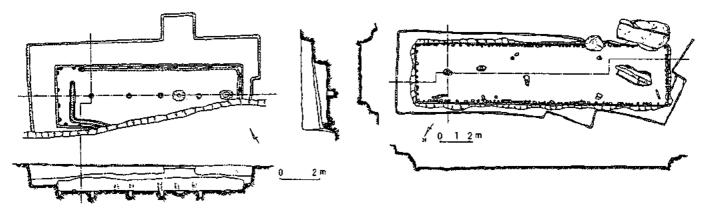
▲ 青銅器 銅鏡



▲ 石斧 (돌도개)



▲半月形研 반달칼



▲ 경기도 交河里 1號

▲ 玉石里 住居址

돌자귀(有殷石斧→有溝石斧)등이고 토기로는 彩文토기, 팽이토기, 붉은토기, 목긴항아리, 계란형壺, 화분형토기등이 있다. 이들 청동기시대의 중요 유적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京畿道 交河里邀蹟

파주군 금촌에서 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장수산 동쪽 기슭에 10여기의 지석묘군과 함께 1965년에 발굴조사된 것이다.

제1호주거지는 남서벽이 6,25때 거의 파괴되었으나 자연충인 風化岩層을 파내려가서 만든 움집터임을 알 수 있었는데 평면이 장방형으로서 長邊이 9.5m. 短邊이 3.2m.움 깊이가 35cm~70cm이다. 이 집터의 중앙 長軸線上에는 4개의 기둥구멍이 뚜렷하게 남았는데 柱間은 중앙간이 1.6m, 그 양측간이 2.0m 이었고 끝쪽에 놓인 柱孔과 벽과의 거리는 동북에서 1.7m 서남에서 2.0m였다. 기둥 구멍의 크기는 직경이 18cm에 깊이가 30cm~35cm 파져있었다 한다. 또 집터 벽선을 따라 내부 바닥에도 기둥구멍이 나란히 있었는데 크기가 17cm×12cm의 모접은 각형 평면에 깊이가 7~15cm, 간격은 70cm~80cm였다고 한다." 이 집터에서는 많은 재와 숯이 바닥에 깔려있어 화재로 소멸된 것 같았다.⁸⁾ 또 火爐터는 서남쪽의 벽과 기둥 중간에 1개와 그 다음간의 기둥과 기둥사이 중간에 1개가 있어 2개를 구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玉石理遺蹟

파주군 월농면 덕음리 일명 옥석리라는 마을 뒤 구룡상에 10여기의 북방식 支石墓와 함께 1965년에 조사된 것이다. 움터는 장방형으로서 동서 길이가 15.7m, 남북 폭이 9.7m로 긴 움집터였는데 그 바닥의 깊이는 동벽에서 1.0m 정도이고 서벽에서 40cm였다. 또 바닥은 진흙을 얇게 깔았던 흔적이 있었고 집터 벽선을 따라 기동구멍의 배열이 있었는데 직경이 7~15cm 깊이가 15~20cm였다 한다. 爐址는 집터 동쪽에 치우쳐 2개가 있었고 바닥에서 無文土器 파편과 磨製石劍(돌칼), 石鏃(돌화살촉), 紡錘車, 碾石(갈돌), 砥石(숫돌)등이 있었는데, 돌화살촉과 石器의 반제품등이 놓이어 마치 석기제작소 끝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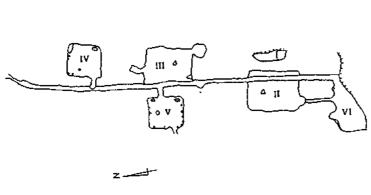
○ 欣岩里 遺蹟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에 있는 유적으로 1972년 ~1977년에 조사되었는데(서울대 박물관) 15개의 집자리를 발견 조사하였다. 제12, 13, 14호의 주거지 조사에서 탄화곡물이 나오고 또 목재동이 나와서 탄소축정년대를 측정한 결과 제12호 주거지에서 B.C. 7세기와 B.C. 13세기(한국에서 측정)로 나왔고 제13호 및 14호의 주거지는 B.C. 3세기로 나왔다 한다. "이들 주거지는 모두 산의 경사면을 낮은 쪽에서 부터 파 들어가서 생긴 평지를 이용한 半堅穴式 주거지였고

평면이 모두 긴 장방형으로서 제12호가 동서 9.7m×남북 3.7m이고 제13호는 長7m× 幅2.8m 제14호가 長10m×幅4.2m 였다고 한다. 내부시설로서 제12호에서는 3개의 노지와 저장시설이 집터 구석 벽쪽에 배열되어 있었으나 제13호나 14호에서는 이런것을 볼수 없어 이러한 시설을 집 밖에 시설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 제13호와 14호 주거지에서는 폭 약 60cm되는 간막이 벽이 발견됐다고 보고 되었다. 이러한 평면을 볼 때 이 집은 서까래가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져 벽위에 올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 虎谷洞邊蹟

함경북도 무산군 두만강 남안과 성주의 연안 지대에서 발견된 것이다. 보고에 의하면 1959년부터 3년간에 거쳐 조사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발견된 주거지 수는 약 50개 정도라고 하나 이것도 이 유적지의 넓이로 보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주거지는 서로 중복되어 있었던 것이 많았는데 이중 제8호 주거지는 평면이 장방형으로서 남북 11,5m, 동서 6,2m이며 집터 바닥의 깊이는 약 I m 내외였다. 집자리 內 동서벽 가까이 7개의 礎石이 서로 대칭되는 위치에 놓여있고 중앙에는 기둥이 탄화된 숯으로서 수직으로 세워진채 나타났다고 한다. 또 불에 탄 재로 보아서 새나 짚으로 지붕이나 벽면을 얹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화덕은 집자리 북쪽에 치우친 중앙에 있었고 출입시설은



특이하게 북벽쪽에 있었다. 바닥에서는 많은 토기편과 석기들이 있었고 특히 사람모양과 돼지모양의 土偶가 있었다고 한다.□

○ 會寧五洞邊蹟

함북 회령군의 두만강 南岸 小平野에 있는 유적으로 8개의 집자리중에 5개가 유존상태가 좋았다. 이중 제8호 주거지는 그 평면이 장방형으로 長邊이 8.4m 이고 短邊이 6.5m, 깊이는 75cm~140cm인데 동북벽에 龕室과 같은 방이 2개가 있었고 출입구는 동측에 있었다. 이 돌출부는 식량이나 생활용구를 저장 격납하는 시설인 듯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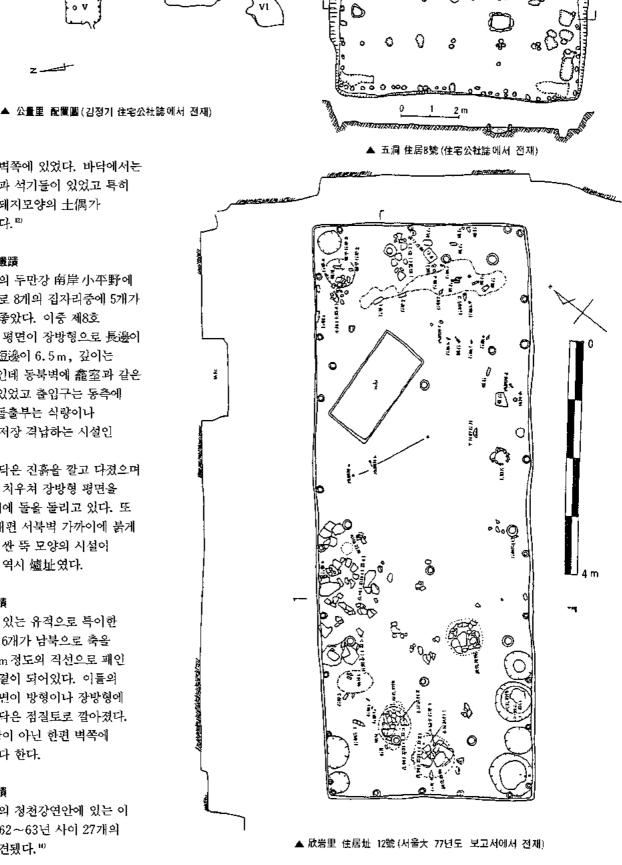
집자리의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졌으며 爐는 남쪽에 치우쳐 장방형 평면을 하고 그 주위에 돌을 돌리고 있다. 또 이 爐址 반대편 서북벽 가까이에 붉게 탄 진흙으로 싼 뚝 모양의 시설이 있었는데 이 역시 爐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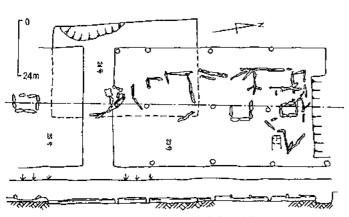
○ 公費里遗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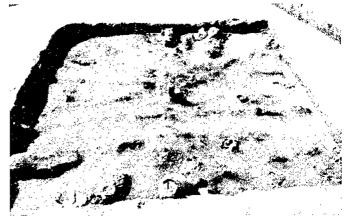
평북 강계에 있는 유적으로 특이한 점은 집자리 6개가 남북으로 축을 이루어 폭 1 m 정도의 직선으로 패인 통로로서 연결이 되어있다. 이들의 집자리는 평면이 방형이나 장방형에 가까웠고 바닥은 점질토로 깔아졌다. 또 爐는 중앙이 아닌 한편 벽쪽에 치우쳐 있었다 한다.

○ 細竹里遺蹟

평북 영변군의 청천강연안에 있는 이 유적에는 1962~63년 사이 27개의 움집터가 발견됐다."







▲ 細竹里 23號(住宅公社誌에서 전재)

▲ 松菊里 住居址

이중 제27호 주거지는 한변이 3. 7 m 의 정방형 터로서 깊이 70cm의 바닥에는 기둥구멍이 없었고 爐는 북벽에 거의 접하여 있었다. 또 바닥에는 전면적으로 재가 덮이고 벽을 따라서 기둥과 서까래를 겸한 지붕 架構材가 반화된채 중앙을 향하여 바닥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가구재는 제23호 주거지에서도 노출되었는데 이 집자리는 동서 5.1m×남북 9.3m의 장방형 평면으로 바닥의 깊이는 20cm 정도이고 진흙과 석회를 혼합하여 굳혔고 바닥에는 장방향으로 중앙과 서측벽선을 따라 기둥구멍이 있다. 실측도로 보아 이 움집은 처마 도리를 사용한 지붕구조를 가진듯하며 서까래가 벽위의 처마노리위에 얹혀진 것으로 믿어진다.

○ 松菊里遺蹟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표고 30m 내외의 낮은 구롱지대가 주위에 펼쳐지는 넓은 들(초촌들)을 남쪽으로 가로 질러 뻗어있는데 이곳에서는 청동기를 비롯하여 백제, 고려시대에 속하는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곳의 선사주거지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4회에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여 19 기의 움집더를 밝혀냈고 1985년에 다시 발굴하여 54지구 제5호 집자리와 제6호 집자리를 발굴조사한바 있다. 51 이중 특히 5호 집자리로 方形에 가까운 평면인데 동서 長幅이 약 4.6m~4.8m이고 남북 短幅이 약 3.7m~4.15m가 되어 거의 正方에 가깝다. 집터 바닥의 깊이는 약 35cm이며 집터 안에는 마치 지붕틀 구조를 평면으로 투사한 것 같이

용마루대와 여기에 의지하여 처마쪽으로 뻗은 서까래, 그리고 이 서까래 사이를 연결했던 중깃등이 바닥에서 탄화된 그대로 나타났다. 용마루대의 길이는 약 2 m 가 되었고 이 양단에서 서까래가 扇子形으로 붙여 걸리게 되었다. 서까래의 지름은 약 6~10cm이고 길이는 2~3m이며 중깃은 2~3cm이다. 이 집터의 주위에서는 수십개의 크고 작은 구멍들이 확인되었다. 서벽을 제외한 3면 벽을 따라 지름 10cm~15cm, 깊이 4~8cm의 구멍 20개가 있다. 또 바닥의 3귀에는 지름이 20~30cm이고 깊이가 10~20cm의 구멍이 있었다. 또 남쪽의 바깥에는 구멍들이 뚫렀고 벽면 중간 또는 어깨면 가까이에 땅속으로 경사지게 뚫린 것도 있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숫돌, 돌화살촉, 반달 돌칼, 돌끌 등의 석기와 무문토기와 붉은간토기등이다. 이 유적의 시대는 B.C. 약 5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青銅器時代 住居址의 特徴的 考察

지금까지의 기술로서 이시대의 움집터는 前代에 바하여 평면이 대체로 方形 또는 장방형이 많았고 규모도 더컸으며 바닥의 깊이도 좀 낮아지는 편이고 間壁이 생기고 또 기둥의 배열도 우진각 또는 까치구멍 지붕을 이를 수 있는 기둥배열을 하였다. 또 지붕의 서까래는 경우에 따라 처마도리를 들어 지상을 떨어져 올라온다.

또 출입구는 건물자 밖으로 돌출되어 만든다."

바닥은 진흙등을 다지는 경우가 종종있고 爐址는 前代의 중앙부 1개에서 건물지 한쪽으로 치우쳐 2개 또는 3개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중 한개는 벽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벽에 근접하고 화먹은 중앙부에 있는것과도 기능을 달리하도록 나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주거지 내의 중앙에 위치한 것이 난방과 취사를 겸한 것이라면 벽면에 근접한 것은 취사를 주로 이용했거나 다른 常用의 용도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경우 연기를 벽 근처에서 밖으로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저장시설은 前代에 토기를 이용한 소규모의 시설은 보기 어렵고 전술한 五洞의 8호 주거지와 같이 벽쪽에 龕室을 두어 본격적인 저장시설을 두었거나 별도의 시설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시대의 대가족과 농경 수확량을 보존할 시설이 필요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公貴里의 통로있는 주거군을 생각할 때 이 시기에는 대가족이 반드시 건물 1동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능력이 있는 가족은 몇개의 건물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사회 질서를 이루는 빈부의 차와 계급형성이 생기게 되고 이에따라 취락형성과 생활공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주거지 면적으로 보아 金正基선생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10m² 단위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결혼한 부부 한쌍이 살수 있는 소요단위공간이라고 하여 가장 많은 20㎡에서 부부 한쌍과 자녀 2~3명 또는 노부모로서 4~5명의 생활 단위공간으로 해석하고



▲ 松菊里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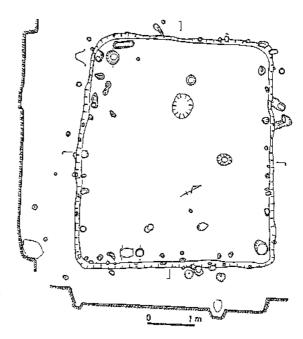
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가족제도를 연구하는데로 좋은 자료가 될 흥미로운 연구결과라 믿는다.

또 이 시대에 기둥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역시 埋込기초가 가장 많고 자연초석을 놓는 방법, 그냥 바닥에 세우는 방법등이 있다. 그러나 기둥의 배열과 架構의 특징에 대하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좀더 연구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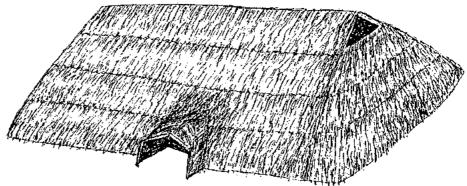
- Francis Celoria ARCHAEDLOGY BANTAN BOOKS Toronto, New York, London, 1974
- 2) 金元龍 : 韓國考古學概說, 서울 一志社, 1987, p. 60
- 3) 前掲書
- 4) 前揭書 參照
- 5) 前掲書 p.67
- 6) 韓炳三:「先史時代 農耕文靑銅器에 對하여」、〈考古美術〉112호, 1971
- 7) 金正基 : 「韓國住居의 어제와 오늘」, 住宅公社, 1979년
- 8) 前掲書
- 9) 前掲書
- 10)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第 4~8冊) 欣岩里住居址
- 11) 前掲書 1
- 12) 金正基 前掲書
- 13) 前掲書
- 14) 前掲書
- 15) 國立中央博物館 : 松菊里,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8책, 1986
- 16) 前掲書
- 17) 金正基 前掲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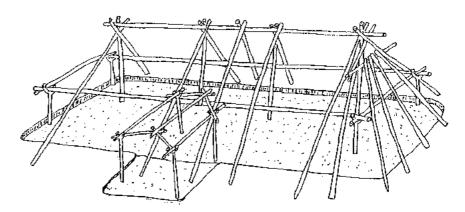
松菊里 54-5號▶

					面	積	과	j	類(9]		,				
面積 (°E)	80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 10	計
例	2	3	3	5	3	8	1	5	0	5	4	11	4	3	თ	3

▲ 움집터 면적표(김정기住宅公社誌"韓国住宅의 어제와 오늘" 에서 전재)



交河里 第1號 住居址 推定 復元圓 ▲



▲ 交河里 第1號 住居址 推定 復元 架構圖

등대 혹은 등대지기

- 아버지가 바다에서 건져온 한 상자의 비린내와 어머니가 갯벌에서 구워낸 한 말의 소금을 바라보면 열개의 보이지 않는 섬과 백 개의 틀리지 않는 노래와 천 해리의 거리가 퉁퉁 떠오른다 -
- 나는 불빛으로 바다를 쑤시면서 오래전에 바다일에 가라앉은 바이올 린과 피이노를 건져내고 — 수평선 너머 돌아오지 않은 수백 척의 배를 발견한다 —

원 구 식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당선 승진대 대학원 졸업 '현대시학'편집장

■ 企劃連載 / 외국의 현대건축가 소개区



희맛으로서의 이상주의와 이데아의 한계

알도 로시

Aldo Rossi

成仁洙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Serial/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 by Seong, In-Soo

역사와 라틴문화에 대한 상상력으로 인간생활의 장을 펼치기도 전에 세계적 기대와 소문에 묻혀 알도 로시는 스러져 가는가?

1.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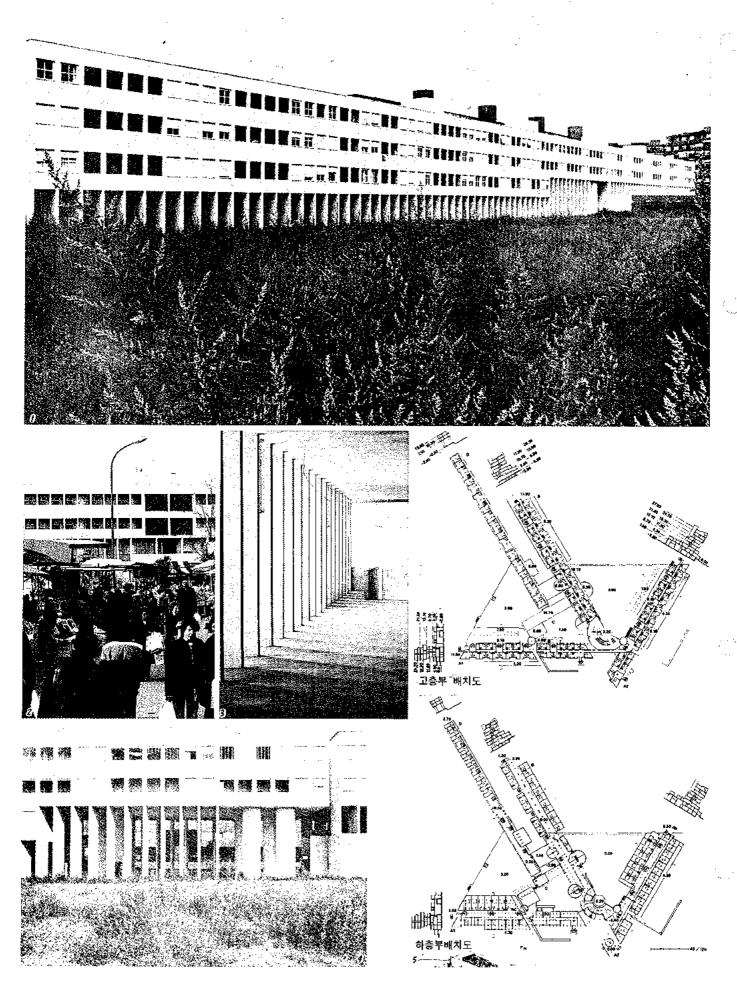
"최근까지 그곳을 건노라면 나는 열린창과 가끔 빨래를 말리기 위해 난간위에 널어논 것등을…… 사람이 가득찬 생활의 모습을 보게된다. 일상생활을 위해 지은 공간은 —전면현관주랑, 개방된 복도는 거리로서, 포취로서의 기능을 의미하는— 그것이 이룩된다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자신있게 보여줄 것이다. 주거건축에 흔하고, 뿌리깊은 일상생활을 강조하면서 이 "거대한 주택"은 마땅히 미라노, 비글리오나 롬바르디에 혼한 운하 주변에 있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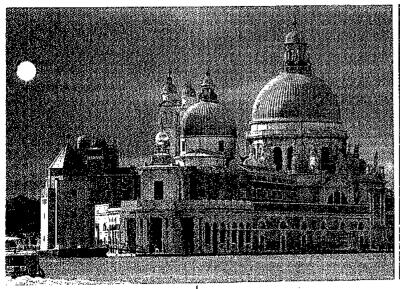
위의 말은 1975년 로시가 갈라라테제 주거단지를 돌아보고 한 말이다. 즉 귀족이나 에리트가 아닌 대중이나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이 자신이 설계한 건물에서 용해되기를 바라고 한 말이다. 알도로시의 갈라라테제하우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건물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에서의 경험을 통한 생각과, 근대건축의 변천과정에서 태어난 주거개념 등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부 이탈리아 도시의 광장을 비롯한 시가지를 내려다 보면, 우리는 길과 집의 확연한 구분을 볼수 있고, 도로는 하늘만이 열린, 닫힌 공간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길의 양옆은 아케이트 등이 도열해 있으며, 이 길은 도시내 인간생활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팀텐 그룹의 스미슨 부부의 골든레인 계획안을 보면, 그곳에 3개층마다 한 쪽으로 열린 가로형 복도가 마련된 사례와 비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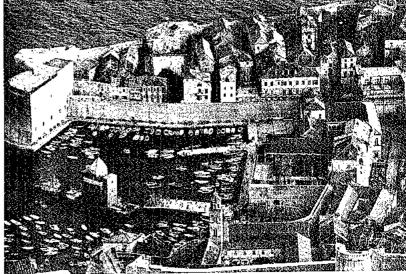
로시가 역사적사례에서 복사를 했건 모방을 했건,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인 비평을 해도, 세계적 여론 속에 만들어진 주거단지의 이미지는, 주거건물의 실체로부터 거의 동떨어진, 독자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다. 이곳에 보인 선형복도의 유형론은 싼로코 계획안에서 쓰인 닫힌중정공간과는 대조적이라고 로시는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미지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로시조차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불행하게도 그간에 소개된 건물의 사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끝난 건물인 것으로 비친다고 로시는 불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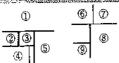
갈라라데제 주거 건물에서 1950년대의 로마의 유기적 건축과 미라노의 합리주의 사이의 지난날의 대립이 신선한 감각으로 정리되었다고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모더니스트들이나 과거의 로마를 찬양하는 그룹간에 의견이 있는 듯하나 모두 다 파시줌을 찬성했고, GROUP 7이나 미라노 900에 따른 건축운동들이 모두 역사적전통을 배격치 않았으며, 미국에서 돌아온 브르노 제비의 유기적 건축이나 미라노를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의 마찰로부터 해결책을 제시한 작품으로 비평되었다. 이 과정에서 로시의 소박한 회망은 의미있게 부각되지 못했을 것이다.

알도로시는 주택의 여러 유형중에 단독주택을 설계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의 주택을 설계하고자 했다. 로시의 대표작으로는 갈라라테제 주거단지와 세계극장을 들 수 있다. 미라노 시의 북서측 그린벨트에 건설된 갈라라테제 주택단지는 칼로 아이모니노와 알도로시의 설계에 의한 것이다. 4동의 건물은 미라노시청 직원용 주택으로 444세대 약 2,4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사진1~5〉 알도 로시가 갈라라테제의 집합주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5살 연상인 아이모니노의 배려에 의해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시가 설계한 네번째동(D동)은 다른동보다 높이가 낮은 편으로, 각동은 삼각형으로 중심을 이룬 곳에서 세방향으로 삗어 있다. 아이모니노의 건물에서는 황색, 청색의 부분적 채색과 붉은 프라스터의 마감이 특징을 이룬다. 로시가 설계한 건물은 백색의 프라스터로 마감되어 있다. 길이 182m, 폭 12m 철근콘크리트조건물로서, 기둥의 간격이 일정하고 반복적인 배치로 구성되어 있다. 방이 하나에서부터 다섯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방식을 채용했다. 시당국과 건설업자간의 주택개발 프로그램에 의한 이 건물은 임대용 건물로서 당시의 주책정책을 대표한 건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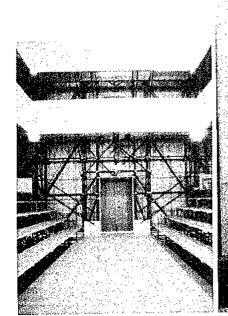
알도로시의 대표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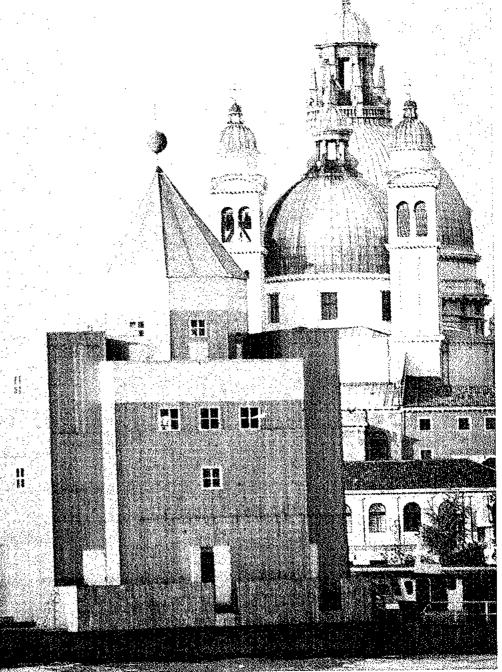
左: 갈타라테제주거단지

- 1. 전경
- 2. 노점측에서 본 남서측
- 3. 1층의 남서축 주랑
- 4. 아이모니노의 C동과 만나는 부분
- 5. 배치도

右: 베니스의 세계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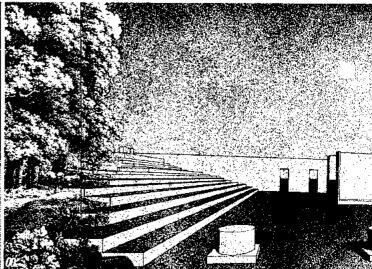
- 6. 베니스항구 말단의 세관 앞에 도착한 세계극장
- 7. 트브로브니크로 옮겨진 세계국장
- 8. 퓨지나 조선소에서 베니스로 출발
- 9. 세계극장 내부











▲세그라테꽝장 투시도

로시의 갈라라테제 주택에 나타난 형태구성의 요소들—공간의 어휘들은

복도의 유형학 한편이 열린 터널 고유 패턴 Corridor Typology,
Open-sided Tunnels,
Inherent Pattern,
Linear Galleries
Covered Passage,

선형 복도 덮여진 통로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어휘들은 즉, 갤러리, 사일로, 고가, 공장, 농장, 롬바르디아 농가 등은 로시가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로 부터, 동료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가 바라본 과거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그의 시적인 영감에서, 즉 이데아를 향하는 그의 고독한 정신세계에서 시작되었다.

세계극장이라는 배위의 건물이 베니스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한 세계 (Mondo)는 로시가 팔을 벌려 세계라고 인식한 부분으로 구성된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 공유한 -라틴문화권에 공유된 사람들에게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조형감각으로 충격을 주었다. 이에 앵글로 색슨계 건축인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작업은 그의 유추적 도시에 관한 전시회나 로마 인터로타 등의 도상작업의 연속이기도 하다(사진 6~9).

도시에 관한 그의 태도는 도시를 각각 자체의 기억을 가진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의식속에 잠재한 형태로 생각했다. 합리성과 기술로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형태의 연상작용을 통해 그곳에 과거에 존재했음직한 새로운 공간을 단순한 형태로서 만들고자 한다. 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 개인의 창조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생산의 차원에서, 어느 집단에 공유할 수 있는 형태를 찾고자 한다.

2. 활동과 작품

미라노에서 출생한 알도로시는 지금 나이 56세로 (1931년 5월 3일생), 그의 활동시기는 4기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 1955~65년 잡지 "카샤벨라 콘티뉴타"시기3)

이 시기에 로시는 잡지에 기고하면서 도시문화에 대한 이론적 골격을 완성한 것과 사회적 정치적관심을 갖게된 시기로서 의미가 있다.

이 잡지는 당시 이탈리아 문화를 이끌어온 잡지의 하나로서 영향력이 컸다. 로시는 모두 31편의 기고를 했다.

1955년 (24세) - 잡지 "카사벨라 콘티뉴타"에 공헌하기 시작. 알도 로시는 어네스트 나탄 로저스가 주필을 그만둔 후 1955년~64년(24~33세)까지 잡지에 관계한다.

1958년까지 부정기적으로 기고.

60년까지 활동적으로 공헌을 함. 세메라니, 텐토리, 틴토리와 함께.

61~64년 주간으로 근무.

1959년-미라노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

*졸업설계 "문화회관과 극장"

1960년 - 미라노에서 개최된 "신 이탈리아 가구 디자인" 전시회 참가.**

"산업예술의 전망자"그룹이 조직한 전시회였다.

-12회 트리에날레(Ⅶ Triennale) 참가. "교외지역" 연구회의 일원으로 참가 프로젝트는 텐토리, 포레셀로와 함께.

*작은 테이블과 책장의 프로토타입

*"미라노, 파리니거리주변 지구정비계획(Urban Renewal)"(계획)

*베르질리아, 아이 론키에 주택계획(실현)

I961년 - 잡지 "카사벨라 콘티뉴타"의 후원으로 "15년간의 이탈리아 건축"이라는 주제로 로마에서 회의를 개최함.

*푸이지오 고층건물 국제현상설계, 브에이노스아이레스 (계획)

*칼레피오, 근로자의 주택(계획)

1962년 - 꾸네오, 레지스땅스 기념비 현상설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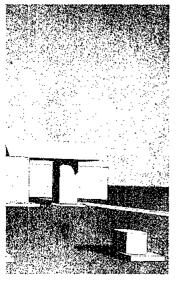
*미라노, 상업지역의 기념분수 현상설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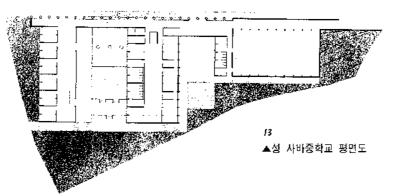
*파가냐, 칸트리 클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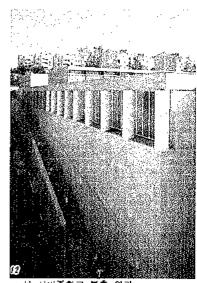
*몬짜. Villa Reale 공원지역, 특수학교 현상설계(계획)

*머라노, 현대역사박물관(계획)

*튜린, 업무중심지역(계획)







▲성 사바중학교 북축 외관

1963년 - 라킬라에서 개최된 "현대예술의 면모"공동전시회에 참가, 이 전시회는 꽈로니의 찬양을 위한 전시회였다.

- -아레쪼의 도시계획강좌에서 꽈로니교수의 조교로 근무.
- 배니스대학 건축연구소의 연구원이 됨.
- *미라노, 제 13회 트리에날레, "철교와 공원의 배치안" 전시회 (계획)

1964년 - 롬바르디 경제 및 통계연구소(I. L. S. E. S.)⁵⁾ 의 위촉을 받은 연구결과를 간행함.

- "건축기준과 도시형태론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문"
- -"메트로포리스지역의 계획구조체"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안
- -건축계획부문 대학강의 자격을 취득하다.
- *아비아테그라쇼, 티치노 강가에 스포츠레져센터(계획)
- *팔마. 기둥이 있는 광장과 신 파가니니극장 건설을 위한 현상설계(계획)

1964~65년 -베니스 건축대학연구소(IUAV)이에서 강의 및 연구활동

제 2기 : 1965~71년 : "폴리스"시기, 저서출판과 이론확립기 1965년 - 트리에스테에서 제 10회 국립도시연구소(INU)⁷⁾ 회의에 참가.

-파도바에서 마르시리오가 편집한 "건축 · 도시의 노트" -" POLIS"시리즈를 감수함. 출판된 책의 제목들은

아이모나노

: 현대도시의 기원과 발전

불레⁸⁾

:예술로서의 건축

조지오 그라시 : 건축의 구조적 논리

꽈로니

: 바벨탐

위의 책중에서, 로시는 개인적으로 불레의 책을 번역하고. 서문을 기술함. 꽈로니의 책의 서문도 기술했음.

"즉 건축은 정밀한 분야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며, 가각의 조작이 정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벨탑 서문) "불레는 건축의 논리적 체계를 창출한 후에 개개의 계획중에 그의 원리를 입증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 그가 세운 전제들 위에 변치않는 합리성을 부여하려고 한 합리주의건축가이다." (예술로서의 건축 서문)

*세그라테, 시청광장과 기념분수 〈사진 10, 11〉

기하학적 형태의 분수대, 폭이 넓은 계단, 끝이 절단된

신비한 계단 등이 있으며, 계확안의 일부만이 실현됨. *나폴리, 스폰서로 ISES가 벌린 주거지구 계획안 현상설계참가

1965~66년 -미라노 공과대학의 건축학부에서 건축계획분야 조교수로 근무.

-미라노에서 로저스 카넬라 카르테라와 함께 "극장" 이라는 주제로 강연.

-CNR 과학연구소 박물관 담당 연구작업에서 주입으로 근무 "여러가지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언어와 일상언어 속에 나타난 도시와 건물에 관련된 언어의 역사적, 비평적 분류." - "도시의 건축" (L' architettura della Citta) 을 발간 2판은 새로운 서문과 함께 1969년 발간. 스페인어판은 1972년, 독일어판은 1974년, 미국어판은 아이젠만에 의해 1982년 발간. "롬바르디지방의 신고전주의, 아돌프 로스. 그리고 불레에 관한 나의 연구는 어떤 명확한 원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배경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 하였고, 노력해 왔다."(도시의 건축 서문)

-베니스 건축대학 및 연구소에서 "건축계획이론"세미나에 참기.

1966~67년 -페스카라 건축학부에서 건축구성 과목 조교수로 근무.

- -트리에스테의 "아르티·비바"펠트리넬리 센터에서 개인전.
- -나폴리대학 건축학과에 초빙되어 "주택건설기준의 재생"의 제목으로 도시연구회에서의 주거문제에 관한여 강의함.
- *몬짜, 싼로코주거 현상설계(계획)
- *부르꼰디의 성 나자로 광장(계획)

1968~69년 -미라노 공과대학 건축계획 담당 조교수로서 "도시분석과 건축계획" 주제의 세미나를 끝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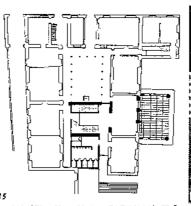
- *스칸디치, 시청사(계획)
- *트리에스테, 산 사바 중학교(1968설계, 1969완성) 〈사진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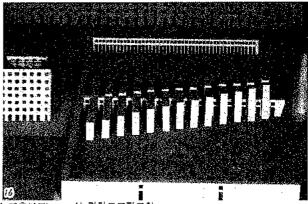
1969~70년 -미라노 "건축구성"교수로

- *미라노, 갈라라테 제2주거(1969설계, 1973완성)
- *브로니, 디 아미시스 학교(1969설계, 1970완성) 보수와 증축(사진 14, 15)

1970~71년 - "건축구성"교수로서 미라노 건축학부의







▲디아미시스학교(중정에서 보이는 백면)

▲미아니지스학교 평면도(검은부분이 증축과 개축부분) ▲성 카탈도묘자모형

일원으로 근무중, 1971년 11월 23일에 학생활동을 도운 것이 계기가 되어 알비니⁹⁾, 벨조이소, 보타니, 카넬라, 드 칼리, 포토게시, 비가노 등과 같이 해임됨. 그 이후 로시는 공산당을 탈당하게 된다.

제 3 기 : 1971~77년 : 계획설계안의 시기

1971년*모데나, 산 카탈도의 화장장(1971설계, 1973, 76 수정, 1980~83년 완성)

모데나 묘지는 이탈리아 국내 2 단계현상설계 1등작품으로 브라기에리와 합작으로.

신고전주의 양식에 따라 지어진 코스타의 건물이 낡아, 이를 확장하기 위한 주제로 열린 현상설계였다. 〈사진 16~18〉 1972년 - 쥬리히 연방공과대학(E. T. H) 10) 에서 계획안과

건축작품으로 개인전을 개최.

*무죠 시청사 현상설계(계획)

*파냐노 올로나, 국민학교(1972설계, 1976완성) (사진 19~21)

1972~74년 -쥬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 1973년 -로잔느공과대학에서 개인전을 갖음.

- *보로니, 단독주택(계획)
- *볼고 티치노, 주택과 전시관(계획)
- *미라노, 국제건축전시회부문(계획) (제15회미라노 트리에날레) 미라노 전시회를 계기로 다른 저술가와 함께 합리적 건축(Architettura Razionale)을 발간.
- *모데나 화장장(2단계 현상설계)
- *파가노 올로나 지역계획

1974년 -서독에서 개인전 "알도 로시 : 합리주의 건축"과 회의 개최

- 쥬리히 공과대학에서 "알도 로시, 루이스 칸, 존 헤이덕--3인전"을 개최.
- *스위스, 베린조나 성, 교량개조계획(계획)
- *로비아테, 단독주택(계획)
- *트리에스테, 지방청사(계획)
- *트리에스테, 학생주거(계획)

1975년 -베니스대학 건축학과 교수가 됨.

바르셀로나, 코르도바, 세빌리아에서 개인전과 회외. -미라노공과대학에서 "건축 도시론선집 1956~72"이 간행됨.

- *세빌리아, 엘 꼬랄 델 콘도(계획)
- *세투발, 주거(계획)

1976년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국제건축 세미나의 이사직 역임

- -뉴욕주의 코넬대학과 쿠퍼유니온에 초빙됨.
- -뉴욕, 건축도시연구소(IAUS)11)에서 알도 로시전이 열림
- *치에티, 학생호스텔(계획)
- * 브라치오, 단독주택(계획)
- *베를린, 배르빈딩스카날, 주변 주택(계획)
- *****유추적도시

제 4 기 : 1977년~ : 국제적 영향의 시기 1977년*프로렌스, 업무중심지역(계획)

- *무조 단독주거
- *로마 인터로타¹²⁾ 〈사진 22,~23〉

197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건축세미나 참가. 베니스대학 건축연구소 소장 아이모니노가 조직함.

*소규모 과학적인 극장

1979년 -산 루카의 학술회원이 됨.

- *4월, 로마, Pan 화랑 전시회. "계획안과 계획 1962~ 1979"¹³⁾
- *잔도비오, 단독주택
- *칼스루에, 란테스비블리오텍
- *고이토와 페고냐가, 집합주택
- *페사로, 문화센타 및 고충동
- *****베니스, 세계극장
- *멜보른 기념탑
- *Cabine dell' Elba가구와 성당사제용 소파

1980년 -예일대학 건축계획교수로 초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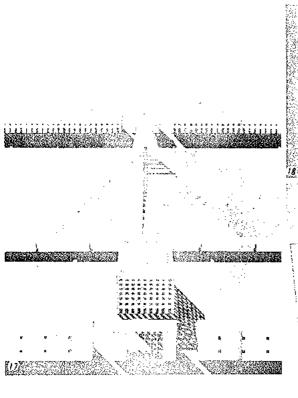
- *베니스, 비엔날레, 정문〈사진24〉
- ***베니스**, 카나레지오 웨스트
- *차 서비스대

1981년 * 베를린, 쉬드리헤 프리드리하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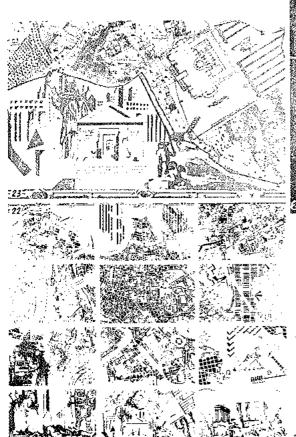
- ★ 브리안자, 퓨테라리 채플
- *베른, 크뢰스터리아리엘
- *미라노, 전시회 "이데아와 지식" (Idea and Knowledge)
- *로마식중정이 있는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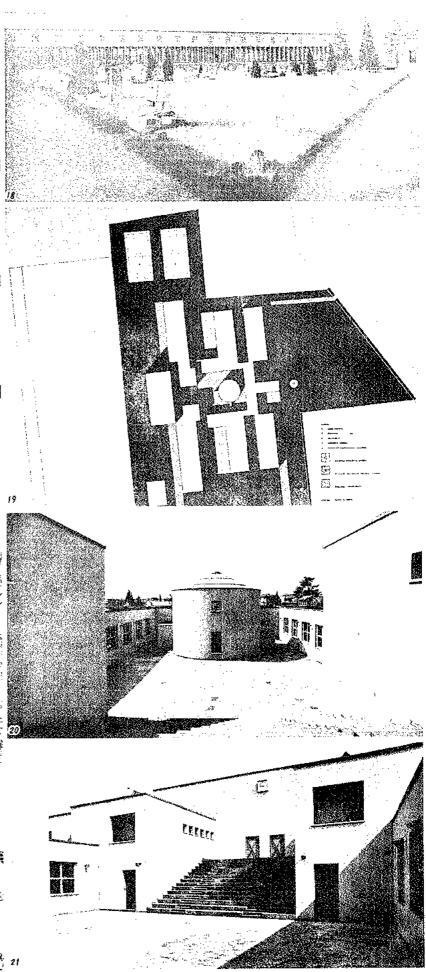
1982년 *베니스, 지텔레 복합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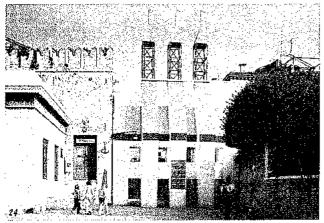
- *로텔담, Kop van Zuid
- *볼로냐, 산티니와 도미니치 전시회
- 라티나, 산티니와 도미니치 상점
- *미라노, 극장내부설계



- 17. 성 카탈도 묘지 중앙부 투시도
- 18. 성 카탈도 묘지의 구묘지에서 보이는 납골당 전경
- 19. 파냐노 올로라 국민학교 배치도
- 20. 중앙계단에서 본 도서관과 중정
- 21. 중망계단
- 22. 초청된 12명의 건축가의 도면들
- 23. 알도로시가 맡은 지역의 계획







▲옛건물 사이에 위치한 베니스 비엔나레 정문

- *비아다나, 아파트
- *만투야. Fiera-Catena Area
- *미라노, 칼로 페리체 극장¹⁴⁾
- 이 계획은 현상설계응모안이고 기존의 역사적 건물을 개축한 것이다.

1985년 * 베를린, 티어가르텐, 베를린의 주거. IBA87 참가. (사진25)

외장은 붉은 벽돌에 충마다 노란 벽돌띠를 두르고 있다. 톱라이트가 있는 계단탑, 창문위에 둘러진 벽돌띠 등에서 로시의 변화를 예고케 한다.

3. 로시의 생각

a, 유형학과의 관계

알도로시는 유럽건축계에서 가장 매력있는 사람으로, 신합리주의의 경계에 서 있다. 실현된 것은 적은 수의 건물이고, 거장다운 작품을 만든것은 아나지만, 그의 도면과 계획안은 모든 건축가들의 그러한 의심이나 그 전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새로운 면을 보여 주었다. 1950년대말 로시는 신자유운동¹⁶⁾에 참여한 로저스¹⁷⁾를 따르는 학생그룹의 멤버였으나, 그 학생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로시는 신자유운동의 한계를 먼저 알게됐으나, 이를 발전시킬 기회는 없었다. 아돌프 로스¹⁸⁾의 엄격함에 대한 로시의 진지한 태도로 인해 로시의 친구들에게 개인적, 심리적태도를 외심받았다. 또한 그는 건축역사의 문화적 단절에 관한 그의 안목으로, 일반적으로 옳다고 인정되는 기능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산업생산과 근대건축 운동의 출현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바라보았다.

그는 벌써 그의 "시학"(詩学)되에 숨겨진 원리에 대해⁽⁹⁾ 진정한 신합리주의자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차이점들을 명확히 했다.

"나의 프로젝트와 글중에서 적은 수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고정된 세계를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즉 이해된 사실만으로 구성된…… 건축에 관해 어떤것을 흥미롭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식의 문제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 건축에서 지식이 문제인가? 그것은 내 직업이 건축이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 ………



▲티어가르텐 베를린주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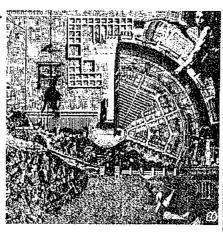
건축이라는 직업을 갖지 않았다면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누구나 그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능숙한 솜씨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되면 예술이나 건축에 대해 현대건축운동이 공헌하려는 가치를 -- 태도나 공식적 결과라는 이름으로 — "다시 찾는" 태도를 거부하고.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서, 논쟁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나는 다른 시작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대건축은 (Modern Architecture)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여러 종류의 모델 (Model) 중에서 단순한 모델을 찾고자 한다. 최대의 어려움은 모델을 묘사하는데 있다. 우리들은 모두 이상적인 모델을 지니고 있으며, 이상적이거나 전형적인 형태로 그것을 그려낼 수 있다고 만든다. 그러나 그것을 묘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부력함을 느낀다. 그러나 모델 사체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그것의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어떤 경우돈 생각을 바꾸어 보는 것은 바꾸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다른 표상의 단서들을 제공한다. 우리가 빌려온 형태들이나 또는 스스로 표상으로 바뀌인 형태들은 계속 남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형태의 영원성은,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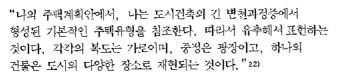
1965년경 로시가 "카샤벨라"를 떠나, 그의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를 위해 필요한 어휘를 개발하기 위해 그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게 되나, 그의 이론은 건축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졌다.

"적은 대상으로 이루어진 고정된 세계"란 그 이후의 15년 간의 작품을 너무 세심하게 만든 귀납적 프로그램의 공식이 된다. 그의 건축세계는 기하학으로 그려 역사의 여과작용을 거쳐 "집단의 기억"을 만드는 원형(Archetype)에, 심상에, 또는 의식에 호소하여 자기확인의 시도를 하는 기본적 형태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기등의 원형은 원통이며:신전정면 상부의 박공면(Tympanum)과 경사진 지붕은 삼각과 사가형으로 추출되고:프리즘은 동변삼각형으로 된다. 창은 사각형으로 찾아낼 수 있다. 형태는 자율적인 가장 간단한 형태인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큐폴라는 기하학적 특색에 따라 피라미드나 반구와 같다. 모서리를 접은 단면으로 된 벽은 다각형에 기초를 둔 평행육면체나 프리즘으로 둘러싼다.

로시의 구성적방법은 이러한 원형 (Archetypes) 들의 조화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조합이다. 사용된 요소들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로시가 형태를 처리하는 태도를 찾아내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유추적 도시계획안 ▶





확드르메르 드 컨사²⁸⁾의 유형의 정의는 아르간에 의해 소개되었다. 아르간은 "건축의 유형학과 이콘 (Icon)²⁴⁾을 추출하는 작업사이에는 분명히 유추작용이 있다"고 했다.²⁵⁾ 이글의 주제는 유형학이 아니다. 로시와 유형학을 결부시키기 보다, 로시를 이데아 (Idea) 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수많은 유형을 가능케 하는 단 하나의 원형은 이데아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 "이데아" 론을 다음의 예로 설명하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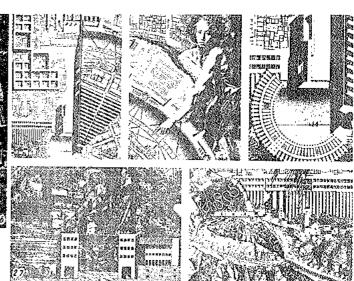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사각형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수도형인 사각형 (즉 수학적 정의에 따라 구성된 도형과 같은)에 비하면, 모두다 불완전한 유형들이다. 네모난 종이, 네모난 방, 우리가 모래에 그린 사각형등…… 단지 유형으로서의 사각형들이 사각형으로 불리는 것은 그것이 순수한 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로시가 이야기한 "적은 대상으로 이루어진 고정된 세계"란 바로 이데아의 세계를 지칭한 말이다. 알도로시는 단한번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설계를 함 수

알도로시는 단한번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설계를 할 수 없어야 한다. 그가 그려낸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데아의 세계라면, 로시는 평생 단하나의 "이데아"로서의 공간을 찾아 고집스럽게 작업을 했다. 우리는 순수한 도형 — 이데아 — 으로서의 집, 극장등은 그려낼 수 없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로시가 그것에 도전해 만들어낸 것이 갈라라테제 아파트와 세계극장이었다. 로시는 아이모니노에게서 유형에 관한 작업을 같이 진행했어도 그와는 다른 태도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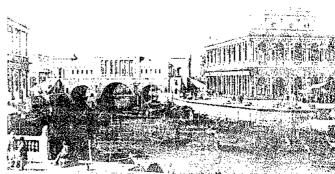
최근 한국의 잡지중에 유형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26

b. 유추적 건축

로시의 계획안들은 "유추적 도시"라는 개념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그의 핵 "도시의 건축"에 나타난 개념이며, 이 주제로 여러면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작품을 통한 로시의 유추작업에는 두종류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사진26, 27〉 (1)장소의 이탈: 유형학적 창출을 통해 건물이 놓인 지리적 타당성을 제거한다. 이때 사용하는 예가 카날라토의 회화이다.



▲유추적 도시계획만 부분들



▲카프리쳐오



▲비센짜의 바실리카

(2)스케일의 해탈 : 개별건물이 유추를 통해 도시전체로 확산되어 간다. 이것은 디오클레티안궁전의 예를 이용한다. 궁전의 유형학적 형태속에서 전체 도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²⁷⁾

장소의 이탈의 상징적 행사로 베니스 비엔탈레에서 바다극장이 시공, 완성된 후 배와 함께 이동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즉 건물이 "이대야의 건물"이기 위해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해포팅이었다. 전시후에 다시 이동해서 베니스에서 사라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축에 관한 근본적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

장소의 이탈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로시는 할마 미술관에 있는, 베니스의 환성적 경치를 그린 카닐레도²⁸⁾의 그림 〈사진28〉을 예로 든다. 마치 화가가 실제의 도시풍경을 그린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팔라디오의 3개의 계획안

- 리알토 다리 (Ponte di Rialto),
- 비센짜의 바실리카 (Basilica of Vicenza, 1549년)
 (사진29)

- 치에리차티궁전 (Palazzo Chiericati, 1550년) 올 그린 회화 "카프리치오" (Capriccio, 광상곡) 를 예로 든다. 3 개의 팔라디오의 계획안은 실제로 베니스에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는 계획안이고 나머지는 비센짜에 있다.) 그럼에도 "유추된 베니스"는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

회화에서 기념물들을 지역을 바꿔가며 구성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건축참고물로서의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하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어떻게 논리 작용이 디자인의 방법론으로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개개 요소가 미리 갖추어져 형태로 정의되는 건축설계의 이론으로서의 가설로 뿐만아니라, 그러한 논리적 가설로서 작품의 진정한, 예기치 못한, 본래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로시는 알 수 있다고 했다. 29) 평론가 사비는 이러한 "카날레토의 시각"이 1964년 로시를 강한 영감속에 사로잡았다고 보았다. 30) 시로니 (Sirini) 와 키리코 (De Chirico) 의 회화로 부터의 간접영향을 로시도 인정한다. 로시는 도시구조체의 건축기념물과 도시 사이에, 도시의 부분과 전체사이의 관계를 제안했는데 이 관계란 "주택은 작은 도시이며 도시는 거대한 주택"이라는 알베르티의 이론을 다시 확인하여 인정한 것이다.31) 로시의 건축에서 사물들은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해도, 최근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특성, 기억들 그보다 연상들은 퍼져나가 명확해지고, 기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건축가들은 3차원의 형태를 이끌어내는데 4가지 방식을 사용해왔다. 실용적방법, 인습적방법, 유추적방법, 규범적방법 등이다.

"새로운 단어는 대부분 유추작용에 의해 태어난다."는 말과 같이 새로운 시각적 형태는 흔히 유추적 과정의 산물로 보는 생각을 말한다.³²⁾ 융운 프로이드와의 편지서신에서 "유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논리적 사고'란 외부세계를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비해 '유추적사고'란 비현실적, 상상에 의한 것이며 침묵에 의해 전달되는 과정이다. 유추적 사고는 말에 의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독백으로서 과거에 대한 주제를 명상하는 것이다."³³⁾

유추적 디자인은 1. 인용 Quotation 2. 우상적 유추 Iconic Analogy 3. 환유 Metonymy 4. 상사 Homology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상황과 배경

a. 이탈리아 건축가들의 고통

이탈리아 건축의 특징은 역사나 전통개념과 건축사이외 이론논쟁과 이데울로기와 건축사이의 논쟁 및 상호작용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 1914년의 미래파운동의 기계미학을 찬양한 급격하고 혁신적인 구상으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반미래주의적 성향, 정치는 신민족주의적 풍토속에서 고통스럽게 발전해왔다.

라 본다 (La Ronda: 광장, 문학그룹), 발로리 플라스타치 (Valori Plastici: 조형의미, 회화그룹), 미라노 900그룹 (Milan 900: 1900년대의 미라노 화가그룹) 등의 영향으로 건축가들도 유럽의 1차세계대전 전의 전위예술가의 실험은 실패로 판단하고, 국세주의를 부정하고 과격한 미래주의를 피하여 새로운 고전주의의 성향을 나타냈다. 이때 건축가로는 무지오 (G.Muzio) 가 대표적이다.

1920년부터의 공업화는 19세기의 후진국으로 부터 경제부흥의 노력의 결정이기도 한데, 파시즘의 승리와 같이 진행되었다. 1926년 창설된 GROUP7을 통해 합리주의가 탄생되나, 온건한 반 - 미래주의적 태도를 지닌 7명의 건축가는 1928년에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운동 (M.I.A.R.)³⁵⁾ 에 흡수되며 합리주의 발전의 전성기를 맞는다. 합리주의자와 무소리니가 표방했던 근대기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이에따른 신고전주의의 출발은 소수건축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건축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미라노 900과 같이 활동하던 건축가들은 현상설계등을 통해 온건한 전위적 태도를 취하며 신바로크운동과 함께 과학적 계획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1931년에는 무솔리니가 제 1 회 이탈리아 건축전 개관에 참석하기도 한다. 1936년경에 이르러 무솔리니를 따르는 신고전주의자들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파시스트양식의 기념비적 건물을 낳게 된다. 그동안 소수의 진정한 합리주의자들은 전쟁의 와중에 정치적 저항운동을 벌이다 집단수용소에서 죽게된다. 그러한 건축가들은 파가노 (Pagano), BPR의 반폐 (Banfi), 고일리 (Goilli). 라보 (Labo) 등이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현대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의 현대건축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 2차세계대전 전후의 상황과 건축활동과 건축가의 자세를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1930~40년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기록이 완전치 않다. 이탈리아의 현대건축은 파시즘과 같이. 파시즘에 의해, 파시즘사이에서 태어났다. 36) 그런시대에 건축분야의 파시즘의 다이나막한 요소는 미래파적인 것을 수용하여, 예를 들면 지아코모 마테 트르코가 설계한 튜린의

무솔리니가 로마에 입성한뒤 절대적이던 중류계급의 요구가 묵산되었다. 급속한 공업발전과 함께 부르조와 정치조직은 해체되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약으로 파시스트 노동조함이 노동자을 대표하게 되었다. 경제자립정책으로 공업발전과 함께 농업적 성격도 강조되었다.

피아트자동차공장 (1920~23년) 올 둘 수 있다. 능률주의적,

공업우선적, 협동조합적인 새로운 질서의 상징으로.

건물옥상에 설치된 주행 시험로는 화제가 되었었다. 파시스트적, 카톨릭 노동윤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평되었다.

배니도 무솔리니가 로마입성을 한뒤 며칠후인, 1934년 10월 22일, 시대에 따라 어수선하게 증축된 다우그스터스황제 무덤을 해체할 것을 명했다. ³⁷⁾ 듀체 (무솔리니의 별칭)는 "제국로"를 만들기 위해 주위에 있는 많은 거리와 건물이 훼손되었다.

전쟁후에도 밀라노와 로마 두도시에서 서로 다른 태도로

건축이 진행되었다.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였으므로 그 여파가 컸고 밀라노는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대건축의 투쟁의 중심지였다. 밀라노는 부르조아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건축가와 예술가에게 적합한 토양이었다.

b. 합리주의³⁸⁾

2 차세계대전후의 로마에서는 건축가들이 개인적 후원자 없이 활동을 했고, 미라노에서는 사적인 고객을 지닌 공업도시에서 활동을 했다. 로마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보르노 제비등을 중심으로 "유기적 건축" (A.P.A.O.) 운동³⁰이 전개되고 내륙 깊숙이 자리잡은 미라노등에서는 BPR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건축가들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반 – 모더니스트 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1961년 로시는 세메라니, 텐트리와 함께 잡지 키사벨라 콘티뉴타를 통해 1945~60년까지의 이탈리아 건축을 재조명하는 특집을 실었다. 왜 이탈리아건축가들이 파가노 (Pagano) 대신에 르 꼬르뷔제를, 페르시코 (Persico) 대신에 아들프 로스를, 달랑코 (D'Alanco) 대신에 피터 베렌스를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로스를 연구했던 로시로서는 자신의 반성을 포함한 일이었을 것이다.

1964년부터는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이 건축학도자유연합 (ALSA)⁴⁰¹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점차 정규교육을 거부하고 토론그룹과 학급을 조직하여 활동을 했다. 전쟁후의 이탈리아 건축계의 내적 격변기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건축이라는 직업과 직능에 대해 회의를 갖게되고 건설산업 발전에 따른 스스로의 역할과 위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기술적, 구조적측면에서의 건축보다 형태적, 사회정치적 지향의 이론적, 이상적건축을 내세운 그들의 선배에게 학생들은 반대했다. 이점은 독일의 실증적 건축이나 프랑스의 합리적 태도와 비교하여 본 이탈리아인 자신들의 전통에 연연한 미온적대도와 이탈리아의 낙후된 산업에 대한 반발이었다.

1964년경 ALSA에 의해 이탈리아 건축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첫번째 반발이 있은 후 GRAU(로마건축가 도시설계가 그룹)⁴¹⁾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이탈리아 건축가 모임으로서는, 근대사조로부터 자신들을 명확히 하고, 솔직하게 다른 입장을 표명한 첫번의 모임이었다. GRAU의 제안은 신자유운동 (Neo-Liberty), 신현실주의 (Neorealism)의 용호보다는 근원적인 (Radical) 것이었다.

"새로운 것의 전통"을 분석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이론적 도구는 건축의 복합성과 모순된 현실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서구문화에서의 "고전적"선언과 같은 의미의 전통이었다.

- 1. 신고전주의와 절충주의에 따라, 근대사조의 변혁에 대한 박시즘적 해석상으로 근대건축이 "부르조아의 건축"의 연속된 것이라는 신념.
- 2. 예술개념에 대한 재평가 : 갈바노 텔라 볼페의 "취향의비평" (Critique of Taste)에서 나타난 철학에 의해지지된대로, 후기낭만주의적 내포에 의해 박탈되고, 역사적,물질주의자의 해석에 의해 판단된대로. : 루이스 칸의 건축적경험과 1950년대의 근대건축의 지도자들의 작품중 자기비평적 태도로 수정을 한 작품을 경험하고.

베니스, 아드레날레의 ▶ 코르데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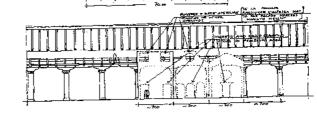


전시장 내부▶



▼전시장 계획도면

Practical di Sico



여러 세대의 건축가들의 노력은, 당시 비라노, 베니스, 로마 등에 나타난 유형학과 도시형태학 사이의 관심은 GRAU를 배경으로, 1968년 소위 "텐덴짜" (Tendenza)라는 구룹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로시의 "시학 (Poetics) — 이데아의 세계"로 부터, 칼로 아이모니노의 "유형학과 형태론"으로 부터, 그레고티의 "건축공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부터의 요소를 취합한 운동이었다. 42

갈라라테계 주거단지가 완성되었을때, 이 건물이 그동안의 대립을 해결한 - 전통과 미래와의,합리주의와 신고전주의나 로마의 유기적 건축과의 대립을 해소한 건물로서 칭찬되고 추앙받았다.

1975년부터 합리주의 운동은 유럽에 확산되어 베를린, 파리, 미라노, 베니스, 로마, 브루셀, 바르셀로나등을 중심으로

책의 발간, 강의, 전시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전시회를 "알도로시와 21명의 추종자들"의 모임으로 부르기 조차 했다. 이들은 "라 텐덴자" (La Tendenza) 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통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향" 즉, 텐덴시, 텐덴짜로 대표되는 그룹의 활동목표는 인간의 환경증진, 기존 건축문화의 보존, 기존건축물의 파사드 유지등이다. 오늘날 영향력있는 건축가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이탈리아의 신합리주의자들의 모임일 것이다. 1973년 밀라노 제15회 트리에날레 전시회에서 두드러졌다.48) 이 움직임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세계적 건축가들의 참가속에 확산되었다. "과거의 현존"(La Presenza del Passato), 이 말은 비엔날레의 주제를 나타낸 표어였다. 1980년의 베니스 비엔날래의 목표는 시공을 초월하여, 과거에 대한 유추작업을 개인적으로 진행해온 각국의 건축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근대건축의 태도 - 기존환경이나 역사적으로 앞선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 와는 다르게. 비엔날레에 출품된 건축기들의 작품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므로써 실패를 극복하려 했다.44) 스트라다 노비시마 (새로운 거리 : Strada Novissima)

개념은 1979년 12월에 포토게시, 칼로 아이모니노와 알도 로시가 요제프 클라이웨스가 개최한 칼 프리드리히 쉰챌을 기념하기 위한 베를린 세미나에서 태어났다. 그들이 공원에 갔을때, 근처 거리에서 각면이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진 가게를 포토게시가 바라보며 생각을 떠올려 시작되었다. 전에 조선소의 밧줄만드는 공장이었고, 화재가 났던 자리에 있던 베니스, 아르제날레의 코르데리아에서 열렸다. 초칭된 20명의 건축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전시용 코너의 입면을 다양하게 장식을 하여 베니스 비앤날레에 전시했다. 45 〈사진30~32〉

5. 로시에 대한 견해

건축가가 어떤태도에서 다른 태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이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건축가로서 일생동안 한가지의 신조를 끈기있게 지켜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로시에 대한 세인의 기대는 애매한 점을 포용한 집념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건축가로서 실천에 앞서 이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그러한 이념에 포로가 되어 해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또한 로시가 공산당원이었다는 사실이

■ 註

- Aldo Rossi, "Thoughts About My Recent Work", A+U, 1976: 05, p83
- 2) A+U: 1976: 05, Aldo Rossi, p83.
- 3) Casabella Continuita: 잡지의 이름은 "아름다운 건물의 역사성" 이라 할 수 있다. 1928년 창간, 1982년 명칭을 Casabella 로 바꾸고 새로운 시리즈로.
- 4) Nuovi disegni per II mobile italiano
- 1. L. S. E. S.: Istituto Lombard di Studi Economical e Statistici
- I. U. A. V: Istituto Universitario di Architettura di Venezia
- 7) INU: Istituto Nazionale di Urbanistica
- 8) 불레, Etienne-Louis Boullée (1727~99)
- 9) Franco Albini, 1905~1977년, 코모출생. 미라노공과대학 1929년 출업. 1930년 사무소시작. 1949~64년 베니스건축대학교수. 1964년 미라노공과대학교수. CIAM회원. INU회원. CNR 과학연구소 박물관담당회원. 합리주의와 과학적 태도로 설계함.
- 10) E. T. H.: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 The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
 New York. 건축도시연구소, 피터 아이젠만은 연구이사로 활약.
- 12) 로마 인터로다 (Roma Interrotta, Rome Interrupted) 이탈리아 교통성 후원으로 열린 1978년 로마 전시회, 로우, 크리에형제, 사르타고, 다르다, 구름바흐, 스털링, 포토게시, 제골라, 벤쥬리, 그레입스, 로시등이 참가해 중세로마지도를 1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아무 내용이나 계획해 보도록 외뢰받은 전시회.
- 13) Pregrttie e Disgni 1962 ~ 1979
- 14) A+U: 1986: 01, pp19 \sim 26
- 15) A+U: 1986: 03 및 베를린 국제건축전 1987, 동재육역, 집문사. pp84~86참조.

- 16) 네오리비티운동 : 이탈리아판 아르누보운동
- 17) 벨라스카탑을 설계한 BPR 의 로저스로 잡지 "카샤벨라 콘티뉴타"의 주필을 역임한, 후에 잠시 Domus 의 편집장을 맡기도.
- 18) "장식과 죄악"을 쓴 건축가
- 19) 프란체스코 텐토리가 다시 인쇄한 1963년의 아퀴라전시회를 위한 카다로그에 수록된 편집에서.
- 20) Paolo Portoghesi, After Modern Architecture, pp91-92 (방점은 필자)
- 21) Paolo Portoghesi, 앞잭, 같은쪽,
- 22) M. Lampugnani.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윤재희, 지연순역 "현대건축본" p357에서 재인용.
- 23) Quatremère de Quincy
- 24) Icon: 이뜻은 1. 그림이나 영상아나 기타의 조각상, 2. 회합 정교회에서의 예수나 성자의 상, 3. 논리적 의미로서 대상을 유추하거나, 유사한 가치를 지닌 대상을 대표하는 기호나 묘사된 내용등의 뜻중에서 3의 내용으로 해석하고 Iconography 는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도면으로 묘사하여 Icon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 Icon의 이미지나 묘사된 대상을 가르킴.
- 25) Giulio Carlo Argan, "On the Typolog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1963: 12 "There is an obvious analogy between architectural typology and iconography."
- 26) 잡지 "건축과 환경"의 몇년간의 노력은 유형학과 이의 한국적 수용의 문제로 귀착된다. 1987 : 09월호를 참조할 것.
- 27) Peter Eisenman, 서분, 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p9
- 28) 카날레토 (Giovanni Anntonio Canaletto, 1699~1768) 베니스의 저명한 풍경화가. 그가 그런 그림중에는 당시의 건물들이 세밀히 묘사되어 있다. 베니스시민에게 친숙한 경관을 정말하게, 병쾌한 광선으로 묘사했다. 작품은 "석공의 작업장" (베네치아 각포 산비달레 그리고 산타마리아 델 라 카리타)" 베네치아의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데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현상설계를 통해 많은 시도를 하나, 60년대에서부터의 그의 노력은 좌절되고 7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숫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은 일반대중에 의해서 그러한 태도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건축가들은 형태를 합리적이거나 경제적 이유에서건, 양식에 대한 반발로서건 단순한 것을 취했다. 로시는 이러한 형태는 근대건축가들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유산으로서 다양한 형태속에서 단순한 예들 (Model, Type)을 찾아 활용한 것을 지적했다.

로시가 라틴문화권에서 찬양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적 공통속성에 연유할 것이다. 그들의 단순한 예의 원천은 로마와 그리스로 통하기 때문에 남부유럽에 산재한 라틴문화권⁴⁶은 그들의 원형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다.

로시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에 대해 미카 반다니는 일시적, 감동적 평가를 하는 경우와 (영어문화권의 경험주의적 전통에 있는 평론가는 제 4 시기의 작품에 감동한다.) 문화직태도의 다양한 면을 보이는 경우로 (같은 라틴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로시가 지적이고 사회적기능, 정치적기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시한다.) 나누었다.

한국의 독자에게는 로시의 무엇이 의미있을까? 로시외 태도대로 그들의 세계를 "유추적 사고"로서 형태의 원형을 볼 것인가? 우리에게도 이데아의 세계는 있다고 낙관함 것인가? 잠시 잃어버린 이데아의 세계로 끝없는 여행을 할 것인가? 사서삼정에서 우리 자신의 이데아를 바라보고 형상화할 것인가?

베니스 비엔날레 1980의 시작에서처럼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말대로 시공을 초월하여 세계공통적인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로시를 이해하는 일과 로시의 건축물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적 감홍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미적가치, 판단기준과 취향이 어떤문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력이 얼마큼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그러한 가치를 지닌 건물이 지금 있거나, 앞으로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다시 깨우쳐 확립된 뒤에나 우리 자신에게 의미있는 건물을 골라낼지도 모를 일이다. 유럽의 대륙중심주의⁽⁷⁾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이야 할까?

세편等경", "피아제타에서 본 산타 마르코" 등이 있다. 참고사진, 비셴짜의 바시리카, A÷U∶1976, 12. p7. 그림7. "외관"

- 29) 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pp165~167.
- 30) Micha Bandini, A+U, 1976, 05. p74
- 31) Portoghesi, After-Modern Architecture, p94
- 32) <u>비로드벤트</u>, 디자인방법본 Design in Architecture, 이광노외역, pp48~81
- 33) A+U, 1976, 05, p74
- 34) 환유한 치환하여 비유하는 것, King을 Crown으로 비유하는 것.
- 35) M. I. A. R.: Movimento Italiano per L'Architettura Razionale
- 36) Fransesco Dal co, "Architettura Italiana Durante il Fascimo", A+U: 1978: 07, pp95~104.
 W.G.Lesikowski, 박순관·이기민공역,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건축" pp151~156. "이탈리아에 있어서 무숍리니의 기념비적 고전주의"
- 37) H. A. Millon & L. Nochlin(ed), "Art and Architecture in the Service of Politics", Spiro Kostof, 14. The Emperor and the Duce, pp270~325.

 "곡맹이를 위한 담화문! (la Parola l Piccone!)"
- 38) 지금은 "신합리주의"라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발도 시대변, 시기별 합리주의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 형용사 Neo, New 등은 시간이 흐름수록 설득력이 약해지거나 용어가 보호체지다.
- 39) A. P. A. O. : L'Associazione per 'Architettura Organica
- 40) A. L. S. A. : L'Associazione Li bera Studenti Architetti
- 41) G.R.A.U.: Groppo Romano Architetti Urbanisti
- 42) Portoghesi, After-Modern Architecture, p97
- 43) 트라엔날레(Triennale)는 1923년(1회)에 시작되어 3년마다 열리는 예술에 관한 전시회로 4회까지 문짜에서, 5회부터는 미라노에서 계속되고 있다.

- 1930년 (3회), 1930년 (4회), 1933년 (5회), 1936년 (6회), 1940년 (7회), 1951년 (9회), 1954년 (10회), 1957년 (11회), 1960년 (12회), 1963년 (13회), 1973년 (15회), 1979년 (16회)
- 44) 베니스 비엔난레 (Biennale : 1980년 : 40회)는 때 2 년마다 열리던 시각예술의 "선언적" 작품들과 같이 전시되던 건축부문이 제 1회 국제비엔날레로 기획된 것이다. (포토게시) "A rchitecture 1980, The Presence of the Past, Venice Biennale" New York, Rizzoli, 1980.
 - 1 회 : 박토리오 그레고터의 "유럽과 미국" 2 회 (1980) : 포토게시의 "과거의 현존" 3 회 (1985) : 알도로시의 "베니스 프로젝트"(10개의 프로젝트 현상선계) (A+U)
- 45) 참가한 건축가들은 다르다, 그래입스, 캐리, 웅기스, 벤쥬리, 크리에, 클라이웨스, 홀라인, 포참짝, 그린내그, 콜하스, 보필, 무어, 스턴, 국리니, 타이거만, GRAU, 스미스, 이조자가 등 20명이 있다.
- 46) 라틴문화권 : 고대로마이로 부터 유래된 언어를 서용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무갈, 루마니아 등의 민족의 문화권.
- 47) 자기민족중심주의를 가리킨 말로서, 인류학, 민족학 등에서 말하는 Ethnocentrism 이 이에 해당된다.
- 48) Udo Kultermann, "Space Time and New Architecture", A+U: 1981. 02. pp13~16
- Progressive Architecture, "Tendenza-Italian Rationalism, Rossi and Aymonino", pp49~65.
- 50) Udo Kultermann, "Palladio's Basillica in Vicenza", A+U: 1979: 12, pp3~8.
- 51) P. Arnell and T. Bickfold, "Aldo Rossi: Buildings and Projects", New York Rizzoli, 1985.
- 52) V.Grogotti, 이탈리야 건축의 신경향.
- 53) GA Document, Special Issue, 1970~1980.

特殊學校의 建築環境施設에 関한 研究

申元湜+劉永哲

文教部 教育施設局 建築技佐・建築技正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Facitilies of Characteristics School by Sin, Won-Sik & Yoo, Young-Chul

現代社会에서 障碍者의 발생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장애자에 대한 생활환경의 정비나 시설현황은 외국에 비해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実情이다. 특히 特殊学校의 시설설비가 일반학교와 같이 설계되어 온 것은 身体障碍者들에게 적지않은 苦通을 주어 왔었으나 本 연구에서 는 특수학교시설의 건축환경의 계획방향과 설계기준을 제시 기초적인 연구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필자주〉

Ⅰ. 序論

산업의 고도화 속에 장애자의 발생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1 년에 心身障碍者福祉法을 제정하였으나, 장애자에 대한 생활환경의 정비나 시설현황은 외국에 비해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特殊学校施設의 건축환경의 계획방향과 설계기준을 제시, 기초적인 연구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Ⅱ. 障碍者의 定義

障碍라는 것은 일반적으로「身体 혹은 精神에 무엇인가 異常을 가져서 그 때문에 日常生活 및 社會生活에 얼마간의 不自由를 가지고 있는 짓」이 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障碍種類, 移動形態,物的環境條件에 따라 장애자의 정의 및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障碍者福祉法에는 障碍者를 肢体不自由,視覚障碍,平衡機能障碍, 音聲 또는 言語機能障碍,精神薄弱 또는精神障碍等,心身이持續的인 障碍로 인하여 個人生活 또는 社会生活에 相當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別途로 定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표 1참조》

Ⅲ. 特殊学校의 実態

1980년 12월,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特殊學校의 現況分析 研究"의 문헌에 의하여 그 실태를 보면〈표2〉, 〈표3〉과 같다.

취학아동의 경우 단순 장에아동은 75.4 %중복장애아동은 26.4%이다. 이들 중복장애아동은 정신박약자학교(50.4%) 와 지체부자유자학교에서 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Ⅳ. 肢体不自由者의 特性分析

1. 身体的 特性

1) 行動能力

지체부자유자와 건강한 사람 사이의 행동능력중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基本動作能力이다. 물론 장애의 정도나 중복장애로 인하여 시·청각등의 인식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체부자유자에게 가장 많은 장애는 동작능력의 상실 또는 결여이다.

2) 可動範囲

지체부자유자가 바퀴의자를 타고 있을 때의 손의 可動範囲 및 바퀴의자, 自体의 動作特徵과 必要空間은

障碍種別	障	碍	程		別	單	純			-	重	複	障	碍	類		型			<u>i</u> t
學校	學		生	,,,,,,,	數	障	碍	視	覺	聽	覺	精	薄	肢	體	言	語	行	動	ä (
視覺障碍者學校	宣				817		1, 070				11		33		12		2		24	1, 152
机鬼件时位子以	弱酮	ī			335		32, 9)				(1.0)		2. 9	,	(1,0)		(0.2)		(2.0)	(100)
. 陈颜晓四北别坎	홿	<u>L</u>		2	185	•	3, 329				,		117		25	i			11	3, 482
聽覺障碍者學校 	重難	祖志		۵,	882	l .	95. 6)			i			(3.4)		(0.7)				(0.3)	(100)
			de Hata		354	[\)), U)						(/	!	, · ,					
		· 医第	狂賑		61	İ						İ		İ						
	輕難		Mr.	1			1, 467	ļ	20	İ	41	-		ļ	203	•	262	Ì	962	2, 995
精神薄弱者學校	_	可能			392	1					(1.4)			i	(6.8)		(8.9)	١,	(32. 6)	(100)
	ŀ	可能	拒		279	(*	49, 6)		(0.7)		(1.4)				(0.0)		(010)		(-, -,	()
	要例				284							1	159			1	9		217	965
肢體不自由!	1	ⅳ版₩			190		580										(1.0)		(22.5)	(100)
者 學 校	兩一	版	麻痺		294	(60)	ļ					(16, 5)	ļ			(1.0)		(22. 3)	(100)
	單	上肢机	秣痺		63															
	兩」	上肢排	麻痺		19					ļ						İ				
	四版	娜	庳		226	1		1						1						
	體幹	全変分	形		98															
ł	偏雅	煉			75									ļ						
<u></u>				8	, 554		6, 446		20		52	:	309		240		273	1	1, 214	8, 554
						((75. 4)	<u> </u>	(0.2)	}	(0.6)	<u> </u>	(3.6)		(2.8)	<u></u>	(3.2)		(14. 2)	(100)

〈표 3〉特殊学校 취학이동의 장애종별 및 정도별 실태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건축공간의 계획및 건축부품의 설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2、動作特性

1) 通行動作

지체부자유자의 Accessibility에 관련하여 생활영역을 제한하는 정도가 강하다. 일반적으로 노면의 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받으며 경사지나 계단 같이 수직이동을 하는 곳에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내부공간에서는 복도, 계단, 경사로, 출입구, 외부공간에서는 주차장, 구내통로 등에서 이 동작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V. 学校施設의 建築環境

1. 出入口(Entcance)

1) 視覚障碍

시각장애자는 건물의 입구부근에서 부터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고 난간 등을 분리한다. 입구 상부에 盲導 벨(Bell)등을 설치한다.

玄関이나 主要한 곳에는 自動門 미닫이式 멧트스위치型이 바람직하다.

2) 上・下肢障碍

문은 手動으로 무거운 Door Check나 Floor Hinge등을 피하고 玄関周囲의 바닥材는 젖어도 미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Plastic Tile이나 마석재 등을 피한다. Wheel Chair사용자는 시선높이가 낮기 때문에 안내판 등도 낮게 설치하고 앞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는 것이 좋고 조작을 요하는 물건은 낮지 않으면 취급하기가 곤란하다. 현관등은 자동문이 좋고 멧트의 길이는 약간 긴 것이 좋다. 계단참은 충분한

넓이가 필요하며 도중에 꺾이는 형식의 회전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Wheel Chair의 Foot rest가 벽 또는 난간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닥위 35cm 까지는 유리등과 같이 파괴되기 쉬운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出入口 도아형식

장애자 입장에서 개폐 동작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미닫이문이 여닫이 문보다 간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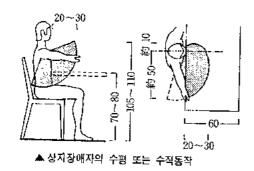
- ① 미닫이문 : 도아 바퀴를 달면 좋으나 밑의 도아 바퀴는 고장나기 쉽고 문턱이 커지므로 현수 도아 바퀴가 좋다. 이것으로도 무거울 때는 활차등을 붙여서 조절한다.
- ② 여닫이문: 도아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안쪽으로 여는 것이 좋다. 자동 폐쇄 장치(Door Closer)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丑1〉全国心身障碍者推定人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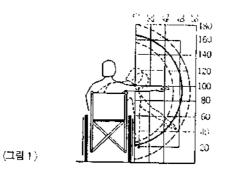
구 분	장 애 자 수 (천 명	출 현 현율 (인구 1,000명당)	구 성 비 (%)
장애종별 계	(천 명 915	22, 2	100
지 체 장 애	533	12.93	58. 3
정 신 박 약	79	1.92	8. 6
시 각 장 애	59	1.43	6. 4
청 각·언 어	244	5.92	2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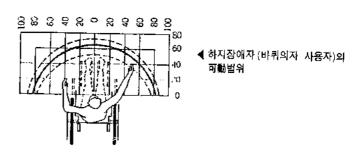
(丑2) 特殊学校의 設立別 및 学校級別 実態

年度 학교급별	-45	46 – 55	56-60	61-65	66 - 70	71-75	76 - 80	계
취학전과정							1	1
국민학교과정	2	11	3	9	12	17	10	64
중학교과정		5	2	3	1	5	11	27
고등학교과정		2		2	1	2	3	10
계	2	18	5	14	14	24	25	102



상지마비자 수직통작





- ③ 유효너비: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80cm 이상으로 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도아를 개폐하고 통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
- ④ 투명도아: 열린도아에 충돌하지 않고 도아의 반대쪽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투명도아로 하거나 관측판넬(투명부분) 을 설치하는 등의 연구를 한다.
- ⑤ 표식: 보일러실이나 짐을 내리는 플렛포음, 기계실과 같은 위험이 따르는 곳으로 시각 장애자가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도아 핸들에 요철을 주거나 기칠게 하는등 필요한 표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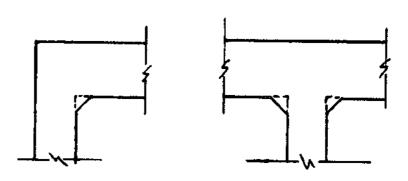
2. 순환과정(Circulation)

순환과정의 種類와 障碍者의 移動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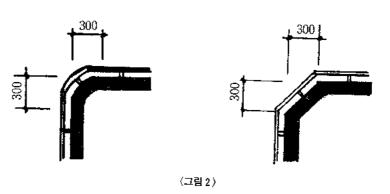
Circulation이란 건축물의 입구보부터 객실에 이르기 까지의 경로를 가르키고 있다. 결국 출입구, 홀, 복도, 계단, 에레베이터, 에스카레이터 등이 통상 Circulation에 포함된다. 장애자의 행동을 생각하면 바닥이 수평인 것이 이상적이나 토지의 상황과 건축물의 종류규모에 따라 다단층으로 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수평방향의 이동방법과 따로 수직방향의 이동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 4〉순환과정의 種類와 移動方法

区	分	建物의入口	通 水平方向 ⁹	1移動		格 향의移動	通路般
自力에 移動	依む	Entrance Hall	複	道	階	段	門
機械에 移動	依한		步	· 道	에레베(에스카		自動門



点線分部의 벽을 처리하면 시야가 넓게 보인다



2) 복도

현관, Hall 에서부터 객실에 유도하는데 필요한 것이 복도이다. 장애자에게 이용하기 쉬운 복도를 설계하는데는 바닥(幅, 段差의 除去、마감) 벽 (마감, 손스침) 기타(照明, 誘導) 등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모서리 處理

Wheel Chair 사용자가 복도 모서리 부분에 충돌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복도에 각진 부분 교차부에 모서리를 처리하여 개구부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바닥, 마감재, 段差의 際去 体幹機能, 障碍者와 体位균형이 나쁜 장애자를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이든 간에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Wax를 필요로 하는 바닥재는 좋지 않다. 장애자를 위하여 동일층에서는 段差를 설계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써 부득기 段差를 두어야 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段差와 함께 경사로를 병설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Hand Rail

가볍고 잡기쉬운 ○형이나 ○형이 좋다. 또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어 잡는 것이어려운 사람 신체를 기대어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면이어느 정도 평탄한 손스침이 좋다. ○형인 경우 손스침의 직경은 4.0~4.5cm가 좋다. 손스침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부터 80~85cm가 동상사용하고 있고 소아가 잘 이용하는 시설로 병원에서는 80~85cm 손스침외에 65cm위치에 한개 더손스침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傾斜路

Slope의 폭은 적어도 참에서 화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Wheel Chair 가 서로 교차하기 위해서는 lm80cm가 필요하며 1/12의 구배는 외국의 기준과 동일하다. 참의 공간은 적어도 1m80cm × 1m80cm의 수평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재료는 미끄럽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횡단면은 반드시 수평으로 해야 한다. 약간의 단차에도 Wheel Chair 사용자나 체간기능 장애자에게는 장애가 된다. 목발 보행자는 이것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있다. 수층의 계층에 Elevator 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Slope를 설치한다. 경사로는 WheelChair 사용자가 이용하는데는 최적이나 기외 하지장애자에게는 계단쪽이 사용하기가 용이하므로 가급적 계단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4) 변소내의 장애자에 대한 고려
- ①목발사용자: 段差나 傾斜面의 구배를 최소로 줄이고 바닥의 틈새가 없도록 하고 기물을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② 휠체어 사용자 : 변기와 휠체어 높이를 같이한다 (400~450%) 변기 및 세면기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금구를 설치한다.
- ③출입문의 유효폭은 850‰이상이어야 하며 문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밑바닥면에서 300‰높이의 챌판을 부착하고 문은 밖여닫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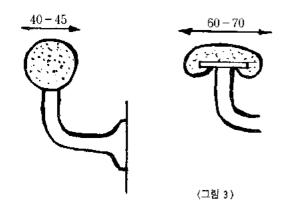
VI. 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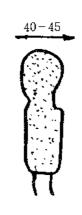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은 장애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하며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때에 비로소 이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자들을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활 및 활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피하고 격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동시에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장애자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며 일반학생에게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시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요적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코저 한다.

- 1. 장애자를 위한 공간 및 시설동을 계획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각 장애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에 따른 동작특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계획에 고려하여야 한다.
- 2. 장애자를 위한 환경시설을 계획할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자의 자립활동을 전제로 하여 공간계획을 하여야 하며 만약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가능한한 보조자 및 타인의 부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장애자를 위한 물리적 개선 뿐만이 아니라 제도 및 사회적 이해등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引用 및 参考文献

- 文教部,「障碍者를 配慮한 建築設計 資料」,學校施設第Ⅲ集, 1981.
- 李賢雨、「皮体不自由者量 為社 Rehabilitation Center 의 建築計劃에 關む 研究」傾論、서울大大學院、 1982.
- 林勇煥,「障碍者을 爲乾 建築의 計劃과 設計」, 理建社, 1981.
- 4. 全明鉉, 「肢体不自由를 爲む 建築計劃에 對む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1982. 4
- H. A. Rusk, "Rehabilitation Medicine," MOSBY, 1972
- OG Giken, "Equipment for Health Care and Rehabilitation," OG Catalog, 1981.
- JOHN A. RAEBER, "Architectural Barriers Laws-States of California," Building News, 1982.
- Alfred E. Pederseh, "A step Forward for Sweden's Handicapped," Mass Transit. April, 1980.





중국전통건축의 이해(完)

朴舒弘 ㈜ 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Report/A Study on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hina by Park, Suh-Hong

- 머리 글을 위하 Aphorism
- 환경과 건축문화
- 중국전통건축의 본질
- 정원과 환경
- 건축의 발전 및 명칭
- 건축의 표준화와 예술성
- 건축물 배치 및 평면
- ◉입면과 구조 그리고 재료
- 잠식효과와 색조
- ●중국선통건국의 특징

■ 입면과 구조 그리고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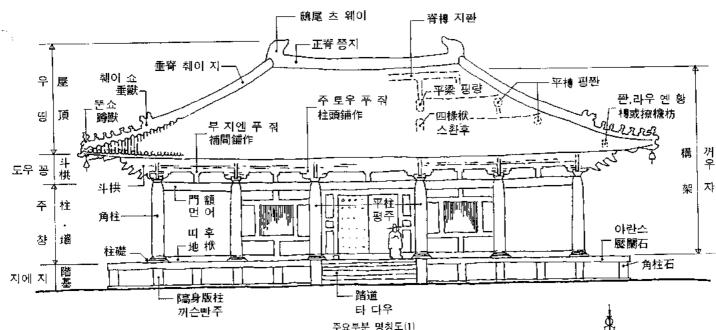
하나의 건축물을 외견상의 요소로만 구분한다면 하부의 지면과 접하는 기단, 지주어(基座, 지에지 階基라고도 함), 가운데의 몸체를 이루는 우슨(屋身, 도우 꽁파 기둥부를 말함), 그리고 맨 윗부분의 지붕, 우띵(屋頂)의 3부분으로 대별된다. 이 3부분은 각기의 기능에 맞는 표준제작기준이 있었는데, 지쭈어 부분은 좐스(磚石)를 사용해서 입방체를 구성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낮게 만들었고 그 중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높은 기단, 까우 쭈어(高座)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상화이엔 스따디엔, 上華嚴 寺大殿)

만층쉬미주어(單層須彌座)와 두어층쉬미주어(多層須彌座)의 예(구꽁, 3대전의 경우)도 있으며, 도우꽁(斗栱)을 사용한 평주어(平座)의 경우도 있다. 우순의 경우는 꺼돤창(隔斷牆), 한환(整窓), 꺼산먼(格扇門), 한먼(版門) 등의 수법을 사용한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우땅은 우디엔(應殿), 시에샨(歇山), 존찌엔(攢尖), 쥐엔 평(捲棚), 쉬엔 샨(懸山), 잉샨(硬山) 등 6가지의 기본제작법이 있으며,

이것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형의 지붕(우띵)이 있다. 이런 3개부분의 구조방법은 비단 단층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충건축의 경우도 이와 거의 동일하지만 단지 총 띠에(重疊)를 사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솟아오르게 해서 건축물 가로방향의 충 차이(層差)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처리하고 있다. 특히 다충건축의 축조방법은 아주 다양해서 수십종의 표현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각층마다 각기 3부분의 지쭈어, 우슨, 우띵을 갖고 있는 형식이다. (두러스 獨樂寺, 관양꺼 觀音閣, 회공스 佛宮寺, 스자타 釋迦塔, 완취엔萬泉, 훼이 윈로우 飛雲樓등에서 그 예가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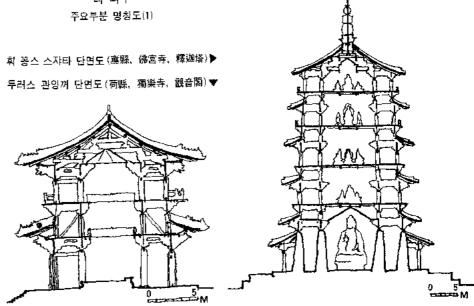
시작헸을 때부터 집은 지어지기 시작했다. 전국(戰國)시대 이엔 샤 뚜(燕下都)의 토대 역시 우리나라의 달구다짐과 비슷한 항투(夯土)²¹ 방법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촉조했고, 진시황(秦始皇)능과 같은 거대한 분묘 역시 항투방법을 사용한 예이다. 빤쭈(版築)와 투 패이(土坯)²¹ 역시 매우 오래 전에 이미 사용되었었다. 대략 동주(東周)시대

상고시대에 황토와 목재를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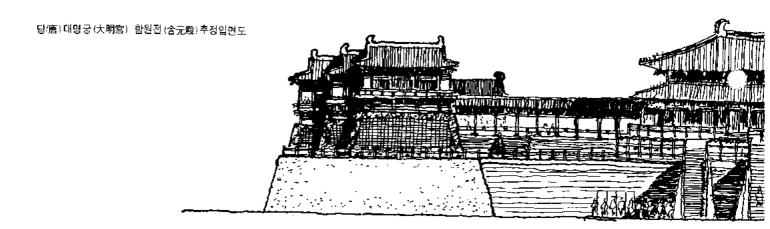


(B.C 8세기~ B.C 3세기)에 이미 기와나 벽돌이 발명되어서 한(漢)대에 와서는 이미 매우 정교하고 실용적인 쫜와(磚瓦), 쫜스(磚石)가 개발되어 건축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정교함을 더 해갔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매우 많은 한대의 스쉬에(石窟)와 좐스 먀우(磚石廟), B.C 523년에 건조된 송위에스(嵩嶽寺)탑과 581년 ~ 618년 사이의 안지 샤우(安濟橋)등은 모두 명(明)대의 쫜스(磚石)구조의 기술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되었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중국 특산의 대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채취되어서 건축재료로 활용되었다. 남방지역의 여러곳에서는 대나무는 민간건축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대나무가 갖는 특성은 아주 특수한 구조방법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교량 등의 공사에 쓰여졌다. 중국건축의 구조(構造)방면의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보다도

목구조(木構造)방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의 두드러진 성취는 가구식, 황자스(框架式)구조의 개발이었다. 이러한 광자스구조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를 걸치는 구조로서 건축물의 모든 하중을 보와 기둥을 통해서만 지면에 전달하므로







기둥 사이의 벽은 단지 구획만 될 뿐으로 실내외의 공간을 격리시키는 역할만 한다. 벽체가 하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문과 창동의 개구부름 설치하는 데는 최적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이런 형식의 기둥과 보로서 결합되어지는 광자스 구조방법은 늦어도 이미 한대에 무르익어서 그 기본방법이 지금까지 전수되 내려와서 현내의 민간건축에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당시 이미 확실히 사용되었던 도우꽁(斗栱)은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역할로서 개발되었었고, 그 도우 꽁의 장식효과 또한 당시의 장인들에 의해서 충분히 발휘되었다. 도우 꽁을 주요한 구조부분으로 하는 구조방식은 당(唐)대에 외서 극에 달해, 고도의 성취를 이루었다. 목구조는 비단 건축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량에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11세기의 청망상허투(淸明上河圖)는 당시 수도 성 외곽의 목조 꽁 챠우(栱橋)를 묘사하고 있다.현재 실물은 없지만 이런 구조방법의 발상이야말로 대남하고 합리적인 구조기법의 소산이다. 물론 이런 기법이 나오게 된 짓은 고대 장인들의 목구조이음, 맞춤,

쑨마우(榫卯)기교의 발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명대에 들어와서 도우 꽁은 구조적의미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으나 명대 초년에 건조된 창령(長陵) 릉스 다엔(稜思殿)에서는 계속해서 처마아래에 도우 꽁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것은 구조상의 의미보단 장식적인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원래 장인들이 구조부재 처리를 할 때에는 구조와 동시에 장식의

효과를 노렸었다.

■ 장식효과와 색조(色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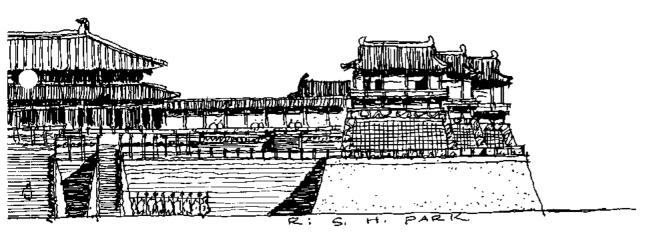
일반적으로 건축장식의 상용적 수단은 유리, 료리(琉璃), *돌 벽돌, 석희, 나무 등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재료의 질과 양, 색조를 적당히 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강렬한 원색(原色)을 사용하여 장식효과를 노리는 것 또한 중국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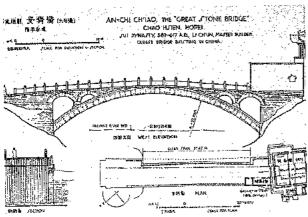
건축물의 각 부분은 각기 일정한 고유의 색조를 갖고 있는데, 백색이나 청색 석질의 지쭈어(基座) 위에는 주홍색의 우슨을 세우며 처마 아래는 순청록(純靑綠)등의 차가운 색조로 채색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 우미엔(屋面)에는 황색 혹은 녹색의 빛나는 유리기와를 입히고 있다. 이런 색조를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이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이게끔 하였으며, 궁전이나 스 먀우등에서 특히 강조했던 색조이다. 북방의 주택 또한 농후한 색조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주홍색의 몸체와 청회색(靑灰色)의 지붕면은 주조를 이루는 색이었다. 남방의 주택정원에

있어서는 벽면을 순백(純白)으로 처리하기를 좋아해서 목구조 부분의 어두운 부분과 청회색의 기와면과의 명쾌하고 시원한 대비(對比)를 강조했다. 또한 백색 담장위의 문과 창 등의 개구부 주위를 짙은 색으로 만들므로서 선명한 윤곽이 뚜렸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건축의 색조중 료리는 중요한 작용을 하였는데. 그것은 채유된 도자기의 한 종류로서 황색, 녹색, 남색, 흑색, 유백색 등의 여러가지 색을 나타내었다. 료리의 제조는 북위(北魏)때 비롯되었는데, 지금 보존되고 있는 고대의 료리는 명,청 양대의 것이 가장 많고, 그로 보아 대량생산의 시기는 명(明)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종류의 재료는 그 색의 윤택함과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순백색과의 사이에 조화를 잘 이루어서, 황록의 유리와 주홍색이 잘 합치되어야만이 중국건축 특유의 외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중국 전통건축에 있어서 강렬하고 극렬한 순색을 사용하여 장식효과를 빛낸 것은. 그것이 대량생산이 되고 유리가 사용된 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음양 5 행설과 건축에의 영향, 황 빠우 위, 중국건축사, 1973 도교에서 비롯된 음양 5 행설은 건축방면에 많은 영향을 꺼쳤다. 도표의 것은 오행에서부터 사령까지의 규칙을 나타냄.

의의 (意義)	화평 (和平)	희열 (喜悅)	황제 (皇帝)	비애 (悲哀)	장엄 (壯嚴)
사령 (四處)	청룡 (靑龍)	수작 (朱雀)	황궁 (皇宮)	백호(白虎)	현무(玄武)
상덕 (象德)	태자(太子)	조 (朝)	황제 (皇帝)	황후 (皇后)	시 (市)
사계 (四季)	춘 (春)	하 (夏)	중하 (仲夏)	추 (秋)	동 (冬)
안색 (願色)	청 (靑)	홍 (紅)	황 (黃)	백 (由)	흑 (黑)
방향 (方向)	동 (東)	남 (南)	중 (中)	서 (四)	북((北)
오행(五行)	목 (木)	화 (火)	토 (土)	급 (金)	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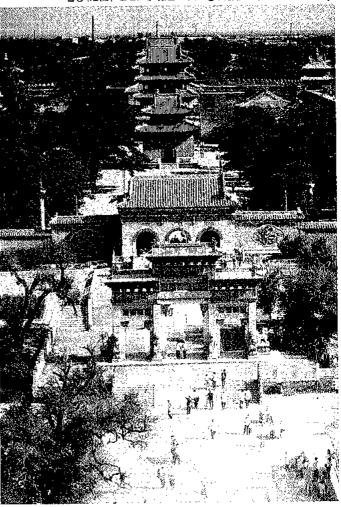
칭 밍 샴 허 투 중의 목조 흥교(淸明上河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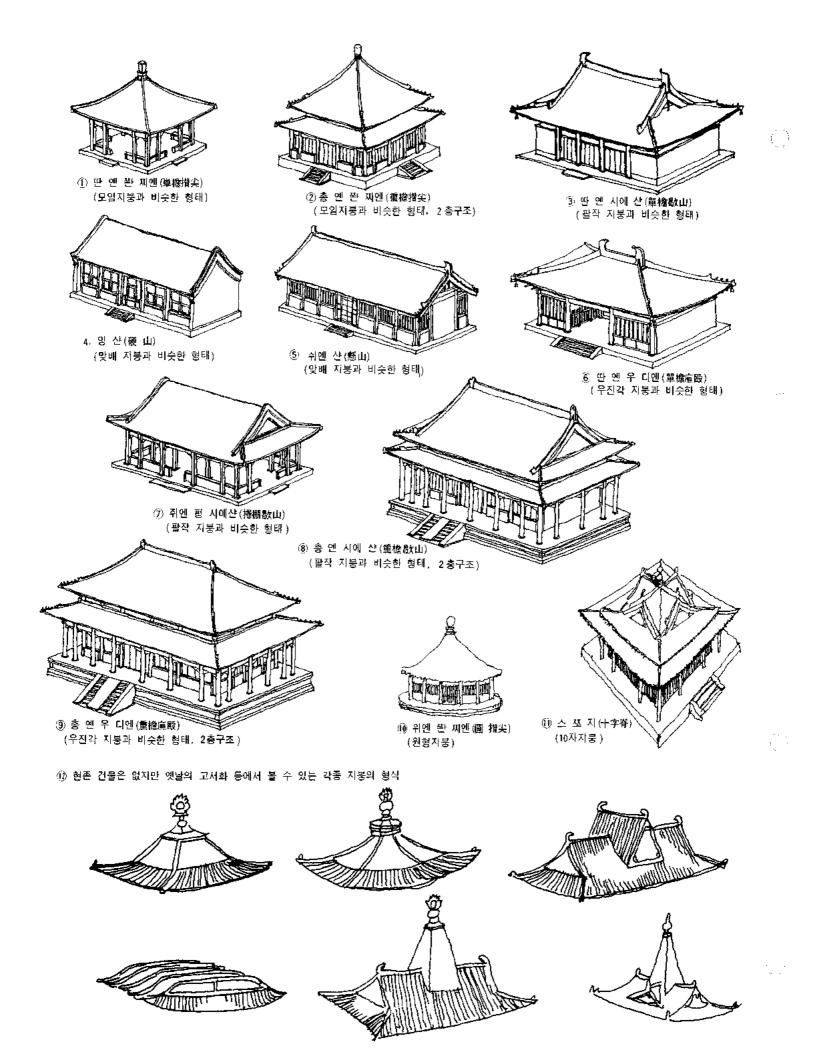
▲ 언지 챠우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 서안(西安, 시안), 종루(鍾復)명, 홍무17년 세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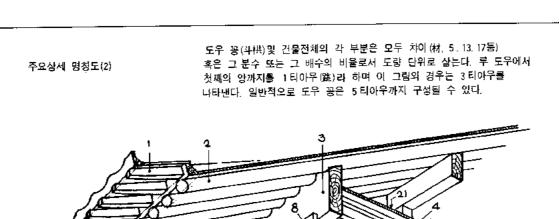
심양(瀋陽, 선양)에 있는 쟈우 링(昭陵)(청, 태종의 능묘)▼







지붕의 형태 및 명칭



19 20 248

23

宋代의 명칭 훼이 존 1. 飛 椽 옌 쐕 2、瘧 椽 라우 옌 황 3. 擦擦枋 로한황 4、羅漢枋 주 포우 횡 5. 往頭板 6、井口枋

집 케우 황 7、 4親坊頭 준 황 토우 아우 도우 8. 数 4 치 싶 또위 9. 顆心斗 링 꽁 10、合 栱 日、鬱 頭 샤 토우 자우 후 도우 12. 交互斗 13. 慢 栱 만 꽁 14. 瓜子杖. 꽈죠꽁 나 다운 용 15. 泥道栱 16、騎栿栱 치후꽁 17、昂 양

양 줴이 17a. 昻 嗾 18. 華鎖子 화 토우 즈 화 꽁 19. 華 棋 20. 櫨 斗 루 도우 21. 遮绿版 써완반 22. 檐 栿 옌후 23. 関 額 란어 주 토우 24a.柱 頭 25. |質 ᄌ 편 준 26a.盆 唇

淸代의 명칭

26 b. 覆 盆

26 €. 礎

•	
1. 飛 頭	훼이 토유
2. 擔 禄	옌 좐
3. 挑諧枋	타아우 옌 황
4. 拽 枋	쪼이 황
5. 正心枋	쭇신 황
6、天花坊	티엔 화 황
7. 撑頭木	청 토위 위
8. 豆才升	산 챠이 승
9. 槽升子	챠우 승 죠
10. 廂 栱	상 꽁

후 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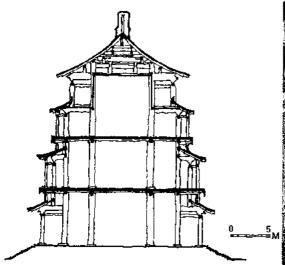
추

11、 电顺电信显亮	마 쟈 토우
12. 十八斗	쇼 빠 노위
13. 萬 快	왼 꽁
14. 瓜 枳	य ४
15. 正心瓜栱	쯩신꽈꿍
16. 騎伏棋	치후꽁
17、昴	앙
17a. 昻 0萬	양 줴이
18. 華碩子	화 토우 쯔
19、鄭頭	샤우 토유

20. 坐兵或人斗 - 쭈어 도우, 따 도우 21. 蓋斗板 까이 도우 빤 22. 梁 량 23. 額 坊 어 탕 24a. 柱 頭 주 토우 25. 1質 즈 26. a 26. b} 対 減 꾸 찡

22

栱



▲ 이 허 위엔, 훠 샹꺼(北京, 頤和園, 佛香閣) 단면도

이상으로 중국전통건축의 원류 및 속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물론 본문에서 다룬 내용 및 예는 광범한 중국 고대문화 유산중의 극히 일부분의 단편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전술한 개괄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중국전통건축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중국전통건축의 특징

A. 중국인들의 정신사상 및 환경에 의한 특징

- 1. 건물을 오래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
- (1) 목재를 사용함에 만족하여 수천년 동안 사용해 왔으며 (옛날에는 중원은 목제가 풍부히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벽돌이나 돌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 (2) 옛부터 노력을 동원한 대규모의 역사같은걸 피해 왔으며, 또한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자연과 비교해서 더 오레가고 위대할 수 있다는 욕망이 없었다.
- (3) 신진대사의 이치에 입각해서 자연생멸의 규범을 정하여서 건축을 옷이나 말 등과 같이 여겨 세월이 가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4) 불에 타서 소실되는 것도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여겨서 재료나 공범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5) 원형을 고쳐 쓸려는 풍조가 있어서 총지엔(重建)이 성하지 못하였다.



▲ 무석(無錫, 우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운하변의 주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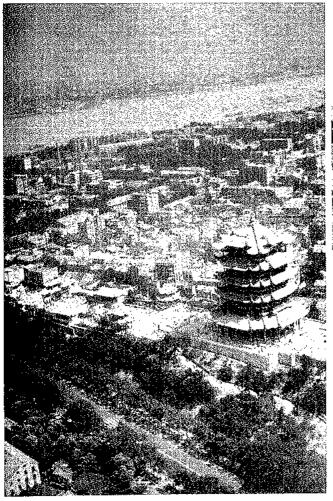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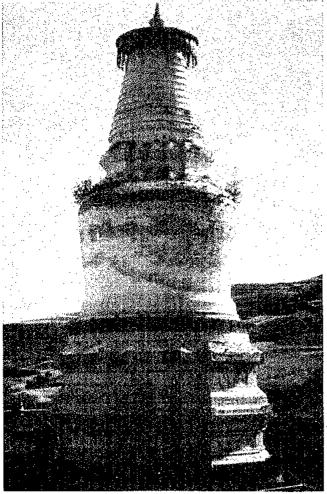
▲ 빼이징, 구꾱(故宮), 우먼(午門)의 북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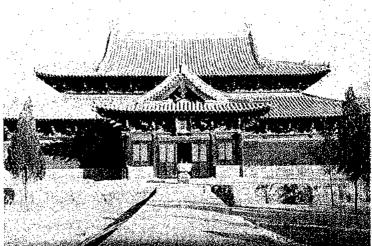
(그림에서 보이는 3개의 원형 출입구가 남측면에 이르러서는 3개의 직사각형 형태를 이룬다. 전자는 진입공간이고 후자는 처형공간이었다.)



산서(山西, 산시), 우 타이 산(五臺山) 휘 꽝스(佛光寺)대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







▶ 하북(河北, 허 빼이) 통심스(龍興寺), 무어 니 띠엔(摩尼殿) (북송, 인종초년, 1030년경)

- ◀ 무창(武昌, 우창)시가지 전경
 - 2. 건축활동이 도덕판념의 제제를 받았다. (1) 옛 통치계통은 검소한 덕(德)을 숭상하여, 건축시 민역(民役)을 징발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농사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 (2) 군왕이 사치하고 신만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억압해서 여러가지 규제조처를 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대한 기록조차도 형태나 만드는 법 등에 관한 것은 상술하기를 꺼렸으며, 건축행위도 검소절약만 강조하여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3. 배치나 평면 계획에만 치중했음 옛부터 기록을[®] 보더라도 명칭과 방위(方位)에만 상술하였고, 구조나 형태등에 관한 기록은 없다. 외관에 관한 것은 단지 시나 그림 등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 4. 건축기술은 사도관계에 의해서만이 전수되었고, 서적을 중시하지 않았다. 건축은 옛부터 장쉐(匠學)라 칭하여져서 사대부(士大夫)의 일이될 수 없었다. 비록 송(宋) 청(淸)대에 관(官)에서 출판한 I부씩의 서적이 있긴 하지만⁹, 그것은 너무 전문분야에 편중되어 있어서 사대부들이 외면하였을 뿐아니라 장인들 자체가 문자에 어두워서 외면한 결과를 빚어서, 그 용어 및 술어 등이 점점 사용치 않게 되어 그 책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수수께기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¹⁰

산서(山西, 산시)우타이산. 타 위엔 소(塔院寺), 빠이 타(白塔)

B. 구조와 공법 및 그 발전형상의 특징

1. 나무가 주요한 구조재료가 됨 시종 나무로서 주요건축재료로 삼아서 장식에까지 나무의 직접표현을 하고 있다.

2 구조의 원칙 또한 나무가 주로 된 쾅자스(框架式) 구조를 기본으로 함. 먼저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위에 량(梁)과 방(枋)을 구성하여 간(間)을 이루고 있다.(전후의 것이 방이고 좌우의 것이 량이다) 량(梁)이 몇겹으로 중첩되어 있는 걸 량자(梁架)라 하며, 매충이 계단식으로 길이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을 쥐져(擧折)라 한다. 또한 좌우의 보의 양단에 각 등급위에 장촬(長轉)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직으로 서있는 것중 제일 높은 것이 지에쫜(脊轉)이 된다. 그러므로 5좐, 7쫜내지 11쫜 등이 있고 그것은 양자(梁架)의 층수를 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2개의 쫜 사이에 밀집되어 병열되어 있는 위엔(椽)이 경사지붕의 골격을 구성한다. 그위에 왕빤(望板)을 올려놓고 그위에 와븡(瓦茸)을 덮는다. 이런 구조제도의 특징은 건축물 상부의 모든 하중을 구조가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벽체는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간에 모두 꺼똰창(隔斷牆)이며 하중을 받는 부분이 아니다.

3, 도우 꽁(斗栱) 이 구조의 핵심이었고 도량(度量) 단위가 되었다. 보와 기둥사이의 연결부위를 목재로서 중첩되게 쌓아 놓아서 앞뒤로 뻗어 나온 것(出作)을 도우 꽁이라 한다. 그것은 지붕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부구조의 하중을 받아서 하부기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큰 구조의 건축물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했으며,후일 도우 꽁의 법식이 점점 평준화되는 추세에 있었다하더러도 전체건물의 비례등을 측정하는 것은 그것이었으며 그중에서도 가로방향의 꽁(拱)의 차이「材」로서 도량단위로 삼았다." 그밖에 기둥의 직경으로서도 도량단위로 정하였으나 이 2가지는 때우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4. 외부형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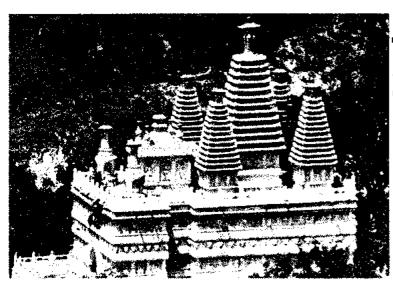
(1) 날아갈듯 뻗어나간 지붕곡선. 지붕은 멀리 온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역대 장인들은 이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붕의 각종 곡선은 구조가구기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며 억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2) 높은 기단을 선호하였다.

지 쭈어의 높이는 상대(주, 진, 서한)로 올라 갈수록 높은게 성행하였었고 그후 점점 낮아져서 오늘날에 와서는 점점 평탄해져서 단지 약간의 두드러짐만 보일 뿐이다. (3) 전면에 다채로운 나무재질의 우슨(몸체)이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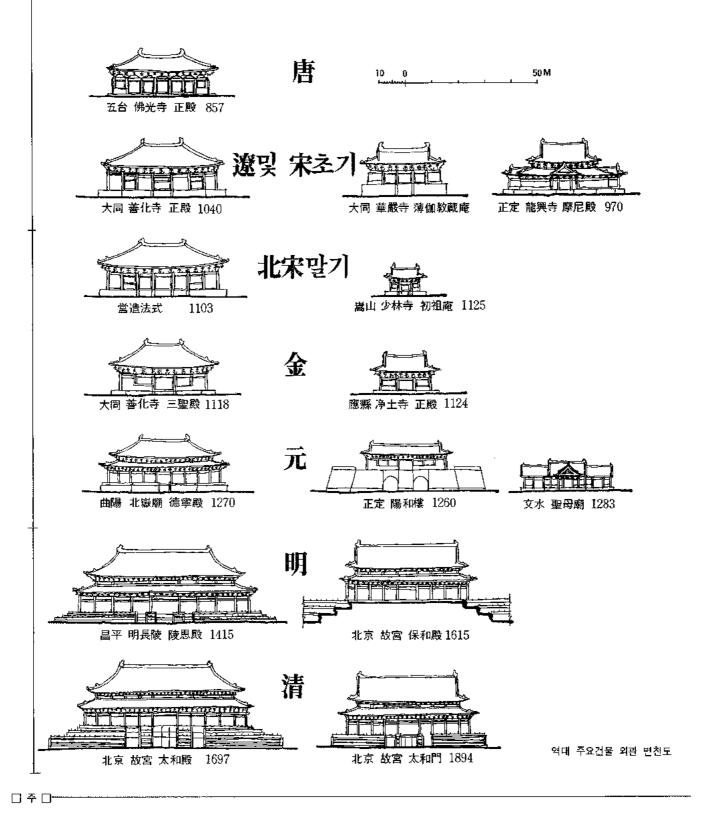
앞면에는 벽을 사용하지 않았고 좌우양면에는 담장, 산창(山墻)으로 처리했을 뿐 창이나 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중점을 둔 부분은 정면으로서 병렬된 목재의 잉주(楹柱)와 아름다운 창호의 조화에 심혈을 기울임.

(4) 위엔 로(院落)의 구성. 주요건축물 주위엔 반드시 부속건축물이 있어서 주위와 연결되어 있어 건물 전체의 윤곽이 노출되는게 드물다.(불탑의 경우만 예외) 이런 부속건축물이 팅위엔의 구성요소가 되며 비로서 중국 건축의 완성된 인상을 결정짓는다. (5) 색채의 사용. 역사적으로 춘추(春秋)시대에 이미 채색단장하는 게 발달하여 당송(唐宋)이후엔 양식등급에 규정까지 생겼다. 장식의 원칙은 엄격한 규정이 있었으니, 구조의 구획나누기,재료의 원래의 표면 보존하기,차가운 청록과 순판(丹)으로 대비되게끔 한 것동이다. 건축의 외부에 장식채화하는 곳은 처마 아래의 도우 꽁과 주두 부분에 한하였었다. 지붕의 료리기와 역시 원형을 유지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엄한 건축물등은 모두 순색을 사용하게끔 하였었다.

- (6) Symmetry 와 Asymmetry 한 2종류의 배치계획
- 대청형태 (Symmetry) 의 배치;주택에서 궁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물이 예외없이 여기 속한다. 공식적인 조회, 집회(大典)등과 개인적인 관혼상제등 장엄한 장소로서의 장소성을 갖게 됨.
- 비대칭 형태 Asymmetry) 의 배치;팅 위엔 건축과 같은 것으로서, 놀면서 한가롭게 휴식하는 자유분방한 장소성을 갖게 됨.
- (7) 돌(石)을 사용하는 방법의 실패. 중국건축이 주요재료로서 나무를 사용했다 함은 돌이 항상 땅(바닥)에 까는 재료로서의 역할만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요한 공사에는 돌을 사용한 예가 드문데 그 원인은 다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하나;장인들의 돌의 성질이나 역학(力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나무구조와 같은 공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돌구조물의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 돌 ; 몰탈(Mortar) 의 원리를 발명하지 못하였다. 석회는 오래전부터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이른바 굵은모래와 석회를 혼합하는 방법은 수천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였으니 이것 또한 중국건축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가 아닐런지.《宗》



◀ 빼이징, 서산(西山, 시산) 빼원스(碧雲寺) 징 깡 빠우 쭈어 타 (金剛寶座塔) (인도건축의 영향을 받은 불사, 청, 치엔롱, 乾隆 13년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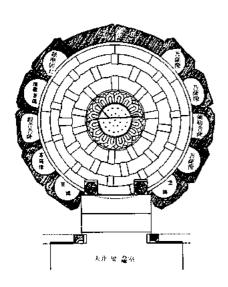
- 1) Curtain Wall
- 2) 提塘以灰土築塞罐漏, 不為水圏浸注口夯(そる도서관)
- 3) 흙을 이용한 간단한 건축형식, 원형의 구축물을 만드는 공법(리 치엔랑, 李乾郎, 건축예술, 1983)
- 4) 황 빠우 위 (黃寶瑜), (중국건축사, 1973)
- 5) 황 빠우 위(黃寶瑜), (중국건축사 1973)
- 6) 현대의 유리와는 전혀 틀린다. 알미늄과 남을 함유한 청석으로서 만드는 도로를 소성시키는 투명유(透明釉) 이걸 기와에 입하면 로리와(琉璃瓦)가 됨, (중정도서관)
- 7) 중국간축도집, (明文書局, Taiwan, 1979)
- 8) 량스청(梁思成), 중국진축사, 1981)
- 9) 1편 청조
- 10) 량스청(梁思成), (중국건축사 1981)
- 11) 량스청(梁思成), (중국건축, 1981)
- 12) 장 샤우 자야(張紹報), (중국건축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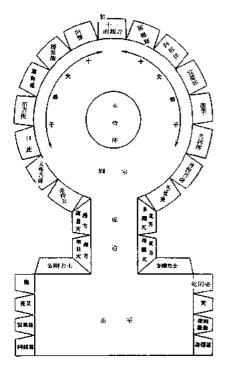
吐含山 石窟庵 小考

崔富得

建築士事務所 空間構成

A Study Seokulam Grotto on Mountain Toham by Choi, Bu-Deuk





(그림1) 석굴암의 기본구조(彫像의 配置)

序

미술사가 작품으로서의 대상을 벗어날 때 더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미학이 개념에만 머무를 때 그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함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적 대상으로서의 미술작품을 다루는 미술사가 "美"라는 개념적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일반 경험과학과 무엇이 다룰 것인가?

미술작품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연구와 미적 대상으로서의 연구의 두 발판을 딛고 출발해야 하며, 그 대상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 졌다면 그 대상과 그 제작 주체에 관계하는 미술사적 연구가 우선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에 그 미술작품속에 내재한 "美感的 理念들을 現示하는 能力"으로서의 "精神""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술작품이 그 실증적 관계에 의해서만 파악된다면 초역사적인 미적 가치를 그 주요한 특성으로 하는 미술작품이 완전히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석굴암에서 단지 순수 취미만 파악하고자 함이 아니고, 가능하면 석굴암의 전체를 찾는데 그 궁극목적을 갖는다면, 表象力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증적 관계를 찾는 미술사직 연구와 미감적 이념들을 내재한 정신을 찾는 미학적 연구가 함께 되어야 함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다.

또한 무수히 찬탄되는 석굴암의 각

파악되어서는 안되며, 석굴암 전체, 각 부분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석굴암에 관계하는 모든 시간·공간적인 관계를 까지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식굴암의 각 구성요소들은 함께 관계하는 공간속에서 더욱 가치있게 되는 바 本考에서는 본존불과 35개"의 조상들을 수용하고 있는 건축적 공간으로서의 석굴암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조각들이 단지 각개의 조각불로서만

석굴암 原型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나 복원된 현재의 상태를 그 대상으로 하되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있는 전실 목조건물은 제외하며, 일제 중수시에 첨가한 것으로 관명된 입구 석주 상부의 아치형 인방석도 없는 것으로 한다.(그림 1,37~40 참조)

1. 美術史的 比較 分析

불교사원들은 불교를 도입한 각지역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발전형태는 발생론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각 지역의 사원들은 실제로 고대 인도의 사원과 기능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 건물의 디자인은 전혀 다른 원형에서 파생한다. 즉, 중국사원은 독립적인 노선을 따라 발전하고 동부아시아의 문화권내에서는 여러가지 변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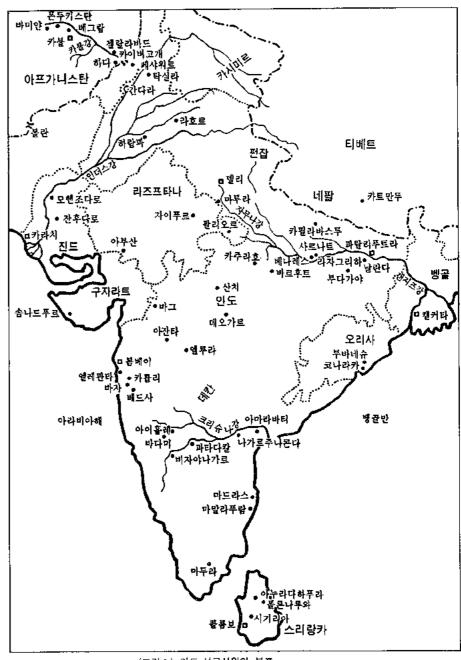


(그림 2) 불교의 전파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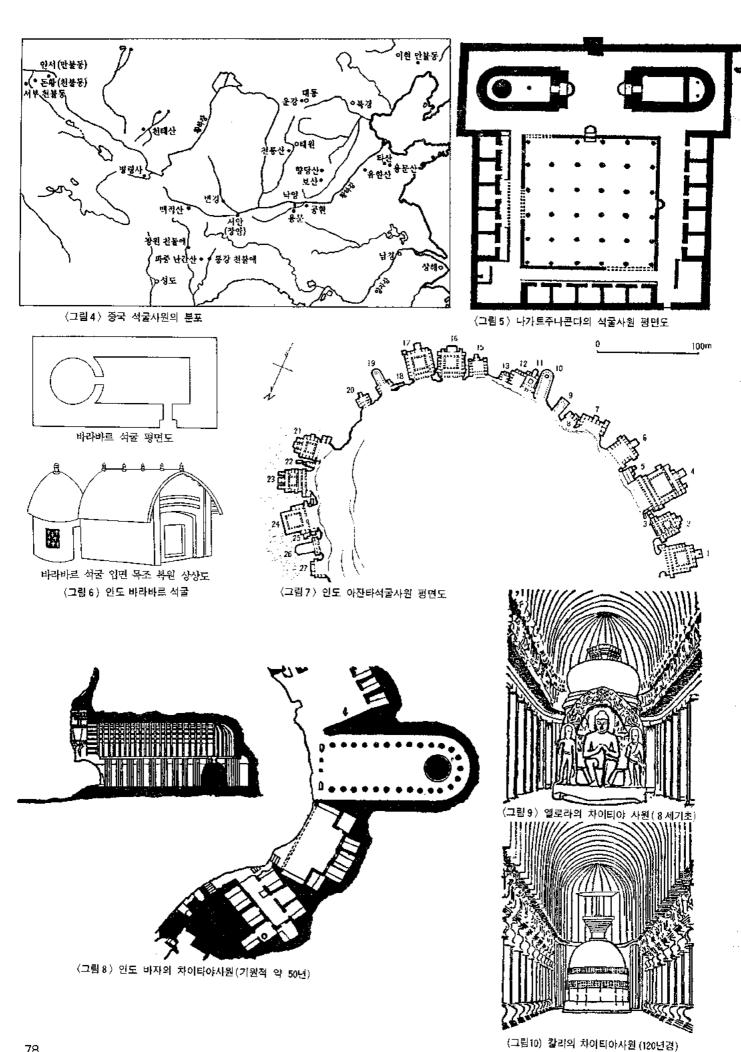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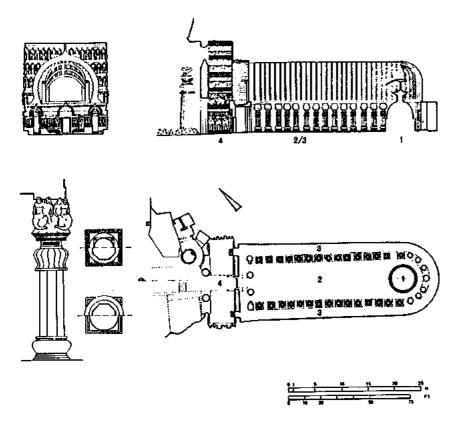
석굴암 창건당시의 신라불교는 멀리는 인도로부터 가까이는 고구려 • 백제와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석굴암의 연구에 있어서는 인도・중국등의 先行 석굴사원이나 기타 관련자료들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그림 2,3,4, 참조) 고대 인도로부터 불교사원은 차이티야(Chaitya) 와 바하라 (Viharas) 로 구분되었는데. 차이티야와 원의미는 "사리없는 탑"이란 뜻이며, 초기 차이티야 사원의 예배대상이 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볼 수 있다. 차이티야 사원은 신성한 탑이나 불상을 봉안한 예배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기도와 의식만을 행하는 예배당적인 석굴사원이란 뜻이다. 그에 반하여 비하라 사원은 승려들이 기거하면서 수도하던 수도원적 석굴사원이란 뜻이다.

이러한 석굴사원들의 시원은 자연동굴이었으나 승단이 확대하여 수요와 기능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인공적으로 석굴사원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한 변천과정에서 차이타야 사원에 봉안한 탑은 점차 불상으로 대체되게 되는데(그림 5)에서 보면 동일사원내에 두개의 예배당이 마주보고 서있어 각각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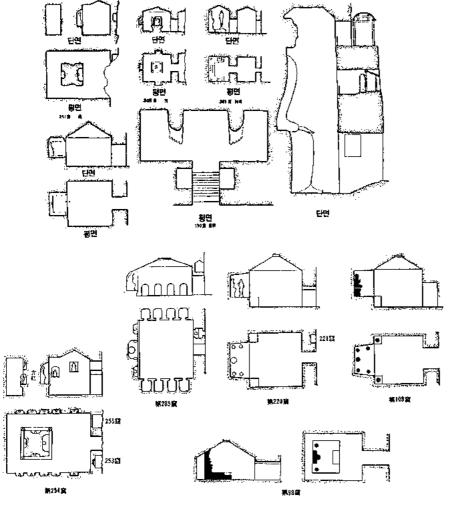


(그림 3) 인도 석굴사원의 분포





〈그림11〉 칼피의 차이타야 사원, 평면·입면·단면도



〈그림12〉중국 돈황의 석굴사원

탑을 하나는 불상을 봉안하고 있어 대체과정의 과도기적 상황을 역력히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축조방법에 있어서 석굴암은 인도나 중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의 고분축조방법과 여러모로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석굴암은 불상으로 대체된 후의 차이터야 사원의 한 형태로서 인도・중국의 석굴사원과 당시 우리나라 고분에서 영향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석굴암 각 부분별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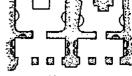
○ 全體空間의 構成

기본평면은 前方後圓식으로 고대 인도의 바라바트 석굴(그림 6)의 기본이 변한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 예배대상이 있는 주공간과 예배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착상으로 보여진다. 이는 인도의 아잔타 10 • 19굴의 차이티야 사원(그림 7)이나, 바자 12굴(그림 8), 엘로라(그림 9), 베드사, 칼리(그림 10, 11)등의 차이터야 사원에 있어 예배대상인 탑이나 불상이 있는 부분은 원형으로 처리하고 예배공간은 장방형으로 처리한 수법이 주공간의 보다 직극적인 분리를 위해서 구분되기 시작한 중국의 돈황 305 · 371굴(그림 12), 운장 9 · 10굴(그림 13), 천룡산 8 · 16굴(그림 14, 15), 용문 萬佛洞(그림 16)등에서 그 시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사실은 당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분의 구성이 주실과 전실을 구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25) 이러한 구성은 가독교 사원에 있어서도 많은 예가 있는 것처럼 神을 모시는 주 공간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생각이 그 출발점이라 여겨진다. 기독교 사원에 있어 소극적인 분리방법으로 Baldachino 를 설치하는 예와 일반 불교사원에 있어서도 예배대상의 상부에 보개천정을 건물천정과 별도로 설치하는 예둥은 동일한 의도의 한 형식으로 생각된다.



〈그림13〉중국 운강의 석굽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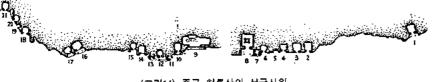


^同 第9, 10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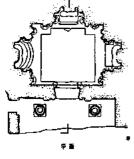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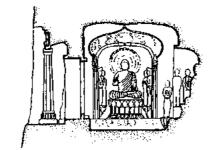


第16,17洞



〈그림14〉 중국 천룡산의 석굴사원 *-





(그림15) 중국 천룡산 16굴의 평면·단면·입면도



○ 主室의 形式

주실의 평면이 圓型으로 되어있고 천정이 돔으로 처리된 것 또한 인도 차이티야 사원의 한 변형으로 간주되나, 바미얀의 석굴사원(그림 26)과 용문의 齊祓洞(그림 16)의 정사각형・팔각형・타원형등에 영향받았으리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또한 고분 축조방법에서 내부기능이 방형을 굳이 요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앙에 본존을 모시는 형식의 圓型으로 변형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정의 돔형식은 차이티야 사원의 영향외에 산치의 스투파(그림 27)를 비롯한 돔형의 스투파에서 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도 있고, 돈황에서의 보개천정과 고분에서 적충식으로 쌓아올린 鬪八天井(그림 17,23,25)이나 모서리에 버텀들을 끼우는 수법(그림 19,20)이 상징적인 하늘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버텀돌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정상부에 연꽃무늬 마감석으로 처리한 돔형식이 된 것이다. 또한 인도나 중국의 석굴사원과는 달리 축조형 석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〇 八角石柱

주실입구 양쪽의 팔가석주 또한 차이티야 사원의 열주 특히, 칼리나 베드사의 차이터야 사원입구의 팔자기둥(그림 I1)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나 형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운강 9 • 10굴의 석주(그림 13)와 천룡산 16굴(그림 15), 맥적산 4 · 30굴(그림 28, 29)의 팔각석주에서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석주 또한 직접적으로 고분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바, 안약 제3호분(그림 22), 팔청리 벽화고분(그림 24)등이 그것인데 특히 쌍영총(그림 25)에서는 위치에 있어서조차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참배객의 시선을 방해하면서도 팔각기둥을 설치한 것은 현관부분을 구조적으로 보강하면서 입구의 상징적 형식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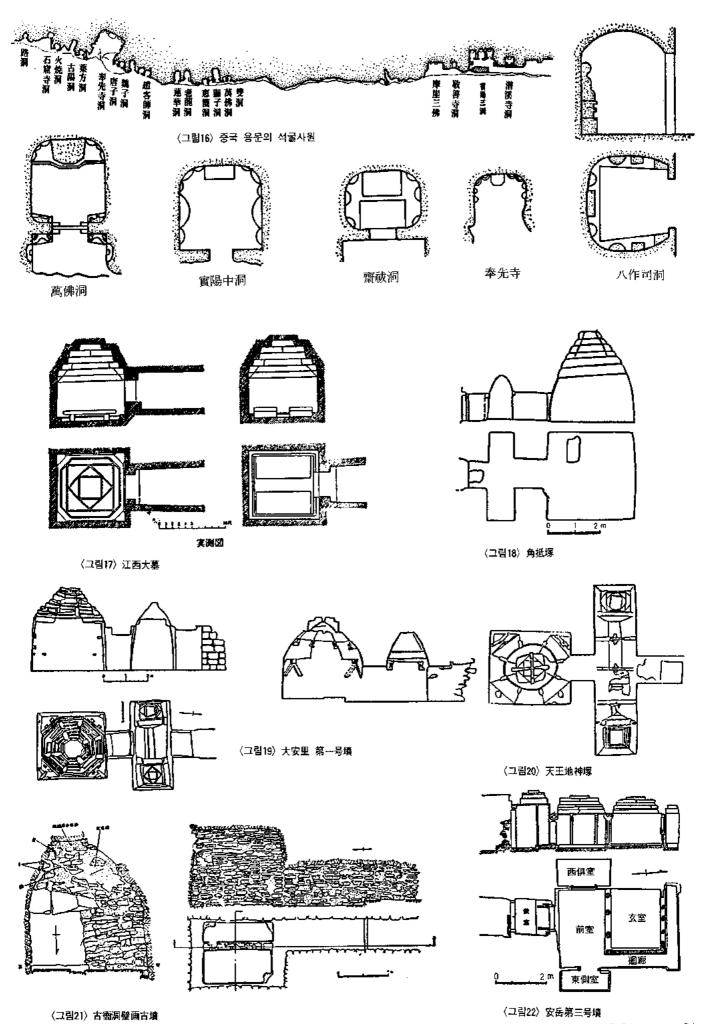
○ 前面入口와 龕室의 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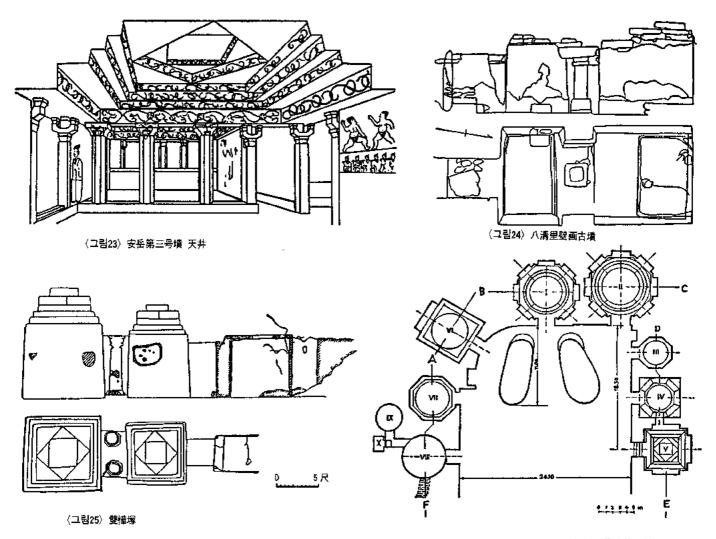
인도·중국의 많은 석굴사원의 출입구역시 아치형이거나 아치형 장식이 불어 있는데, 친룡산 16굴(그림 15), 맥적산 30굴(그림 29)의 형식은 가장유사한 것중 하나이다. 또한 아찬타석굴내의 스투파(그림 30).

운강석굴에 새겨진 목조 스투파(그림 31), 돈황·운강·용문 석굴내의 감실 형식(그림 32)에서 그 영향을 가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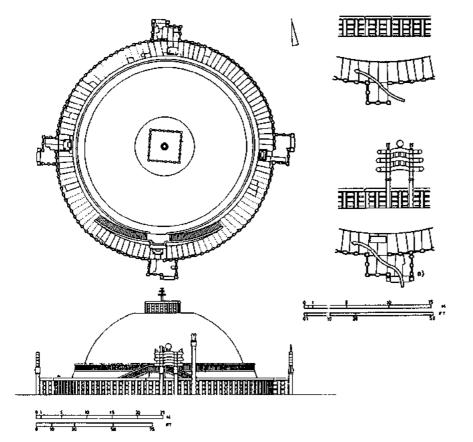
○ 佛像의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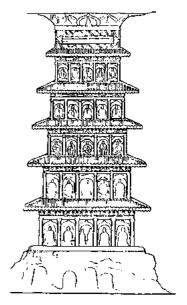
전실과 扉道 각 면에 八部衆. 四天王, 仁王像등을 배치시킨 것은 아마 인도의 아잔타 19굴, 칼리의 베스티 佛등과 중국의 돈황 302굴이나 용문 만불동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주실의 벽면과 감실에 십대제자, 십일변관음, 천왕, 보살상들이 좌우대청적인 구노를 보이면서 본존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아잔타 26굴, 중국의 돈황 168굴·292굴, 용문의 擂鼓臺등에 보는 따위의 석가의 본생도나 경전상의 會上(그림 23)— 돈황 168굴에서는 후벽에 관음을 중심으로 십대제자를 배치시키고 있다. --을 그린 착상에서 본 땄을 것이지만 이와같은 조화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보적인 창작품이다." 입구 양쪽에 인왕상음 배치한 형식은 분황사 모전석탑, 월성장항리 서오층석탑과 안동 조탑등 오충전탑에서도 볼 수 있는 수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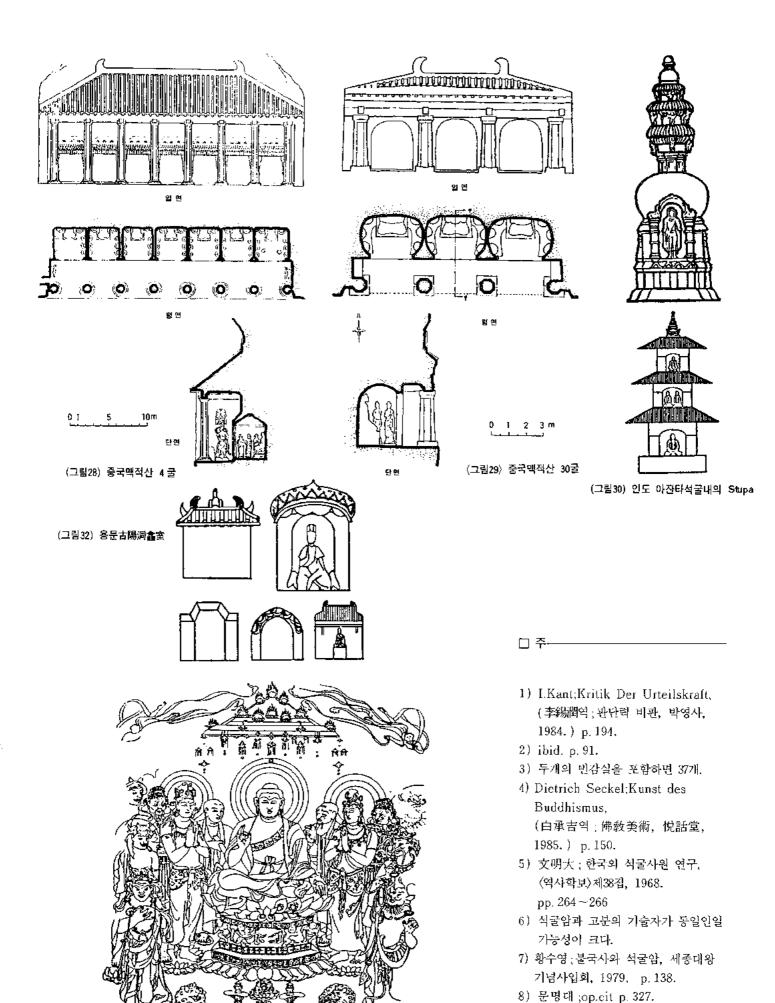
(그림26) 인도바미얀의 석굴사원 평면도





(그림31) 운강석굴내에 조각된 목조 Stupa

〈그림27〉인도산처의 Stupa



(그림33) 일본 호오류우지 금당의 벽화도식

《다음호에 계속》

되살린 한강을 우리가 보존하자



한강은 장원도 충청북도의 태백권과

서울시, 경기도를 또함한 수도권의 수자원을 공급하는 국내최대의 하천으로서 생활용수공급과 수력발전을 비롯하여 모래 자갈등 건축자재는 물론 메마른 도시인들의 정서순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놀이켜보면,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개발 계획으로 서울시를 위시한 주변유역에 많은 인구와 공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이 아무렇게나 유입됨으로써 한강을 심각한 오염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로 일상생활에는 물론 산업에도 많은 손실을 입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민족의 대역사인 한강종합개발로 버려졌던 한강을 맑고 깨끗한 푸른 강으로 되살려 철새와 물고기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연변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물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보배로운 한강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일이다. 만들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듯이 맑아진 한강을 더욱 맑고 깨끗한 강으로 쾌적한 생활의 보금자리로 보전하는데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강을 젖줄로 가꾸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맑은 한강보존에 다함께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한강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생활폐수를 가장 많이 내보내고 있는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음식찌꺼기를 함부러 안버리도록 힘쓰면서 합성세제 사용량도 중이도록 노력하고 정화조도해가 바뀌면 반드시 청소해야겠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찾는 낚시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주변도 항시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겠다.

푸른 하늘, 맑은 물이 흐르는 한강! 앞으로 3백20억일 후 '88서울올림픽에 찾아오는 지구촌의 모든 손님에게 맑고 푸른 한강을 자랑하고 선진조국을 앞당겨 이룩하도록 함은 물론 우리 모두의 생명선인 이 한강을 더욱 깨끗하게 보존하여 영원한 조국의 번영과 더불어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소생된 테임즈강에서 싱싱하게 펄떡이는 연어를 낚아 기세좋게 흔들어 보이면서 파안대소하는 영국의 낚시꾼처럼 우리도 한강에서 황쏘가리를 낚아 올리는 기분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제 윤기있고 부드러운 삶의 공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야겠다.

천 희 정

주부, 서울 강남구 청담동 I23번지



身体障碍者**를 위한** 建築디테일 _{鄭求榮 譯 建友社 發行}

본 협회 京畿道支部 會員인 鄭求榮회원은 신체장애자를 위한 설계자료를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한 「身体障碍者를 위한 建築디테일」을 펴냈다. 원래 신체장애자에 관한 연구는 여러방면으로부터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책은 그 중의 일면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法律 第3,934號

建設技術管理法

1987. 10. 24.

■ 주요골자

- 가.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3조).
- 나.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과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각시· 도에 지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법 제5조).
- 다.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관리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 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촉진건설기술의 도입·보급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설립하되, 현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이 법에 의한 연구원으로 흡수함 (법 제7조 내지 제14조 부칙제 2 조).
- 마.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각종 공공연구기관

- 및 민간연구기관의 인력·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 바.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로 고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8조).
- 사.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 육성·지원에 관한 시체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 아.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발주공사(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발주공사 중에서도 역사성이 있거나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의 허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 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24조).
-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감리전문회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받도록 함(법 제27조).
- 카, 공공건설공사의 사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전담할 감리전문화사는 건설부장관에게 동목하도록 함(법 제28조).

타.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보호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건설부상관이 설계·시공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및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서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36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이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기반과 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중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이 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업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2. "건설기술"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및 시공과 구조물의 유지·관리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 (건축사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구매·조달· 시험·시공감리·시운전·평가· 자문·지도·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말한다.
 -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 5. "건설기술자"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동 건설분야외 기술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 6. "시공감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제3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7.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③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률 거친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혐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 4 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 등의 조정) 건설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

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5 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과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톡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서울특별시ㆍ 직할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 6 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기술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제 1 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 7 조 (설립) ① 건설기술을 전문적 · 체계적 · 종합적으로 연구 ·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 8 조 (설립등기) 연구원은 그

-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동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 9 조 (업무) 연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산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조사
 - 2. 선진건설기술의 도입·연구 및 보급
 - 3. 건설기술정보센터의 운영
 - 4. 건설기술에 관한 공법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 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사항
- 제 10조 (재원) ①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건설공제조합범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의 출연금
 - 3. 연구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의 재원
 - ② 정부출연금의 출연 및 판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연구원에 대한 지원 및 협조등) ①국가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가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의 시설·장비 기타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정부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연구원은 메사업년도의 개시초에 진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전년도의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 (민법의 준용) 연구원의

제14조 (민법의 준용) 연구원의 설립등이 기타 연구원에 관하여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지원등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공동연구 · 개발등) ①건설부장관은 연구원 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 법인 단체, 대학(이물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 · 자금 ·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 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 시험 · 조사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ㆍ 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확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 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새로운 건설기술의 보호) ① 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건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 8 조와 2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제와 관련되는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급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무단사용을 규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 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 건설부장관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ㆍ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건설기술용역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전설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용역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건설기술용역업의 합작투자 장려) 정부는 용역업자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술용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업을 합작투자에 의하여 경영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계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채23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假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시설물등에 관한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범위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①건성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품질완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나 건설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외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시험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품질사험의 대행)
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대행자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제 I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적정한 품질시험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시험대행자에 대하여 품질시험 실시의 적정 여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 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판명된 때
- 2 . 제25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3. 품질시험의 홈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 4.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품질사험대행의 의뢰를 거부한 때5. 제2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 ②건설부장관은 제 I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당해 품질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27조 (건설공사의 시공감리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할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감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에 종사하는 자 (이하"시공감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및 전면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감리전문회사)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 기술인력 · 시설 · 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기타

④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2의 죄를 변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건설부장판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 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고의 또는 중대한 파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친 때
 -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 6. 2 년이상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
 -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 ②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동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제3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끼칠 우려가 있을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③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 ① 제30조제 I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①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수 있다.
 -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33조 (부실 시공감리자에 대한 조치) 건설부장관은 시공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시공감리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 건설공사표준시방서
 - 2. 건설공사설계ㆍ시공기준
 - 3. 기타 건설공사의 판리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 (건설공사감독관의 감독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6조 (시공평가동)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건설업자의 기술능력등을 종합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 2 항의 규정에 외하여 지정된

우수건설업자를 가능한한 우대하여야 한다

①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출 시공능력평가의 기준· 절차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보 칙

- 제 37조 (자료등의 요청)
 -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 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활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 ② 제15조 및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41조 (벌칙) 시공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3. 제2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 4. 제3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 5.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제43조 (과태료) ①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파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 지근에 물득이 있는 사는 그 시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공사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파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장수한다.
-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41조 및 제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최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발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처한다.
- 제45조 (시공감리자의 공무원 의세)
 제27조의 규정에 외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시공감리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손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손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제공)

- ⊚ 내무부령 제460호
- ◎ 건설부럼 제426호
- ◎ 교통부령 제867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1987, 9. 30.

■ 주요골자

- 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도로·교차로 기타 교통시설과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 도로· 교차로 기타 교통시설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후 1년이내 및 5년후에 예상되는 교통영향을 평가하도록 함(영 제2조).
- 나. 교통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사업지역주변의 교통현황, 장래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으로 함(영 제 3 조 및 별표).
- 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지는 사업지역주변의 교통량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영 제4조).
- 라.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교통영향 평가서 30부를 관활관청에 제출하도 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에 교통영향평가서 1부를 송부하도록 함(영 제 5조·제 6조).
- 마. 내무부 장판 및 건설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관합관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관할관청은 의견을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7조).

■ 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86.12.31, 법률 제3,91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항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평가의 범위) ① 영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평가자" 라 한다)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해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또는 교통영향평가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로·교차로 기타 교통시설(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영향과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도로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평가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차후 1년이내에 예상되는 교통영향 및 5년후에 예상되는 교통영향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 제 3 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교통영향평가서
 (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별표의
 평가서의 내용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 4 조 (교통량등의 조사) 평가자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사업지역 또는 시설주변의 교통량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 5 조 (평가서의 제출) 법 제11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설에 대한 허가 · 등록 ·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평가서 30부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 (해당교통시설관리청의 의견재출) ① 관할관청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평가서 1부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받은 해당교통시설의 관리칭은 그 평가서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7조 (내무부장관등의 의견제출등)
 - ① 관할관청은 메 L 월발까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제출받은 평가서 각 1부와 그 평가서에 관한 심의결과를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전년도에 제출받은 평가서중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그 다음년도에 제출할 수 있다.
 - ②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평가서와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4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교통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외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한 검토의견을 매 6 월말까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도시교통정비가본계획 또는 도시교통 정비시행계획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항목 (제3조관련)
- 1. 서론
 - 가. 목적
 - 나. 범위
 - 다. 평가방법
- 2.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자의 위치
 - 나. 사업의 내용
 - 다. 관련계획 및 법령과의 관계
- 3. 사업지 주변의 교통현황
- 가. 토지이용 및 교통시설현황
- 나. 보행 및 주변동선체계현황
- 다. 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현황
- 라. 대중교통운행현황
- 마.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발생 현황
- 4.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분석
- 가. 관련계획의 검토
- 나.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분석
- 다. 사업시행시 교통수요분석
- 라. 사업시행전후 교통수요비교분석
- 5. 교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 나. 도로 및 교차로의 소통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 다. 대중교통 및 보행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 라. 주차시설의 문제와 개선방안
- 마. 교통안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 바. 기타 문제와 개선방안
- 사. 종합개선계획안
- 6. 결론 및 건의
- 7. 참고자료
 - 가. 교통량조사 및 분석자료

- 나. 보행자 안전대책자료
- 다. 대중교통의 운행에 관한 자료
- 라. 기타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자료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제공〉

시 상 구 분	작 품 명	수 상 자 명	사 무 소 명
대 상 (건설부장관상)	인하대학 학생회관	조성룡, 장기성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최 우 수 상 (협회장상)	코오롱 우징관	최관영, 정동명	종합건축사사무소 일건
우 수 상 (협회장상)	독립기념관 남부청소년회관	김 기 웅 강 석 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건축사사무소 그룹가건축
장 려 상 (협회장상)	카톨릭중앙의료원 성모병원	김 종 근	종합건축사사무소 범아건축
	3세대를 위한 논현동주택	김인철, 한영제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한국은행 전주지점	이 영 회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방배동 삼호빌라	우 남 용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
	대전대학 학생회관	이재성, 유병우, 박상용	씨, 엔, 유 건축사사무소
	포철 광양국민학교	이종갑, 심성보	(주)세마 종합건축사사무소

1. 신 인 부 문

수 상 구 분	작 품 명	수 상 자 명	소속
금 상	소아재활원	이영신, 고은영, 이명환	우원건축, 테크샤드 교우건축
은 상	HOME PLACE	김 동주 , 이태호, 김 동춘	선진엔지니어링, 삼예건축
동 상	우리동네 한가족	문장호, 이동수, 우창윤	서울대대학원
장 려 상	시각장애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서관	이 선 영	(주)정 림 건 축
장 려 상	장애자 복지시설	김형수, 이건섭, 장칠순	연세대대학원
장 려 상	지체부자유아 유치원	장훈익, 이상화, 손병규	영남대대학원
가 작	지체부자유자 복지센터	반 근 태	상 우 건 축
가 작	OFFICE CALLERY HOUSE	이건섭, 양재혁	연세대대학원 -
가 작	장애자 복지시설	이승용, 윤대한, 곽엉구	연세대대학원
가 작	격리와 융합	이삼수, 유기정	(강원도) (주)종합건축 하나

2. 학 생 부 문

수 상 구 분	작 품 명	수 상 자 명	소 속
금 상	모 퉁 이 에	김병금, 오석텍	목 원 대 학
은 상	커뮤니케이션	오세왕, 정우정	연 세 대 학 교
동 상	해에서 달까지	심우석, 최동성, 박 일	영남 대학 교
장 려 상 (서울지부장상)	여의도 광시곡 (시청사 복합시설)	임용민, 김범규, 박정환	<u> </u>
장 려 상 (서울지부장상)	상업, 문화 휴식공간	김석범, 서준혁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장 려 상 (부산지부장상)	PAINT TOWN	김관수, 김선머	동의대학교
장 려 상 (인천지부장상)	COMPOSITION TOWN	이용선, 김동완, 홍현기	인 천 대 학
장 려 상 (경기지부장상)	농 가	김기홍, 정태석, 신종수	경기대학교
장 려 상 (충북지부장상)	건축과 환경	정대양, 이정비, 유승철	청 주 대 학 교
장 려 상 (충남지부장상)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계획안	박호길, 라승대, 조재남	목 원 내 학
장 려 상 (정남지부장상)	도심의 쉰터	허대성, 김청영	울 산 공 대
가 작	만남, 희망, 창조	김도경, 이종훈, 민 선	37 려 내 학 교
가 작	골목안에서	황희라, 박광재, 김동한	건국대학교
가 작	역사의 흔적	정양승, 유진덕, 유태원	한 양 대 학 교
가 작	창 작 공 간	성우철, 윤재선, 안성진	연세 대학교
가 작	개인정원이 있는 도시 연립주거계획	김우영, 왕봉식, 이성영	대유공업전문대학
가 작	안 골	김윤섭, 이상일	부산개방대학
가 작	5. 18 기념관	전영석, 김유성	전남대학교

응 모 작 품 수

#건축사설계작품······43작품 #신 인 작 품······24작품 #학 생 작 품······63작품

*심사위원명단

■ 건축사 작품

□ 위원장 : 안기태(본협회 회장)

□ 위 원:이광로(대한건축학회 회장)

유희준(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배종병(건설부 건축과장)

이경희(연세대학교 교수)

이정덕(고려대학교 교수)

윤도근(홍역대학교 교수)

■ 신인 학생작품

□ 위원장 : 이문우(본협회 이사)

□ 위 원:안장원(본협회 이사)

유경철(본협회 서울지부장)

이영희(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유원제(종합건축사사무소(주)범건축)

김영수(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국)

日本建築士大會 참관

본함회 安箕泰 화장, 黄在港, 李文雨 이사, 鄭孝煥 감사, 俞景哲 서울특별시지부장 등 일행은 10월 1일부터 4일간 개최된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제30회 전국대회를 참관하고 돌아왔다. (參觀記는 추후 본지에 계제)



87년도

建築士資格試驗合格者 1 백69명에 대한 소양교육이 10월12일 본첩회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任仁爀 사무치장의 협회소개와 安箕泰 회장의 인사에 뒤이어 실시된 교육에서는 張起仁 전화장이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裵宗明 건설부건축과장이 〈건축사의 윤리외식〉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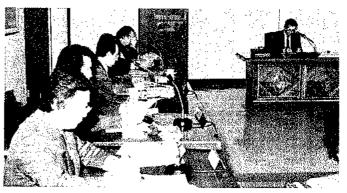
市道支部別 總會日程

본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의 87년도 定期總會 일정이

확정되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본부 및 지부	개 최 일 시	개 최 장 소
151 ±11 ±11 =	11월27일	본혐회강당
서울특별시지부	10월28일13 : 00~	본협회강당
부산직한지지부	10월30일 10:00~	해운대파라다이스비치호텔
대구작할시지부	10월30일 10:00~	지부회의실
인천직할사지부	10월29일 10:00~	올림포스호텔
광주직할시지부	10위30일 10:30~	지부회의실
경기 도 지구	10월28일 10:00~	브라운관광호텔 (수위)
[강원도지부]	10월22일 10:30~	이린이회관(준천)
충정북도지부	10월30일 10:30~	지무화의실
중청남도지부	10원28일 10:30~	유성선신농장 (예식장)
전라북도지부.	10월29일 17:00~	경주 조선호텔
전라남도지부	10월26일 14:00~	지부회의장
경상북도지부	10월29일 11:00~	상대온천관광호텔 (경산군남산년)
정상남토지부	10월22일 10:30~	지부회의실
제 주 도 지부	11월 5일 15:00~	파라다이스 제주호텔

제10회 理事會 개최



제10회 理事會가 10월16일 오후 2 시부터 6 시40분까지 본협회 회의실에서 安箕泰회장 주제하에 부회장과 이사, 감사, 서울특별시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전회 회외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부의사항 및 기타사항 협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의결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업무보고사항과 관련, 협회의 당면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관련 본협회의 의견제출 및 결과를 각지부에 홍보하였으나 회원에게 홍보가 미흡하므로 畲長 報書로써 전회원에게

통보키로 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정시 본협회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되 우리 입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報酬料率 개정도 병행 추진키로 함.

추진키로 함. 다. 건축사, 신인·학생작품 순회전시회와 관련, 여건이 가능한 한 직극 홍보키로 함. 부의사항

공공요시 편입 지상가옥 이축에 따른 설계비 감면의 전 공공요지 편입지상가옥 이축시 설계비 50% 감면은 부당하니 부견키로 하고 아울러 정부표준주택설계도를 활용토록 요청기관에 통보키로 함.

기타사항

가. 회관(강당)의 예식장 임대문제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한하여(회원, 보조원은 평일사용 가능) 임대하되 사전 승인없이 설치된 각종 간판 안내표지판 및 광고인쇄물 배포 등은 시정키로 함 나, 건축법상의 자귀수정 m' 를 우리말로 표기함에 있어 현재 건축법 등에 (제곱미터)로 되어있는 것을 (평방미터)로 재확인 수정할 것을 건의키로 함. 다. 본협회 제22회 정기총회 개최일자를 11월27일 (금)로 정함.

제8회 아카시아理事會 참석

본협회 宋基德 국제위원회위원장, 金知德 부위원장, 朴 卷永, 安秉倫, 李廷根 위원과 李樂一 연수위원회 위원장, 趙載元 위원 일행이 10월20일

부터 7일간 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 8 회 아카시아 (ARCASIA) 理事會에 참설하고 돌아왔다. (參加記는 추후 본지에 계재)

作品展示會 개막

国会 朴翊柱 建設委員長과 崔祥鎮委員 祝電



제13회

建築土設計作品巡廻展 및 제2 회 新人・學生設計 公募展이 10월24월 오전11시 서울지하철정복공역 상설전시장에서 安箕泰회장과 충奉展 전회장, 金基壽 부회장, 麥宋明 전설부진축과장, 李文丽, 姜基世 이사 面景哲 서울특별시지부장의 테이프 커팅으로 개막되었다. 건축사작품 43작품, 신인작품 10 작품, 학생작품 18작품 등 모두 71작품이 전시된 본작품 전사회는 11월 6 일까지 개최된 후 본협회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할 예정이며 88년초 부터는 전국의 由道支部로 순회하며 전시할 개획이다. 한편, 아날 국회건설위원회 사)회개최를 축하하는 경축 선보를 보내왔다. (심사경위는 추후 본지에 개세)

緊急對策協議會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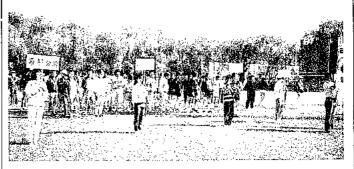
9월22일 오전 11시부터 본협회 주요당면문제인 선설기술관리법에 관한 대책수법을 위한 건급회의률 개최하였다.

역대회장, 본협회 임원, 서울자부상, 본협회긴급대체협의회위원, 서울특별시지부장화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지부간사 등 80여명이 회동한 가운데 安箕泰회장의 경위설명으로 시작된 본회의는 건설부의 徐树基 주택국장도 참석,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건실기술관리법의 일부 조항이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한 건축사업무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한
건축한 토의가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문제를 전담
처리할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일단 회의를 끝냈다.

交易招 消息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命景哲



회원천목 체육대회 개최 9 월24일 (목) 오전10시 부터 시대 오류동 소재 현송 리마구상에서 문화 安箕泰 회장을 미롯 4백5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分所 및 地域對抗 축구시합을 받이 심선단인과 천목보고문들 위한 회원천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탈 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단체전

수 : 강남협의회팀
 순 : 우 수 : 강동분소립
 3 의 : 강서분소팀

응 일 상:영등포분소

O 개인성

최우수선수상 : 권태정회원 (강남) 우수 선수 상 : 이동훈 회원 (강동) 최다 특십상 : 박 응 회원 (강남) 인 결 상 : 이종규 화원 (강서) 미 기 상 : 최재용 회원 (부부) 간 부 상 : 임영년 회원 (남부)

釜山直轄市支部

지부장 鄭煥鎬



시건축관계관과 연석간담회 건축현황에 대한 의견교환과, 건축관계관과 건축사간의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부임원, 회원대표, 부산시즌축관계관과의 연석간담회를 9월25일 오후 7 시부터 중구동광동 소세 화정에서 개최하였다. 본 간단회에는 부산시청에서 건설국장, 건축과장, 각계장, 각구 건축과장이 참석하였다.

大邱直轄市支部

지부장 黃鏞周



대구건축사 체육대회 9월26일 시민운동장 소경기장에서 회원과 사무국적원 등 1^배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대구건축사채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배구, 족구, 공물리기, 4백미터

계주, 중다리기의 5종으로 진행된 본체유대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고 체력향상을 도모하며 선의의 승부정신과 진서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시할 계획이다.

光州直轄市支部

지부장 朴永熹



권투선수에 훈련격려금 박영희 지부장은 9월21일 지부장실에서 제68회 건국채전에 대비, 훈련에 어넘이 없는

아마퓨이 권투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광주직할지 아마큐어 권투협회 관계자에게 선수훈련 격려급을 전달하였다.

京畿道支部

지부장 趙相鎬



제 4 회 전국건축사골프대회 개최

경기도시부는 9월28일 오산간트리 클럽에서 1백93명의 전국 지부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4 회 전국진축사골프대회를 주관· 개최하였다.

단체 및 개인별 성적은 다음과 같다.

○단체상 우승:서울지부 ○개인상

우 승 : 서울자부 홍정길 화원 메달리스트 : 서울자부 이종완 회원 준 우 승 : 충북자부 빈길원 회원 3 위 : 부산자부 최온경 회원 : 4 위 : 서울자부 김동표 회원 | 5 위 : 광주지부 임재석 회원
장 타 상 : 광주지부 채규당 회원
근 접 상 : 충납지부 임근수 회원
비 디 상 : 부산지부 양정부 회원
파 상 : 경남지부 박당과 회원
다 불보기상 : 경남지부 박문용 회원
보 기 상 : 경남지부 민경진 회원
행 문 성 : 대구지부 이병일 회원
양 문 상 : 대구지부 이병일 회원
이 기 상 : 서울지부 현순철 회원
미 기 상 : 서울지부 병규영 회원
이 기 상 : 서울지부 병규영 회원
강 수 상 : 부산지부 허선행회원
강 수 상 : 부산지부 허선행회원
강 다 상 : 대구지부 김화자 회원
강 러 상 : 대구지부 김화자 회원

濟州道支部

지부장 白享哲

제10회 幹事會議 개최 9월24일, 제10회 幹事會議员 개최하고, 1988년도 支部獨立豫第(안)편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 소위원회는 과거 지무예산 집행상황을 분석하고 협회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지부 활성화금 위한 '88년도 支部豫算(안) 편성에 대한 위임을 받아 활동하게 될 예정인 바 본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강요준

위 원 : 김수현 강은홍 검석륜

질서는 사람속에 사람은 질서속에